

닥치고있어 천국을 보여줄게



With or without you – 사회, 문화, 역사

주님바라기 502™

## 소개글

# 목차

1	마이클 잭슨 변고 배경...	5
2	뉴저지 에일리 Ailee & 파주 신예림, 광명 이소영	13
3	[스크랩] 다시 보는 Deep Impact...	17
4	Sky Arena - Wind Tunnel	21
5	2009 MTV Video Music Award	23
6	블랙스완 : 오컬트와 마인드컨트롤에 관한 영화	38
7	조지 루카스의 2012 이야기에 실신한 세스 로젠	47
8	'Non ti scordar di me' & 'Sempre Libiera'	48
9	'That's what friends r 4', 'Endless Love' & 'The greatest love of all'	50
10	Wingsuit Basejumping	53
11	이 아이들... Libera 外...	55
12	시간여행자?	57
13	라흐마니노프 Rachmaninoff	62
14	2010. 10. 8 뉴스 브리핑	63
15	EBS 글로벌리더와 미래를 만나다 (2) 노암촘스키편	67
16	영화 매트릭스와 가상현실	72
17	1 of 3 Ses	78
18	한 고교 졸업생 대표의 연설	80
19	두바이 분수 w/ 도시단상	84
20	뽀한 싸움, 그러나... - 옥성호	91
21	지구가 만약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94
22	Satanic Symbolism in Commercial Logos	98
23	그리스도인이 담배를 피워도 되는가?	100
24	한 아저씨가 어린 아이에게 물었다.	103
25	히브리 단어 소사전	104

26	성경속 화폐단위	134
27	하나님의 No	137
28	거대 강입자 가속기는 시바신을 위해 건설?	139
29	Hand in hand	143
30	유태인과 공산주의 (책)	144
31	或, 오늘이 불만스러운 당신에게	197

영상 설명 : [Illuminati, Music Industry...WAS KILLED 일루미나티가 마이클잭슨 죽였나...](#)

관련 링크

[마이클 잭슨은 反 일루미나티였다.](#)

[일루미나티가 마이클 잭슨을 죽였다.](#)

[Illuminati는 마이클 잭슨 사망...](#)

[마이클 잭슨 ; 계획된 . 25일sacrifice](#)

[마이클 잭슨의 죽음과 미국 연예 산업 제2부 허리우드에 퍼져 있는...](#)

[Illuminati in movies.](#)

[조지 루카스의 2012 이야기에 실신한 세스 로젠](#)

별도의 코멘트는 작성하지 않겠습니다만, 총 11개 시리즈로 되어 있는 위의 1번 영상과 함께 다른 영상 2편을 올려봅니다.

서서히 검열을 거쳐 인터넷 상에 관련 자료가 삭제되고 있다.는 화면이 뜨는 아래 내용은 11개 시리즈의 파트 2 영상으로...

'내 피부가 희게 된 백반증에 모종의 음모가 있고... 이에 대해서 그닥 이야기 하고 싶지 않다... 라고 하는 인터뷰 화면과

'미국의 상당한 문화가 흑인들의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흑인을 싫어한다.'등의 이야기를 역설하는 할렘가에서의 연설 장면,

공연에서도 살짝 관련된 내용을 전하는 잭슨의 생전 모습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각종 일루... 상징들을 때려 부수는 잭슨의 MV 1990 "Black or White"

이런 잭슨이 온갖 루머와 폄훼에도 불구하고 인기를 더해가자...

너무 외설로 가는 스눕 독이나... 난장으로 가는 에미넴에 이어

일루... 세력이 잭슨에 대해 렉설하게 새로이 내놓은 대항마가 Jay Z와 Beyonce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정작에 자신과 자기 마눌의 MV 영상과 가사에 갖가지 일루... 상징을 끊임 없이 노출시키고 있는 Jay Z는

관련된 모든 의문 제기를 일축하고 있기도 합니다.

참고로... 최근, 아래 영상이 M. J. 이 생을 마감하기 전, 지구 접근 행성에 대한 경고를 한 내용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위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리고 영상에서 쓰인 문장의 쓰임 자체만을 보더라도,

아래 영상에서 M. J. 이 언급하는 'Take care of the Planet.'은 '행성을 주의하라.'가 아닌,

'지구를 돌보라.'(혹은, You Should 가 생략된 '지구를 돌보아야 한다.') 정도로 번역함이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서 번역된 것 처럼... 2012년에 대해서는 오래 전 부터 무수히 많은 이야기가 돌았으나...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성을 조심하라는 다소 가볍게 보이기 까지하는 직번역을 무시할 수 도 없지만... ^^)

M. J.은 과연 2012년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갖고 있었던 것일까요... ?

번역이 애매한 위에 자료 때문에... 본의 아니게... (—.—ㅎ) 이렇게 포스팅 하나 추가해 봅니다.

모두 설(說)...입니다만... 맨 위의 영상을 만든이의 정성스러운 수고 속에 보이는 fact들은...

개인적으로 개연성이 꽤 있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수용 여부는 전적으로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의 자유 판단입니다.

또 하나 추가로... 국내 넷 미디어에서는 작년에 이런 기사가 있기도 했었는데요...

### 죽기 전 마이클잭슨, 발표하려던 신곡 가사 '섬뜩' OSEN 연예 | 2010.11.08 17:41

[OSEN=최나영 기자] 지난 해 세상을 떠난 팝스타 고 마이클 잭슨의 미발표 신곡이 공개됐다. 마이클 잭슨이 생전에 녹음했지만 발표하지 않았던 신곡 '브레이킹 뉴스(BREAKING NEWS)'의 음원이 8...

'세계적인 한류가 태동하려는 시기에... 한류의 본토 한국에서 마이클 잭슨 번고 배경 새삼 논란!'

어설픈 포스팅 하나 올리면서, 위 기사의 문제의 가사가... 이런 상황을 암시하는 거였나... 심네요.ㅇㅎㅎㅎ

요즈음... 지구자기장/태양활동/지각활동 관련 업뎃은 쉬고 있지만...

9월 8일경의 X급 쏘라 플레어 작렬에 즈음하여, 6.0급 지진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에서 꼬리를 물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유례 없는 대정전이 있던 어제 하루만에도... (대정전인지... 대절전인지 모르겠지만... —.—;)

뉴질랜드 6.0 / 일본 6.2 / 쿠바 6.0 / 남태평양 피지 섬에 7.2... 등의 강진 소식이 있었습니다.

공중파 뉴스 언급은 별도로 없습니다만... 다 올리지 못하는 여러가지 소식을 통해 보게되는 시절이 하 수상하니...

가정별로 각별한 유의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 활용하실 만한, 새로 나온 최신 장난감 영상 몇... 더 올려 드리면서... 글을 맺습니다.



PDF로 발행할 수 없는 형식입니다.

찬 바람도 슬슬 불고 하니 이런 것도...



자세히는 몰라도... 모두 국내 오픈 마켓, G 마웅, 응션, 11응가 등에서 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총총...

꾸벅... \_( )\_





한 3년 전에... 우연히 접했던 노래가 너무 좋아서 이런 친구가 한국에서 활동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당시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다른 사이트에 스크랩했던 그 영상의 주인공이...

어떻게 휘성과 손잡고 나오게 되었는지가 미스터리...

당시, 앓은 자리에서의 영상과 달리 무대 영상에서는 다소 설익은 모습에 '역시 앓은뱅이 가수?' 싶기도 했었으나, 금번 휘성과 같이 오른 무대에서 앓아싸와 다르지 않은 '정교한 노래 솜씨'를, 자연스러운 안무와 함께 구사...

장차 어떤 오디언스라도 압도할 수 있을 무대매너 포텐셜을 '살짝' 연출한 모습이 더욱 돋보임.

이대로 한국에서 계속 활동해 준다면...

한국 가요계에는 가볍게 한 획을 긋고, 최근의 한류에 몸을 실어, 월드 베스트 클래스로 성장할 재목으로 살짝 소개... 해 보는 이 사람.

## 에일리 Ailee...

아래 Whitney Houston 원곡의 'I have nothing'은 조회수 31만 hit의 Ailee UCC 명곡.

그리고...

그냥 깜짝 놀랐다... 라는 말 밖에는... 파주에 14세 **신예림** 양...

요즘 아이들... 대체적으로... 예전 보다 더 예쁘고 똑똑해진다는 느낌... 나만 그런가...

오늘 다 우연히 본 영상들인데...

광명 **이소영** 氏, (모창 뿐만 아니라, 본 노래 실력도 꽤 출중... ^^)





출처. 윤민님 블로그 : <http://blog.naver.com/kryzialove/150114462744>



외국의 어떤 네티즌이 1998년에 개봉했던 블록버스터 영화 Deep Impact와 작금의 상황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재미로 보세요...**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1. 영화에 등장하는 혜성(Wolf-Beiderman)과 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Elenin 혜성의 모양과 궤도가 비슷해 보인다.

2. 영화에서 얘기하는 E.L.E.(Extinction Level Event)와 ELENIN 혜성의 관계? ELENIN이 혹시 ELEven, NINe(11-9-11)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참고로 2011년 11월 9일에는 YU55라는 또 하나의 행성이 지구와 200,000 마일의 거리를 두고 지나갈 예정이며, 이 날 하필이면 FEMA에서 진행하는 훈련 때문에 일시적으로 TV와 라디오 방송이 중단될 예정임. 관련 링크 참조

<http://www.fema.gov/news/newsrelease.fema?id=55722>

The nationwide test will occur on Wednesday, November 9 at 2 p.m. eastern standard time and may last up to three and a half minutes.

Similar to local EAS tests that are already conducted frequently, the nationwide test will involve broadcast radio and television stations, cable television, satellite radio and television services and wireline video service providers across all states and the territories of Puerto Rico, the U.S. Virgin Islands and American Samoa.

3. 영화를 보면 예산 문제 때문에 미국 국회에 문제가 있음을 볼 수 있음. 대통령의 원래 계획은 이 문제가 마무리된 후 혜성 문제를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것임. 현재 미국에서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국가 부채한도 문제를 두고 씨름을

하고 있는 중 (어느 정도 진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들긴 했습니다만...)

4. 영화에 등장하는 우주선 Messiah와 Atlantis. 여기서 Messiah는 러시아의 우주 정거장(ISS)을 의미할 수도 있고, 실제로 얼마 전 발사된 Atlantis호가 러시아의 우주 정거장과 조우했음. 관련 링크 참조 (2011년 7월 10일자 기사).

<http://www.ntn24news.com/news/shuttle-atlantis-visits-international-space-station>

5. 영화에 등장하는 미국의 흑인 대통령이 해외주둔 병력의 철수를 언급함. 오바마 대통령도 얼마 전 33,000명의 병력을 철수시키겠다고 발표했음.

6. 재무장관의 사임. Timothy Geithner 미국 재무장관도 얼마 전 사임 의사를 표명한 바 있음. 부채한도 문제가 해결된 후 자리에서 내려 오겠다고 함. 잠시 좀 쉬고 가족을 챙기겠다는 내용까지 동일...

7. 영화에서 혜성을 처음 발견한 청년의 이름은 Leo Beiderman, ELENIN 행성을 발견한 사람은 Leonid Elenin.

8. 영화에서도, 현실 세계에서도, 세계 각국이 지하벙커 건설에 열을 올리고 있음...

9.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은 사항들 - 복권추첨을 통해 지하벙커에 들어가게 될 국민을 선정하는 작업, 계엄령.

보너스: 예전에 이 영화 봤을 때는 몰랐는데, Deep Impact에서 조연으로 출연했던 두 배우가 미드 The Event의 두

주인공으로 나왔더군요. Messiah호의 선원 중 하나였던 사람이 The Event에서 미국의 흑인 대통령으로 나오고, 영화 여주인공(금발머리 기자)의 선배 기자였던 사람이 The Event에서 외계 종족의 지도자인 Sophia로 나옵니다...

뭐, 다 우연의 일치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출처. 윤민님 블로그 : <http://blog.naver.com/kryialove/150114462744>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 있는 Sky Arena라는 실내 스카이 다이빙 연습 시설의 모습입니다.

시선을 잡아 끄는 색다른 광경이... '나도 한 번...?' 싶은 마음을 만드네요. ^^

최근... 머리 아픈 소식만 전하는 것 같아서 하나 올려봅니다.



뜬금 없이 왜 MTV의 VMA를 머릿글로 올리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현재까지 계승되고 있는 고대의 신비주의 종교 미스터리 바벨론의 개념들이 팝문화에 어떻게 담겨 있는가?'를 예리하게 지적하는 글이 있어서 스크랩 올려봅니다.

지난 번 블랙 스완과 같이 드론베터님의 번역으로 소개된 **Vigilant Citizen** 글이구요.

최근에는 국내 10대 아티스트들도 그들의 활동 영역 속에 노출되고 있는 오컬트 상징들에 관한 설명글입니다.

드론베터님 블로그([http://blog.naver.com/anarchy\\_dd](http://blog.naver.com/anarchy_dd))에 '팝문화 속 오컬트' 카테고리에서는 최근 연이은 엉뚱한 돌발 행동과 정말 남다른 패션 감각으로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레이디 가가의 음악(비디오) 해설을 비롯, 신비주의, 혹은 영지주의로도 일컬어지는 오컬트 상징들과 마인드 컨트롤 상징들이 정상급의 팝 아티스트들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되고 노출되고 있는지... 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과 잘 설명된 참조글들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스크랩 본문 시작하겠습니다.

**Vigilant Citizen의 원문 링크** : <http://vigilantcitizen.com/musicbusiness/the-2009-vm-as-the-occult-mega-ritual/>

전혀 예상치 못한 각본에서 충격적인 퍼포먼스까지, MTV 2009 VMA는 또한번 시청자들을 놀래켜 구설수에 오르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놓친게 있다면 2009 VMA에는 오컬트 상징이 곳곳에 박혀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 TV행사는 입회식과 기도, 그리고 희생제사가 동원된 대규모 오컬트 의식이다. 못 믿겠으면 쇼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상징들을 알아보도록 하자.



MTV의 VMA(Video Music Awards)는 종종 오컬트 심벌리즘을 포함한 음산하고 괴이한 공연을 펼쳐왔다. 그렇지만, 2009년의 행사는 이전의 모든 퍼포먼스를 능가한다. 이 쇼는 방영직후 대중들이 카니에 웨스트가 어디가 잘못된게 아닌지 댓글설전을 벌이게 했고 레이디 가가의 뿔끼에 대해 한마디씩 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퍼포먼스 뒤 실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밀교적 지식이 필요하다. VMA 시상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연의 형태로 가장된 전형적인 오컬트 의식이다.

2009 VMA는 여타 시상식과 매우 달랐다. 비욘세, 테일러 스위프트, 레이디 가가 외에도 성공적인 활동을 펼쳤던 아티스트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삼인방에게만 한정되어 진행된다. 이런 '선택받은' 아티스트들은 2009 VMA 세레머니의 배역을 맡고 각자 다른 의식을 거행하게 된다. 일반 MTV 시청자들에게는 또라이같이 들리겠지만 프리메이슨 등의 오컬트 의식에 대해 알고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종교적 의식을 간파할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이 세상에는 역사속에서 살아남아 유지되고있는 수많은 사교클럽과 의식들이 존재한다. 숭고한 목적에서 사악한 음모까지 사람들의 목적은 다양하다. 2009 VMA은 결정적으로 사악하고 사탄주의적인 의식에서 비롯되었다. 파헤쳐보도록 하자.

## 여사제의 연설.



마돈나의 설교

음악계의 여사제이자 존경받는 MTV의 큰선배인 마돈다가 마이클 잭슨을 향한 엄숙한 찬사로 쇼를 시작한다. 그녀는 마이클 잭슨 생전에 실

제로 친분을 유지하지도 않았고, '연관인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헌정을 바치는 역을 맡았다. 마돈나는 오컬트 의식을 위해 연구되는 유대교 밀교 카발라에 능통한 인물이다. 랍비 Ariel Bar Tzadok는 그녀가 어떻게 카발라 심벌리즘을 사용(이라 쓰고 남용이라 읽는다)하는 지 설명한다:

" 마돈나가 성스러운 유대 신비주의에 취미를 붙였다는걸 들었습니다. 요번에 나온 제임스 본드영화 주제가 뮤직비디오(Die Another Day)는 과거의 "Material girl 속물같은 여자"였던 그녀가 자신을 "카발라 여자"로 변모시켜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더군요. 전형적인 마돈나 스타일의 음악과 관능적 이미지와 별개로, 그녀는 오른쪽 어깨에 성스럽게 모셔야할 신의 이름을 새기고 등장합니다. 문신이라는게 사실 토라 율법에 의하면 금지되어있어요. 카발라에 의하면 거의 혐오의 대상입니다. 그러니 문신이 진짜가 아니거나 일시적이라도, 금지된 행위를 표현하는것은 그자체로 금지의 대상이죠. 예외는 있을수없습니다. 불행히도, 마돈나의 카발라와 토라 유다이즘 모독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뮤직비디오를 계속 보다보면 마돈나가 왼팔에 고무 끈을 감고나오지요. 신앙심 깊은 유대인 남자들이 걸치는 테필린 tefillin이라는 성구상과 동일한 외양을 하고있어요. 테필린은 성스러운 토라가 기록된 양피지를 보관하는 가죽상자를 포함합니다. 이것들이 왼팔 이두근에 묶여지고 끈이 왼팔과 왼손 아래로 느슨히 내려오는거죠. 마돈나는 이 성스런 테필린 상자까지 모욕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팔에 두른 끈이 정통 유대교의 방식으로 둘러진건 확실합니다. 이런 행위는 순전히 신성모독입니다. "

-Rabbi Ariel Bar Tzadok, Madonna' s Kabbalah  
<http://www.koshertorah.com/PDF/madonna%20kabbalah.pdf>



좌: 테필린을 착용한 남성

우: 마돈나의 왼팔에 둘러진 테필린

마돈나의 헌정연설은 마이클 잭슨이 '초자연적 존재'였고 '제왕'이었음을 강조하면서도 그 역시 한명의 인간이었음을 전한다. 그녀는 마치 제단에 올라 지혜를 전달하는 여사제처럼 행동한다. 청중들은 그녀의 말을 명상하며 머리를 조아린다. 이러한 의식은 짙은 카발라 신비주의적 반향을 일으킨다. 그뒤를 마이클을 기리는 영상이 뒤따르는데, 기이하게도 '스릴러' 뮤직비디오 속의 마이클잭슨은 좀비가 되어 썩어들어가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청중들이 듣게되는 스릴러의 Vincent Price의 랩가사는 이러하다:

Darkness falls across the land  
 어둠이 땅에 드리워지고  
 The midnight hour is close at hand

자정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Creatures crawl in search of blood  
 생물들은 피를 찾아 기어다니며,  
 To terrorize y'all's neighborhood  
 너네 이웃들을 경악에 몰아넣지.  
 And whosoever shall be found  
 어느 누구든지  
 Without the soul for getting down  
 이런것에도 끄떡 않을 사람이 있다면  
 Must stand and face the hounds of hell  
 지옥에서 온 무리들을 일어나 맞이해야해.  
 And rot inside a corpses shell  
 그리고 관 속의 썩은 시체들도.  
 The foulest stench is in the air  
 기분나쁜 악취가 공기에 퍼져.  
 The funk of forty thousand years  
 40,000 년은 묵은듯한 고약한 악취.  
 And grizzly ghouls from every  
 무덤마다 사람 살을 파먹는 귀신들이 나오고  
 tomb Are closing in to seal your doom  
 네 운명을 끝장내기 위해 다가오고있어.  
 And though you fight to stay alive  
 아무리 정신 차리려 애를 써봐도,  
 Your body starts to shiver  
 몸은 사정없이 떨러오기 시작해  
 For no mere mortal can resist  
 왜냐면 한갓 인간은 견딜수없어  
 The evil of the thriller  
 사악한 공포를

마이클 잭슨의 최고 히트곡이란것만 제외하면, 스릴러 무대의 여러요소(좀비가된 마이클잭슨,가사내용 등)들이 망자를 기리기에는 섬뜩하지 않나 싶다. 누군가 부적절한 선곡을 하긴했지만, 전체적인 쇼의 '분위기'에는 어떻게든 어울린다.

## 테일러 스위프트의 신고식.



이쯤 끝내시지?

테일러 스위프트는 '최고 여자 아티스트 비디오' 부문에서 수상한다. 그녀는 수상소감을 위해 무대위로 올라간다. 그때 카니에 웨스트가 뛰어 들어서는 그녀의 손에서 마이크를 뺏아 비운세의 '싱글레이디'야 말로 '이시대 최고의 뮤비'라고 몰아세운다. 이 장면은 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카니에에게 '올해의 병신상'의 영예를 안겨주었다. 결국 미합중국 대통령에게 '돌아이' -\_- 라는 영예로운 작위를 수여받기까지 하는 카니에 ㅋㅋ...놀라실분이 있을지모르겠지만...이 '각본없는' 방송사고는...그대로 시청자들앞에 방영된다. 혹시 허접한 리얼리티 쇼를 보다가 각본티가 다니는 민망한 경험을 한적 있으신지 모르겠다. 필자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때의 느낌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주변인들 연기도 신동참고... 비운세의 "어머 놀라워라" 표정도 전~혀 그럴듯해보이지 않더라. 그리고 필자가 카니에의 커리어를 데뷔부터 쭉 조사해봤는데 그의 성격에 일관성이 있음을 알게됐다: 카니에 웨스트가 신경쓰는 유일한 사람이 있다면....그건 카니에 웨스트 본인이다;; 카니에 웨스트성격대로라면 비운세가 아니라 본인문제로 발끈하는게 그답다.

사실 이 장면은 '선택받은 자' 씨클에 가입하기위한 테일러 스위프트의 신고식이다. 신입생은 그녀의 동료들 앞에서 모욕과 망신을 당하고 그녀는 이번 행사의 여왕인 비운세와 같은 무대에 설 자격없는 쓰레기 소리를 듣는다. 대부분의 사교클럽과 갱단은 이러한 신고식을 통해 풋내기의 성격을 간보고 얼마나 강이있고 쓸만한지 짚어본다. 스위프트의 미션은 카니에의 훼방과 모욕이었던 것이다. 이노무 랩퍼는 전에도 한번 시상식에서 공시령댄 적이 있어서, 깜짝쇼에 발탁된것으로 보인다.

## 사탄 기도회.



저와 함께 악마님께 기도하고 싶으신분?

잭블랙은 비디오게임 홍보용을 위해 스테로이드를 잔뜩 복용한 헤비메탈 락커같은 꼴을 하고 등장한다. 어느 시점에서 그는 청중들에게 손으로 '데빌 혼-악마의뿔' 모양을 만들어 들어올릴것을 권유하면서 악마에게 기도를 하자고 한다. 그것도 단순히 '악마devil'가 아니라 '어둠의 주님이신 사탄 darklord satan'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잭블랙 특유의 이미지때문에 전체적으로 코믹하고 가벼워보이지만, 사탄에게 기도를 올리자는게 어떻게 방송사 특집방송중 절정에서 벌어질수있는지 이해하기가 힘들다. 분명히 '부모님들'의 항의전화를 받을거같지 않은가? 거의 반장난조로 시작하긴 했지만 잭블랙은 좀더 심각한 발언을 하며 마무리한다. "여러분들께 오늘밤 수상자들의 계속되는 성공을 기원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문구는 사실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계의 어두운 면모를 드러내는 말이다.

이 장면의 전말은 이렇다: 모두가 손으로 "악마의 뿔"모양을 만들어 하늘로 들어올린다. 그리고 모두의 손을 모아 사탄에게 기도를 올리는것이다. 아티스트들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말이다. 사전에 리허설을 거친 이 촌극은 다른때라면 별거아닌 코미디로 치부할수있을지 몰라도, 전후 관계를 살펴봤을때, 이것은 명백히 오컬트 의식의 재현이다. 악마에게 바치는 집단기도.

## 피의 희생제사.



혈...

레이디 가가의 퍼포먼스는 많은 팬들에 의해 '넘좀 짱임' 칭송을 받았다. 막상 저 퍼포먼스가 무슨 의미인지 물어보면, 그들도 잘 모른다고 대답할 것이다. 대중은 단순히 그녀가 4차원이라서 멋지다고 생각한다. 아래는 가가데일리닷컴에서 가져온 그녀의 인터뷰중 일부다.

"올해 VMA에서 당신의 무대가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전 그렇게 될거라곤 몰라요. 전 이런 철학을 갖고있어요. '기억되지 않고,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영감을 주지못할거라면 아예 하지를 말자.' 이번 공연에 관해서 저는 유명세와 그 대가에 관해 심각한걸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고싶네요."

"심각한거요? 어떻게요?"

"보시면 알거예요."

"어떤 의상을 입을실거죠?"

"이번 공연의 의상은 금욕적이었고 인상깊은 역사속 유명한 순교자를 상징화했어요. 그들을 아이콘화시킨 이미지로 디자인한 의상이랄까요. 아마 공연을 보시고나서 유튜브를 통해 상징들과 참고자료를 찾으실수있을거라고 생각해요."

무대 세팅역시 상징을 내포하고있다. 가가는 귀족의 대저택같아 보이는 사원에서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대저택 내부에는 기둥과 샹들리에, 그림들이 꾸며져있다. 오컬트 의식과 마인드 컨트롤 체험, 그리고 심지어 인간 희생제사가 저러한 세팅에서 이루어진다는 루머들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결코 무시할수없는 특징은 아치아래의 거대한 두 기둥이다.



중심부 아치와 두 기둥을 주목하자.

저런 분명히 프리메이슨 심벌이다. 아래 석판화를 보시라.

이런 명백한 프리메이슨 힌트는 가가의 퍼포먼스가 오컬틱하고 의식적인 면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준다. 프리메이슨들은 자신들의 랫지(지부)에서 각본에 따라 의식을 치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화같은 각본에 따라 실제로 현실에 재현하는것이다. 가가의 퍼포먼스는 그녀의 유명세와 성공을 위해 그녀가 치러야만 했던 희생을 상징한다.

피투성이가 된 가가가 공중으로 들어올려질때, 두 기둥사이에서 섬뜩한 빛이 나온다. 그리고 댄서들은 환호하며 그녀를 공중으로 번쩍 들어 올린다. 수많은 고대종교는 산을 기쁘게 하기위해 희생제사를 거행했다. 희생제사는 또한 영적 에너지를 모으기 위한 흑마술사들의 최후의 수단이기도 하다. 퍼포먼스의 마지막 장면은 희생제사 이후 신비로운 '힘'의 존재를 전파한다.



떠오르는 별.

그녀의 퍼포먼스 직후, 가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시뻘건 의상을 입었다기보다는 뒤집어쓴것에 가까운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녀는 말그대로 말하면서 걸어댕기는 피투성이 희생제물이다. 이러한 아티스트의 희생은 성공을 위해 그들이 감수해야하는 지옥같은 삶과 영혼을 팔아 넘기는 행위를 암시하는것이 아니겠는가. 위에서 가가가 자신의 이 의상이 '자유분방'한 예술인이 아니라 '금욕적'인 순교자를 형상화한것이라 발언했음을 잊지 말자. 그들은 명예를 위해 자신을 부인해야하는것이다.



가가왈 : 이 상을 신과 게이들을 위해 바칩니다

역주 : 만약 역자의 다른 글을 읽지 않았다면, 트라우마에 기반한 마인드 컨트롤 - 모나크 프로그래밍(Monarch Programming)으로

도 알려짐 - 이 무엇인지 궁금할것이다. 마인드 컨트롤은 한마디로 정신분열을 일으키기 위해 강제로 극도의 트라우마를 가하는 학대행위이다. 사람은 견디기 힘든 충격을 겪으면 미치지 않기위해 다중인격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다중인격은 학대를 받고도 자신이 학대받는것을 기억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수있기에 노예로 이용된다. 가해자들은 주로 피해자들에게 전기충격, 성폭행, 굶주림을 이용하여 정신해리를 일으킨다. 결코 사용되어서는 안될 기술이지만 절대복종, 뛰어난 육체적 능력, 방대한 암기력 등의 특징을 보이기에 특수용병, 정보요원, 연예인, 스포츠선수의 양성에 버젓히 사용되고 있다. 특히 스파이 같은 경우 작전수행을 위해 쓰이는 인격에게만 정보를 입력하면, 아무리 고문해도 아무런 기억을 하지못하기때문에 보안을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어떤 연구자들은 이 과정에 오컬트 의식이 포함된다고 그들의 저작에서 밝히고 있다.

철저한 다중인격을 창조하기 위해 고안된 정교한 정신해리와 오컬트의 집대성이라는 문구야 말로 프로젝트 모나크를 가장 잘 설명한다고 할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식인의식을 포함한 악마숭상 의식이 거행되는데, 이것의 목표는 특정한 악마나 악마집단과 교신하여 새로운 인격(얼터 페르소나-alter)과 연결시키는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회의론자들은 이것이 단순히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실제로 귀신들림이 일어난다는 비이성적 믿음을 완전히 부정한다. -론 패튼, 프로젝트 모나크에서 발췌.

아래는 모두 국내발매된 관련 도서이다. 어렵지 않기에 선뜻 추천해본다.

마인드 컨트롤 피해자의 증언 : 뜨거운 역사 추악한 진실 (추천)

다중인격 장애자의 자서전 : 다중인격 - 캐머런 웨스트 (추천)

다중인격 장애자의 상태를 상세히 묘사한 책 : 빌리 밀리건스물네 개의 인격을 가진 사나이

## 핑크의 프리메이슨 입단식



이 장면을 보고도 입단식을 연상시키지 않는 프리메이슨이 있다면, 그는 가짜 프리메이슨임이 분명하다. 프리메이슨의 가장 낮은 단계인 1도(1 degree)에 들기 위해서는 입단식을 꼭 거쳐야만 한다. 예외는 없다. Mark Stavish의 묘사를 들어보도록 하자.

입단식을 치르는 지원자는 몸에 걸친것을 모두 벗고 독특하게 고유의 의상을 입는다. (중략..) 이 과정에는 눈가리개와 Cable tow라고 부르는 밧줄 한발이 수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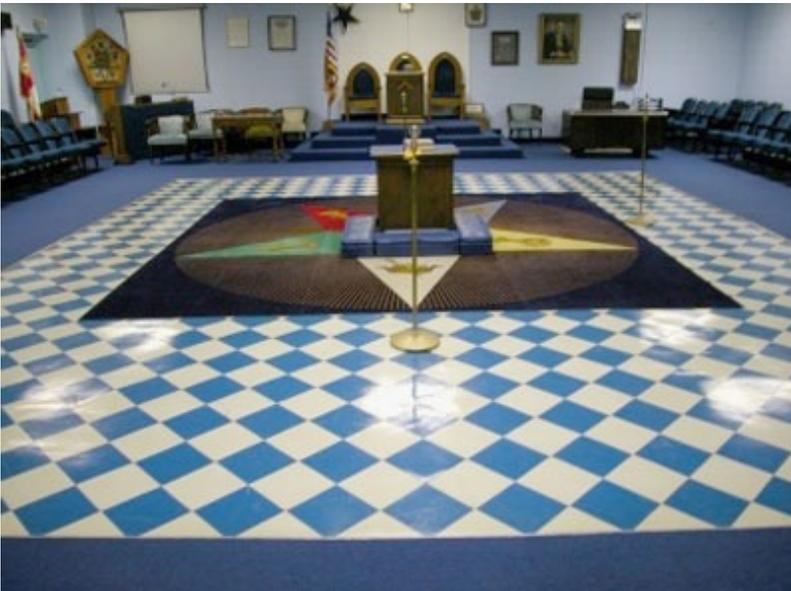
그의 또다른 발언이다

눈가리개는 비밀, 어둠, 무지 그리고 신뢰를 의미한다. 지원자는 입단식을 위해 랫지룸으로 이끌려가는데, 아무것도 볼수없다. 그는 허리와 팔을 Cable tow에 의해 결박당한다. -Mark Stavish, Freemasonry: Rituals, Symbols and History of the Secret Society



지원자는 눈가리개를 하고 밧줄에 묶인채 왼팔과 왼쪽 가슴을 노출당한다.

핑크 역시 눈가리개를 하고 끈에 묶인다. 그녀의 의상은 위의 프리메이슨 지원자 사진과 동일하게 왼쪽 가슴을 노출시킨다. 왼쪽 다리는 노출시키는것 대신에, 프리메이슨 랫지바닥을 연상시키는 다이아몬드 패턴으로 표현했다.



이스턴 스타 랫지.

핑크의 퍼포먼스는 그녀와 시청자 모두를 산란하게 만드는 어지러운 아크로바틱 군무로 이루어져있다. 이것역시 프리메이슨의 1도 입단식의 특징이다.

지원자는 눈이 가려진뒤, 교수형에 이용되는 올가미 형태의 끈을 목에 두르게된다. 이 순간 신입멤버는 시련을 포함한 한계점을 통과하게 된다. 앞을 볼수 없는 상태에서, 지원자의 방향감각이 완전히 상실되며 처형될 죄수처럼 옷을 입기까지 해야 하기때문이다.

-J.S. La Fontaine, Initiation □ Ritual Drama and secret knowledge across the world

## 테일러 스위프트의 가입이 승인됨



한번 더할까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공개망신 이후, 여왕 비욘세가 무대위로 그녀를 불러 '그녀의 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마냥 무대 뒤에서 등장하는데, 비욘세와 유사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나온다.



신곡식의 마무리.

테일러 스위프트는 무대위로 불러져 비운세와 동등하게 소속됨을 인정받는다. '선택받은 자' 클럽에 들게된것이다. 유사한 의상역시 이러한 소속감을 의미하는 중요한 상징이다. 그녀는 시험을 통과했고 이제 내부멤버로서 보답을 받을 것이다.

## 글을 맺으며

VMA같은 시상식은 이시대 팝문화의 결정체 그자체라고 할수있다. 그들은 무명의 아티스트들을 어둠속에 방치한채 선택된 일부 아티스트만을 신성히 떠받들며 숭배한다. 위에서 보여지다시피 2009 VMA 시상식은 입단식을 중심으로 갖은 오컬트 상징들이 버무려진 작품이다. 어째서 MTV는 오컬티즘에 전무한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의식을 노출시키는지? 시청자를 대상으로한 숨겨진 효과들이 있는것일까? 혹은 대중매체는 이러한 오컬트 심벌들을 팝컬처의 일부로 신세대들에게 흡수되는것을 노리고 있는것일까. 확실히 MTV의 여러 프로그램들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 것들이 많다. 이러한 상징들을 간파하는것은 곧 엔터테인먼트 산업계의 진짜 일면을 간파하는것이라 필자는 믿는다.

출처. 드론베터님 블로그 : 거대 오컬트 의식 2009 VMA ([http://blog.naver.com/anarchy\\_dd/100120884994](http://blog.naver.com/anarchy_dd/100120884994))

연계 링크.

[비틀즈\(Beatles\)와 사탄숭배자 크로울리,그리고 오컬트](#)

[Illuminati in movies](#)

[블랙스완 : 오컬트와 마인드컨트롤에 관한 영화](#)

[카발라와 오컬티즘 - Kabbalah & Occultism](#)

[사회속의 사탄주의 - Do What You Want](#)

[나는 이렇게 뉴에이지에 속았다](#)

[종말의 적그리스도 종교, 미스터리 바벨론](#)

[워싱턴 DC의 사탄적 오컬트 심볼](#)

[UN Supporting 물병자리시대 커뮤니티](#)

[UN과 뉴에이지: 루시스 트러스트 \(LUCIS TRUST\)](#)



네이버 '드론베터'님의 블로그에 포스팅된 번역글 스크랩입니다.  
( [http://blog.naver.com/anarchy\\_dd/100120103015](http://blog.naver.com/anarchy_dd/100120103015) )



## 블랙 스완

감독 대런 아로노프스키  
출연 나탈리 포트만, 밀라 쿠니스  
개봉 2010 미국  
평점  
[리뷰보기](#)

블랙스완은 한 발레 댄서가 '검은백조'로 변모하는 과정을 묘사한 기이한 싸이컬러지 스릴러이다. 이 영화의 독특한 외관뒤에는 명성의 대가와 아티스트의 희생,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세계의 배후에 숨겨진 세력에 관한 은근한 언급이 숨어있다. 우리는 이 영화의 오컬트 심벌들과 테마에 연관된 소비즈니스의 어두운 면을 파들어 가볼것이다.

**〈글의 출처는 Vigilant Citizen이며 번역본을 올린것입니다.〉**

대런 아로노프스키가 감독한 '블랙스완'은 수줍은 발레 댄서 니나가 험난한 프로 발레계에서 성공을 향해 전진하는 여정을 그린다. '블랙스완'은 감독의 전작인 '레슬러'와 자매 영화라고도 할수있다. 영화 '레슬러' 역시 비주류 분야에서 역경에 부딪친 인간의 상승과 하강을 그린다 : 프로레슬러말이다. 비록 두 영화 모두 비슷한 주제를 탐구하지만(훌륭한 퍼포먼스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예술가라는 테마), 니나가 해내고 이겨나가야 할 고통은 '레슬러'와는 완전히 정반대이다. 레슬러 랜디 '램' 로빈슨은 노동자계층이 모인 마을에서 블루칼라의 삶이 수반하는 육체적 고통을 견뎌야하는 노동자이다. 반대로 니나는 세련된 발레계에 속한채 자신의 정신적, 감정적 심지어 영적인 문제로 고군분투한다.

글쓴이(vigilant citizen: )는 훌륭한 예술작품은 수많은 방식으로 해석될수 있다고 종종 말해왔다. 감상자의 사전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말이다. 이 영화역시 예외일수없다...이 작품의 플롯은 정말로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수있다. 하지만 상징들의 의미를 추론해보았을때 이 영화는 이제껏 Vigilant Citizen에서 다뤄왔던 다양한 주제들을 언급하고 있다 : 연예사업의 어두운 오컬트 문화, 이원성의 원리, 트라우마에 기반한 마인드 컨트롤, 강제적인 페르소나의 창조 등등! 주요 인물인 니나는 더 나은 무대를 위해 자신의 '어두운 자아'를 건드림으로서 형이상학적 변화를 겪는다. 이 변신은 니나의 '지배자-핸들러(handler)'에 의해서 강요되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녀의 발레감독이다. 영화는 니나 정신속 또 하나의 인격이 창조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트라우마에 기반한 마인드 컨트롤을 미묘하게 언급한다.

'블랙스완'이 픽션임에도 불구하고, '블랙스완'은 예술과 공연에 밀접하게 결합된 숨겨진 진실을 다루고있다. 이미 세상에는 수많은 예시들이 있지않은가. 자신의 예술을 '한단계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해 자신의 어두운 자아를 꺼안았던 예술가들 말이다...그리고 그들중 많은 이들이 자신들이 만들어낸 자아에 의해 완전히 소진되는 최후를 맞은것도 사실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블랙스완' 속의 오컬트 코드와 마인드 컨트롤 원리들을 찬찬히 살펴 볼것이다. 그리고 실제 프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현실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도 지켜보도록 하자.

주의 : 스포일러가 다량확보 되어있습니다!

## 줄거리 요약 :

'블랙스완'은 차이코프스키의 고전인 '백조의 호수'의 현대판 각색이라고 할수있다. 영화에서 발레감독 토마스 르로이(뱅상카셀 분)는 댄서들에게 작품의 기본 플롯을 설명한다.

“ 뭐 다들 아실겁니다.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소녀가 백조의 몸에 갖힙니다. 그녀는 자유를 갈망하지만 진실한 사랑만이 그녀의 저주를 풀수있고요. 그녀의 소원은 왕자에 의해 거의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사랑의 맹세를 하기 직전, 그녀의 탐욕스런 쌍둥이인 '블랙스완'이 왕자를 속이고 유혹해 채가고 맙니다. 이루 말할수없이 피폐해진 백조는 절벽에서 떨어져 스스로 죽고말아요. 죽음에서야 그녀는 자유케 되는것이죠. ”

니나. 수줍고 예민한데다 젊은 그녀는 백조의 여왕役に 낙점된다. 순수한 백조와 사악한 '블랙스완' 둘다를 구체화시켜야 하는 임무가 주어진 것이다. 완벽한 댄서가 되고자 하는 열망은 그녀가 실생활에서 각본속 백조가 겪는 변신을 겪도록 이끈다. 따라서 니나의 일상생활속 사건들은 그녀가 맡은 역할과 각본을 반영하게 되고 결국은 혼란으로 인해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모호해져 뚜렷한 광기를 드러내게 된다.

거울과 반사상을 이용한 많은 장면들은 니나의 뒤틀린 현실인식을 계속해서 각인시킨다. 영화속 거울들은 거울속 니나의 모습들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듯한 애매모호한 장면을 비춘다. 니나가 '블랙스완'에 사로잡히면서 또다른 페르소나는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니나의 의지를 벗어나 행동한다. 우리는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트라우마에 기반한 마인드 컨트롤을 설명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만약 당신이 이 사이트( )의 다른 글을 읽지 않았다면, 트라우마에 기반한 마인드 컨트롤 - 모나크 프로그래밍(Monarch Programming)으로도 알려진 - 이 무엇인지 궁금할것이다. 마인드 컨트롤은 한마디로 정신분열을 일으키기 위해 제대로 극도의 트라우마와 비인간적 경험을 겪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노예의 인격을 산산조각내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 지배자(handler)는 자신의 뜻대로 조종할수있는 새로운 인간을 만드는것이다. 어떤 연구자들은 이 과정에 오컬트 의식이 포함된다고 그들의 저작에서 밝히고 있다.

역주 : 마인드 컨트롤에 관해서는 MK-ULTRA/MK 울트라를 검색하는것을 추천한다

"철저한 다중인격을 창조하기 위해 고안된 정교한 정신해리와 오컬트의 집대성이라는 문구야 말로 프로젝트 모나크를 가장 잘 설명한다고 할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식인의식을 포함한 악마숭상 의식이 거행되는데, 이것의 목표는 특정한 악마나 악마집단과 교신하여 새로운 인격(얼터 페르소나-alter)과 연결시키는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회의론자들은 이것이 단순히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실제로 귀신들림이 일어난다는 비이성적 믿음을 완전히 부정한다." -론 패튼, 프로젝트 모나크에서 발췌.

**마인드컨트롤 피해 방지 및 인권 회복 운동 위원회** [웹수집](http://cafe.daum.net/mindcontrolvictim/) 정부와 세계적인조직에의해 실험되어지고 있는 마인드컨트롤  
<http://cafe.daum.net/mindcontrolvictim/>

**마인드컨트롤피해자인권모임** [웹수집](http://cafe.daum.net/xm6m2b0e/)  
<http://cafe.daum.net/xm6m2b0e/>

전파무기에 의한 마인드컨트롤도 존재한다. 관련도서 '염소를 노려보는 사람들'

---

'블랙스완'의 홍보 포스터.  
니나(나탈리 포트만 분)의 얼굴이 금이가있다.  
그녀의 정신분열을 암시하는 중요한 마인드 컨트롤 상징이다.

이제 영화의 중심테마로 들어가보자.

## 니나와 트라우마 :

니나는 뉴욕의 작은 아파트에서 엄마와 함께 산다. 엄마인 에리카는 한마디로 압도적인 인물이다. 니나의 생활 환경과 엄마의 지배를 들여다보면 트라우마에 기반한 마인드 컨트롤에 대한 많은 암시를 발견할수 있다.

---

니나의 침실. 벽의 나비를 주시할것.  
모나크 프로그래밍의 은유로 나비는 자주 등장한다.  
침대옆 토끼인형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상징이다.  
마인드 컨트롤 노예들을 세뇌하는데 사용되는 책중 하나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이다.  
앨리스는 토끼를 따라 거울너머의 세상으로 넘어간다.  
이것을 마인드 컨트롤 전문용어로 풀이해보자면,  
노예의 정신해리상태를 지칭하는것이다.

니나의 엄마는 빛을 보지못한채 은퇴한 발레리나다. 그녀는 따뜻한 엄마라기보다는 마인드 컨트롤 핸들러처럼 행동한다. 그녀의 어머니가 니나의 삶의 열쇠를 쥐고있다는 사실은 확실해 보인다. 현실의 모나크 노예들은 자주 가정에서부터 의도적 학대로 인해 힘든 삶을 시작하곤 한다. 아마도 마인드 컨트롤과 연관된 상징들은 그런 슬픈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것일것이다. 유아기를 벗어나지 못한 듯한 그녀의 핑크빛 침실을 포함해서 말이다.

---

매일밤 에리카 세이어는 발레리나가 춤을 추는 뮤직박스의 태엽을 감는다.  
이것은 니나의 마인드 컨트롤 상태를 감안했을때 매우 상징적이다.

---

니나의 엄마는 다 큰 딸의 옷을 강제적으로 벗긴다.  
이 묘한 장면은 니나의 절대복종과 엄마와의 성적 친밀감을 암시하고 있다.

니나의 삶속 또다른 인물.  
그녀가 내뿜는 '피해자의 기운'을 감지하고 그녀를 성적으로 이용한다.

---

늙은 변태가 지하철에서 저속한 제스처를 보낸다. 이 장면은 니나의 성적인 면에 무언가 있음을 의미한다.  
성범죄자들은 종종 성적학대를 받은 피해자를 감별하는 역겨운 재능을 가지기도 한다.

영화속 정황을 보았을때 그녀는 꿈의 대리실현이라는 용도로 트라우마에 기반한 마인드 컨트롤을 받았을것이다. 이것은 그녀가 스스로의 존재를 희미하게 자각하도록 훈련시키고, '블랙스완'이라는 어두운 페르소나가 만들어질때 완전히 자신을 내어주는데 일조했을것이다.

## '블랙스완'을 끌어내기 :

스토리라인으로 돌아가보자면, 발레 감독 토마스는 백조의 여왕을 연기할 새로운 발레스타를 물색하고 있다. 니나의 섬세하고 내성적인 춤은 백조를 위해서는 완벽하지만 블랙스완에는 적합하지 않다. 블랙스완을 위해서 댄서는 뒤틀리고 섹슈얼하며 위험해야 하기 때문이다. 니나의 건조한 스타일이 블랙스완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토마스는 그녀를 발탁한다. 그는 그녀의 내부에 '블랙스완'이 있음을 알고있고 그것을 이끌어낼것이다.

---

니나속의 '블랙스완'을 끌어내고있는 토마스.

어느 시점에서 토마스는 니나에게 말한다 :

“ 완벽이란건 통제를 통해 이뤄지는게 아니야. 해방을 통해 얻어내는 것이지. 스스로를 놀래킴으로서 관객을 놀래키는거야. 탁월함. 그건 아무나 가지고 있는게 아니야. ”

니나가 춤을 추는것을 보며 그가 말한다 :

“ 난 백조는 별 문제가 아니란걸 알았어. 진짜 중요한건 사악한 쌍둥이로 변신하는 과정 이야. ”

완벽을 얻기위해 니나는 선악을 모두 다룰수 있어야 한다- 빛과 어둠. 이런 이원론적 오컬트 원리는 후에 매우 중요해진다.(후에 언급하겠음.)

토마스의 역할은 니나 속에 공격적이고 섹슈얼한 새로운 자아(alter-ego)를 창조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그는 니나의 새로운 마인드 컨트롤 핸들러인 것이다. 그녀의 엄마가 그녀를 결코 되물지 않는 순종적인 발레 댄서로 '프로그래밍' 했다고 한다면, 토마스는 그런 성격의 정반대를 받아들일것을 요구하는것이다. 그는 '빅 리그'를 상징한다. 모나코 프로그래밍의 상위 단계말이다.

---

흰옷을 입고있던 니나는 토마스와의 미팅이후 검은옷을 입고서 흰옷을 입은 자신을 스쳐지나간다.

이것은 니나의 새로운 어두운 페르소나가 탄생했음을 의미한다.

'블랙스완'이 되기위해서 니나는 어떻게 해서든 섹스에 익숙해져야하고 심지어 즐겨야한다. 그래서 토마스는 그녀에게 '스스로를 만져보라는' 숙제를 내린다. 어떻게 해서든 최고의 댄서가 되기위해 니나는 자위를 시도하지만 그녀의 엄마가 방해물이다. 성적 쾌락은 '엄마'의 조종으로 부터의 해방과 '빅리그'로의 입문을 형성한다.

'블랙스완'이 힘을 얻게되면서 니나는 그녀 몸이 변형되는 환영을 목격한다. 이런 변형을 목격할수 있는 유일한 타인은 그녀의 엄마이다. 그녀는 그녀의 정신세계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다. 그녀는 니나의 점진적 변화를 알아채고 억압하려 한다. 그녀의 '작고 어린 딸'을 잃지 않기 위해서.

---

니나는 각종 신체변형의 환영을 본다.  
블랙스완이 그녀 정신의 표면에 드러나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이 상황은 현실속 의도적 학대(특정한 목적달성을 위한 학대)의 추한 이면을 반영한 것이다. 부모의 학대에 의해 이미 해리성 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들은 '더 높은 단계'의 프로그래밍 과정을 위해 넘겨진다. 영화 내에서 니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시스템으로 넘겨지는 것이다(실제로 스타들을 조종하기위해 모나크 프로그래밍이 실행되고 있음).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내부에 세계적인 스타역을 수행하도록 정해진 페르소나를 부여받게 된다.

---

새로운 백조의 여왕을 소개하고 있는 틈.

그러나 니나가 새로운 백조의 여왕이 되기위해서는 누군가가 끌어내려져야 한다.

## 베스 맥킨타이어 : 뒤로 밀려나는 왕년의 스타.

---

니나의 대관식에 참석한 베스 맥킨타이어.  
그녀는 더이상 자신이 백조의 여왕이 아니라는것을 방금 깨달은참이다.

베스 맥킨타이어(위노나 라이더 분)는 발레단의 이전 스타다. 하지만 그녀는 늙어가고 있고 특유의 '옛지함'도 잃어간다. 베테랑으로서 베스는 이미 '블랙스완 코스'를 통과했다. 의례 말하듯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 유명세를 얻은것이다. 그 거래가 그녀에게 몇년간의 훌륭한 공연을 선사했음에도 결국 '블랙스완 코스'는 그녀를 처절히 파괴한다. 그녀는 더이상 '블랙스완' 없이는 존재할수없는 비통하고 거만한, 거기다 증오에 찬 존재다.

실제로 이런 운명을 겪는 셀러브리티들은 넘치도록 많다. 오디션에 발탁되어 연에게 시스템(소속사)에 의해 꼭두각시노릇을 하며 슈퍼스타로 떠받쳐진뒤 갑자기 추락하고 잊혀진다. 정신적으로 손상받은채 진정한 자신이 누군지 알지못하는 상태에서 추락한 스타들은 우울과 약물, 알콜중독에 빠진다. 심지어 자살을 택하는 이들도 있다.

베스의 핸들러인 토마스(그는 그녀를 '나의 작은 공주님'이라고 부른다. 마인드 컨트롤 트리거-발화장치-이다.)는 더이상 그가 창조한 그녀의 얼터 이고[페르소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녀의 프로그래밍을 '탈세뇌'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그녀는 평생 자신을 잃은 채로 살아가야 한다. 그다음날 발레단은 그녀가 차에 치였음을 알게된다. 토마스의 대사중 일부다 :

●● 그거 알아? 난 그녀가 일부러 그랬을거라고 생각해. 베스가 하는건 모조리 어두운 심연에서 나오는 총동에서 비롯되니까. 아마 그게 그녀를 지켜보는걸 스릴넘치게 하는 것중 하나겠지...너무나 위험하고...시의적절하기까지 해서. 그렇지만 끝내주게 파괴적이기도해.

'영혼', 즉 베스를 파괴한 얼터 이고[페르소나]는 그녀의 훌륭한 연기뒤 숨은 힘이었던 것이다. 매체는 언제나 자신들의 본능이 끓어오르도록 하는 강렬한 예술가에게 매혹되어왔다. 공연에 의하면, 예술적 탁월함의 원천은 신 혹은 악마에게서 온다. 논쟁적이고 혁신적인 공연가들은 자주 천재와 광인 사이를 오갔다-천재성의 원천인 신비로운 힘에 접근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 파괴를 목도하는것이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힘을 귀신들림이라 할것이고, 과학자들은 이것이 정신분열이 일으킨 창의성이라고 부를지도 모른다. 이 '힘'이 어떻게 불리는것과는 상관없이, 확실히 이 힘은 존재하며 수많은 거장들이 그것과 접촉해왔다. 베스는 이 힘의 후원을 받았고 그것에 의해 그녀는 파괴되었다... 그리고 그힘은 니나에게로 옮겨온다.

## 블랙스완 몸을 차지하다(검은 날개와 거울들) :

---

상징적인 영화포스터.

불사조가 재에서 부활하면서 발레리나가 떠오른다.  
거대하고 위협적인 '블랙스완'이 전체 형상을 이루고있다.

'블랙스완'은 예술적으로는 뛰어날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는 파괴적인 힘이다. 토마스는 그 힘이 니나 속에서 차오르기를 원한다. 그는 블랙스완의 압도적이고 파괴적인 힘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다. 그가 바라는것은 오직 최고의 공연이다. 니나가 '블랙스완'에 의해 완전히 재가 되어버린다면 그는 그녀를 대신할 또다른 댄서를 찾을것이다. 그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대표한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수많은 '블랙스완'을 양산하고 효력이 떨어진 예술가를 폐기처분한다.

### 검은 날개들 :

---

'백조의 여왕'으로서의 짧은 대관식 이후, 니나는 기괴한 조각상에 매혹된다.  
그녀는 자신의 앞에 놓인 미래를 보고있음을 알지못한다.

---

릴리(밀라 쿤니스 분)의 등에 새겨진 검은 날개.  
그녀는 니나에게 '괘락을 선사'한다.  
검은 날개는 그녀와 니나가 공유하는 '힘'이다.  
'힘'은 그녀를 감동시키고 오르가즘을 주지만 삶을 갉아먹는다.

---

'블랙스완'으로서 '완벽'한 공연의 끝에 도달한 니나.  
가장 중요한 순간 그녀의 모습은 검은 날개와 함께 간단히 제시된다.

그녀가 '블랙스완'과 '한몸'이 됨을 의미한다.

---

또다른 상징적 포스터.

남근을 상징하는 듯한 '블랙스완'의 부리가 니나의 정신을 '관통'하고 있다.

거울들 :

거울은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상징으로서 니나의 진짜 정신적 상태를 반영한다.

---

스스로 움직이는 섬뜩한 거울속 니나.

변신이 진행될수록 니나는 완전히 독립적 인격이 그녀속에 자리잡고 있음을 깨달는다.

그것은 그녀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움직인다.

마인드 컨트롤 상징에서 거울은 핸들러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노예의 얼터-페르소나를 의미한다.

---

'블랙스완' 파트의 중요한 부분 직전에 니나는 드레싱룸에서 스스로와 대립한다.

니나와 블랙스완의 갈등 도중에 거울이 깨진다.

두 인격의 정신적 경계가 붕괴되었음을 의미한다.

거울을 깨트림으로서 니나는 '블랙스완'이 된다.

## 마스터피스와 희생번제 :

프리미어[첫무대]의 막이 오르고, 니나는 명성을 가져다주는 연기를 편진다. 그녀는 성공적으로 달콤하고 수줍은 백조 연기를 해낸다. 그리고 한순간 그녀는 '힘'에 사로잡혀 뒤틀리고, 소름돋는 '블랙스완' 그자체가 된다. 흑과 백, 선과 악, 빛과 어둠의 결합으로 니나는 연금술과도 같은 마법으로 광명을 향한 오컬트의 길을 완성한다.

그러나 그 여정은 그녀를 소모시켰다. '블랙스완'이 완전히 자신에게 내리도록 함으로서 일생의 걸작을 창조해냈지만 완전히 다른사람이 되어 버린것이다. 토마스과 관객은 '블랙스완'으로서의 니나에게 매혹당한다. 마치 각본속 왕자가 '블랙스완'에게 홀리듯이 말이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니나가 아니며 '블랙스완'은 그녀와 공존할수없는 파괴적 능력이다. 힘은 그녀의 몸과 정신 모두 같기같이 찢어놓는다. 더이상 견딜수 없는 상태에서 니나가 스스로를 자유케 할수있는 길은 오직 자살뿐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길을 걷는다.

---

공연 끝에서 죽어가고있는 니나. 그녀가 토마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긴다 :

“ 난 정말 완벽했어요. ”

혹시 어느 예술가의 희생번제 퍼포먼스를 연상시키지 않는가?

2009 VMA 어워드에서 그야말로 '희생제사'를 올리고 있는 레이디가가.

##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블랙스완들 :

좌 : 비온세

우 : '사샤 피어스'

(역자주 : 비온세는 자신속에 또다른 얼터-이고가 있다고 여러번 발언한바 있다.)

흑백의 대비를 이용한 전형적인 백조-블랙스완 은유라고 할수있다.

찬란했던 스타가 광적인 역할에 의해 삼켜진 예시는 너무나도 많고 비참하기까지 하다. 그들은 정말로 스스로 자살의 길을 택한것일까 아니면 희생의식을 위해 '죽어야만 했던' 것일까? 혹시 블랙스완은 이런 미스터리한 일련의 사건들을 암시하고 있는것이 아닐까?

가장 최근의 예.

대중들은 레저의 죽음이 그의 배역 때문이라는 주장에 귀기울이지 않는다.

### 잭니콜슨이 '조커' 역으로 히스레저에게 충고하다

히스레저는 까다로운 조커역을 따내는것이야 말로 그의 꿈을 실현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것이 그를 비극적인 죽음으로 몰아갔다고 생각한다.

1989년에 조커역을 맡은바 있는 잭니콜슨은-그는 그 섬뜩한 역에 고려되지 않아 분노했었다.-레저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묘한 말을 남겼다.

"글쎄요," 니콜슨은 이른 수요일 런던에서 기자들에게 말했다, "전 경고했었습니다."

그 경고가 정확히 어떤것이였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울여름 개봉한 이 블록버스터가 무시무시한 흥행대박을 터트린것에 레저의 배역이 한몫 했음에는 여지가 없다.

레저는 최근 기자들에게 '사이코패스이자 정신분열자인 동정심 제로의 대량학살 어릿광대'를 연기하면서 '평균 2시간씩' 수면을 취했다고 발언한바 있다...

"생각을 도저히 멈출수가 없었어요. 제몸은 완전히 탈진했었고, 정신은 계속 돌아갔죠."

약물처방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라고 그는 말했다.

악마적이고 뒤틀린 배역을 맡은 이후 미심쩍은 죽음을 맞이한 또다른 배우는 영화 크로우의 브랜든 리이다.

---

브랜든 리는 영화 크로우를 찍는 '도중' 의문사했다.  
공식적인 사안은 여전히 논쟁거리다.  
영화상에서 그가 죽는 장면은 매우 상징적이다.

## 결론 :

'블랙스완'은 다층적으로 해석될수있는 난해한 영화이다. 우리는 오컬트와 마인드 컨트롤에 주목해 이 영화를 보았고 쇼비즈니스의 그늘진 면에 관한 메시지를 해석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오컬트적 '힘 force'의 결합이라는 개념은 본 사이트 Vigilant Citizen에서 수없이 다루어진 주제이다. 비록 일반 대중들에게서 거의 언급되거나적 없는 개념이라 하더라도,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부의 사람들은 종종 산업 내부의 작업중 일어나는 다양한 형태의 기이한 힘에 대해 증언해온것도 사실이다.

평범한 스티븐 소녀에서 홀린듯한 슈퍼스타로의 변모를 보여주는 니나를 통해, 관람객은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어두운 면을 경험할 수있다. 마인드 컨트롤, 명성에 걸맞지 않는 조작과 부패가 좋은 예이다. 어두운 충동,중독 그리고 자기파괴는 창조적 재원과 천재적 예술가에게 곧잘 발생하곤 한다. '쇼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전도유망한 예술가들로부터 '블랙스완'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안다...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결국 그들을 파괴할것이라는 것도 아주 잘 알고있다. 누가 신경이나 쓰겠는가? 베스가 새 여왕을 위해 뒤견으로 밀려났듯이 대중역시 상류 엘리트들의 새로운 스타를 환호와 박수로 맞이할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듯이, 쇼는 계속되어야 하기에...

**+) 마인드컨트롤과 쇼비즈니스의 진실에 대해 좀더 알고싶으신 분은 <뜨거운 역사 추악한 진실>을 추천합니다.**

[출처] 블랙스완 해석 : 오컬트와 마인드컨트롤에 관한 영화 | 작성자 드론배터

## Rogen stunned by Lucas' 2012 theory (루카스의 2012 이야기에 실신한 세스 로젠)

코미디언 세스 로젠은 최근 그의 영화제작영웅 조지 루카스에게 받은 충격으로 쓰러졌다. 왜냐하면, 스타워즈의 제작자가 세상이 2012년에 끝날거라는 이야기를 20분에 걸쳐 그에게 건넸기 때문이다.

이야기는 로젠이 역할을 맡고 스피버그도 참석한 영화 미팅에서 듣게 되었다는데...

로젠은 화상하기를....

조지 루카스가 자리에 앉더니 2012년에 세상이 끝난다는 이야기를 25분 동안이나 진지하게 하더군요. 루카스가 정말 현실로 여기듯이 (진지하게...)

루카스는 지각판이 어찌 될 거라는 등의 이야기를 계속했구, 스피버그는 그의 눈동자를 (민망한듯) 굴리면서 '이 미련한 친구(루카스)는 이야기를 끝도 없이 지껄일걸세. 미안하네.'라고 했어요.

처음엔 농담인줄 알았죠. 곧 아니란 걸 알게되고... 생각했죠. 내가 만약 조지 루카스면서 일 년 안에 세상이 끝난다고 생각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우주선을 갖고 있지 않다면... (오싹해져서) 루카스에게 물었습니다. 우주선에 자리 하나 되겠어요?라고...

루카스 말이... 자기는 우주선은 없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격납고에 언제라도 조종사가 출발 대기하고 있는 최신식 우주선 같은 게(a Millennium Falcon)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루카스와 스피버그 같은 사람을 태울... 저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한 순간에) 사라져버리겠죠.

출처는 <http://www.torontosun.com/entertainment/movies/2011/01/18/16927446-wenn-story.html> 입니다.

토론토신문이라고 하면, 캐나다에 타블로이드 정도 될까요... (캐나다에 가보질 못 해서... ^^)

코미디언이라는 저 치가 언론 좀 타보겠다고 떠든 소리가 아니라면... 루카스가 무시무시한 소리를 한거가 되네요.

진실인지 아닌지는 2012년에...

## 1. Non ti scordar di me

Pavarotti가 마이클 볼튼하고 딱 둘이서 부른 Nessun Dorma를 찾다찾다 못 찾고... 올리는 논띠...  
1994년 주빈 메타가 지휘했던 The Three Tenors Concert 에서... Pavarotti... 역시 획오- !!

## 2. Sempre Libiera - La Traviata

영화 Le meitre de musique,의 한 장면, 우리나라에는 '가면 속의 아리아'라는 제목으로 1988년에 소개되었던...  
상황 전개가 극적이었던 데다가 모든 곡들이 상황과 딱 맞는 선곡이었던 까닭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게시자 평생에 이 노래를 이렇게 예쁘게 부른 커플은 아직 두 번이 없었다.

3. 꼭 구해보려하는 영상 자료... Andrea Bocelli & David Foster, My Christmas

4. 영화 'Le meitre...' 에서는 조아킴 역으로 분했던 호세 반담의 노래들이 특히 주옥 같지만...  
아래 6분25초부터의 영상도 개인적으로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장면 중의 하나.

1. 설명이 필요 없는 멤버들의 Legendary Live Performance - That's what friends are for

2. 故 Luther Vanderos 영아의 공연 하나 더 - Endless Love (duet w/ Mariah Carey)

3. 예쁘고 귀여웠던 환희와 화요비의 즉흥 연주

#### 4. 교포 2세 Ailee의 The Greatest Love of All

##### the greatest love of all – whitney houston

i believe the children are our are future  
난 믿어요.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라는 걸.  
teach them well and let them lead the way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길을 이끌어 나가도록 해야죠  
show them all the beauty they possess inside  
아이들 안에 잠재한 모든 아름다움을 보여주도록 하세요  
give them a sense of pride to make it easier  
아이들이 수월한 삶을 살도록 자부심을 심어주세요  
let the children's laughter remind us how we used to be  
아이들의 웃음을 듣고 순수했던 자신을 돌이켜 보세요

everybody searching for a hero  
사람들은 모두 영웅을 찾고 있어요  
people need someone to look up to  
사람들은 누군가가 필요한 거죠  
i never found anyone who fulfill my needs  
난 내 원하는 바를 채워줄 누군가를 찾지 못했어요  
a lonely place to be  
(세상은) 외로운 곳이에요  
and so i learned to depend on me  
그래서, 난 내 자신한테 기대는 법을 배웠죠

i decided long ago, never to walk in anyone's shadows  
난 누구에게라도 기대어 살지 않겠다고  
if i fail, if i succeed  
오래 전에 결심했죠  
at least i'll live as i believe  
그게 잘되든지 잘못되든지 난 내가 믿는 바대로 살 거예요  
no matter what they take from me  
내게서 모든 걸 앗아가더라도

they can't take away my dignity  
나의 존귀함은 빼앗을 수 없어요

because the greatest love of all is happening to me  
왜냐면 가장 위대한 사랑이 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i found the greatest love of all inside of me  
가장 위대한 사랑을 나 자신 안에서 발견했어요  
the greatest love of all is easy to achieve  
가장 큰 사랑을 얻는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learning to love yourself it is the greatest love of all  
자기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죠

i believe the children are our are future  
난 믿어요.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라는 걸  
teach them well and let them lead the way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길을 이끌어 나가도록 해야죠  
show them all the beauty they possess inside  
아이들 안에 잠재한 모든 아름다움을 보여주도록 하세요  
give them a sense of pride to make it easier  
아이들이 수월한 삶을 살도록 자부심을 심어주세요  
let the children's laughter remind us how we used to be  
아이들의 웃음을 듣고 순수했던 자신을 돌이켜 보세요

i decided long ago, never to walk in anyone's shadows  
난 누구에게라도 기대어 살지 않겠다고  
if i fail, if i succeed  
오래 전에 결심했죠  
at least i'll live as i believe  
그게 잘되든지 잘못되든지 난 내가 믿는대로 살 거예요  
no matter what they take from me  
내게서 모든 걸 앗아가더라도  
they can't take away my dignity  
나의 존귀함은 빼앗을 수 없어요

because the greatest love of all is happening to me  
왜냐면 가장 위대한 사랑이 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i found the greatest love of all inside of me  
가장 위대한 사랑을 나 자신 안에서 발견했어요  
the greatest love of all is easy to achieve  
가장 큰 사랑을 얻는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learning to love yourself it is the greatest love of all  
자기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죠

and if by chance, that special place  
혹시 당신이 꿈꾸어왔던 특별한 곳을 가다가  
that you've been dreaming of  
특별한 곳을 가다가  
leads you to a lonely place  
외로운 곳에 닿게 될 지라도  
find your strength in love  
사랑으로 힘을 얻도록 하세요

시워~언 하게 함 날아 보실래요?

**Aw fiddlesticks!**

This video can't be played with your current setup.  
Please switch to a browser that provides native H.264 support or install [Adobe Flash Player](#).

[Wingsuit Basejumping – The Need 4 Speed: The Art of Flight](#) from [Phoenix Fly](#) on [Vimeo](#).



1. Libera (몇 해 전, Santus라는 곡으로 큰 반향을 이끌기도 했던... 그 소년 합창단) - Far Away

2. 나무소년합창단 - Cat Duet (G. A. Rossini, 공연실황)

3. St. Philips Boys Choir - Panis Angelicus

<http://www.youtube.com/watch?v=esrinHesolk&feature=related>

4. Libera - Going Home (왕년 Enya의 명곡, Orinoco flow 나 Bach의 Air 등... 도 강추

[2011. 05. 03 업뎃]

아래 본문 각 사례에 대한 반박 자료가 있어서 링크 올려봅니다.

채플린 영화 서커스에 찍힌 시간 여행자 : <http://blog.naver.com/medeiason/120125343975>

캐나다 시간 여행자 : <http://blog.naver.com/medeiason/120125343926>

[2010. 10. 22 업뎃]

1. 찰리 채플린의 1928년작 '서커스'의 컷 중에... 이상한 장면이 있다는 제보 영상입니다.

엑스트라로 지나가는 중년여성이... 손에 쥔 물건에 대고 이야기를 하는...

카메라를 힐끗 한 번 응시하고는 웃으며 자연스럽게 통화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확인해 보시죠.

2. 타임머신 증거? 70년전 캐나다, 시간 여행자가 촬영되었다. (조인스 포토)

Bralorne-Pioneer: Their Past Lives Here



Reopening of the So  
in Nov. 1940.

Date: 1941

Location: South Fork Brid

Events: Historic

General: The 1940's

People: Crowd

Sex: Male & Female

Type: Image

Work: Transport



시간 여행자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이 발견(?)되어 해외 인터넷에서 떠들썩한 화제가 되고 있다. 1940년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에 나오는 복장의 남녀 군중과 자동차가 보인다. 그런데 그 사이에 현대적인 옷차림의 남자가 서 있다. 헤어스타일도 선글래스도 옛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시간 여행을 하며 세상 구경하다 사진에 포착되고 만 것일까?

포함된 조작 사진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그런데 사진의 출처가 문제다. [캐나다](#) 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박물관 사이트에 소개된 사진인 것이다. 설명에 따르면 사진은 1941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골드브리지에서 촬영된 것이다. 1940년 11월 홍수로 파손되었던 사우스 포크 다리를 다시 열던 현장에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다.

정영 기자

3. 90년전 그림에 핸드폰, PDA, 노트북 사용자 모습이... 러시아 지하철 그림 화재 (팝뉴스)





(사진 : 모스크바 키예프스카야 지하철역에 설치된 그림 작품)

러시아 모스크바의 지하철 역에 설치된 그림 작품 한 점이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을 낳고 있다.

최근 러시아 사진 공유 사이트를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을 낳고 있는 그림은 러시아 모스크바 키예프스카야 지하철역에 설치된 대형 그림.

이 그림 작품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90년 전에 그려진 그림 속에 핸드폰과 PDA, 노트북 컴퓨터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현대인’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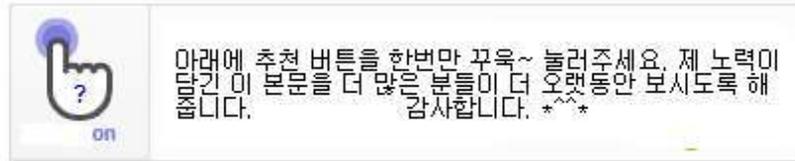
이 작품을 본 네티즌들은 90년 전 그림을 그린 화가가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 세계로 여행을 한 것 같으면서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는 중.

즉,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선 그림 속 인물의 자세가 온갖 종류의 이동통신 기기를 사용하는 현대인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이 네

티즌들의 촌평.

(사진 : 모스크바 키예프스카야 지하철역에 설치된 그림 작품)

/팝뉴스





## 김용민의 News Briefing

## ○ 행복전도사 최윤희 씨가 남편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어제밤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의 한 모텔에서 두 사람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어제 아침에 부부가 투숙했는데, 남편이 먼저 최윤희 씨를 목졸라 숨지게 하고, 본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그동안 최윤희 씨가 심장질환같은 지병을 고민했었다고 한다. 충격이다.

## ① 정부가 한국 유럽연합 FTA에 이어 한미 FTA도 속도를 내는 모양이다.

〈조선일보〉는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유럽연합에 선수를 뺏겼다”며 “경쟁에 뒤처질 수 없으니 우리도 한미FTA를 서둘러 비준하자”는 분위기라고 4면에서 소개했다. 특히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속도를 내서 조속히 성사시키라”고 지시했다고 복수의 외교소식통들이 말했다고 한다.

## ② 통상 서두르는 쪽이 손해 보기 마련인데, 지금 한미FTA 물밑 협상에서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재협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서두르는 건 우리 쪽”이라는 〈경향신문〉 1면 머리기사는 상당히 대조돼 보인다. 지금 정부가 G20까지 어떻게든 마무리 짓는다는 일정표를 짜놓고 국회 감시 또는 의견 수렴 없이 독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동차 같은 일부 부문에서는 미국 요구를 수용한 정황까지 드러났다고 한다.

## ③ 무기 국산화, 속도 조절을 할 모양이라고?

대통령 측근으로 통하는 장수만 방위사업청장이 어제 국정감사에서 K-2 전차 같은 잇따른 국내에서 개발한 무기에서 결함이 발생하자 “무리한 무기 국산화를 더는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군은 ‘자주국방’이라는 목표 아래 100% 국산 무기화를 추진해왔다. 〈동아일보〉 1면 보도.

## ④ 하지만 지금도 무기수입 중개업자만 배 부르는 게 현실이라고 하지?

정부가 해외에서 무기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무기 중개업자에게 지급된 중개수수료가 연간 175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한다. 계약금의 1~5%를 중개수수료로 받은 것이 이 정도라는 것. 앞으로 수입

물량을 더 늘리면 업자들 쾌재를 부르겠지? <국민일보> 1면 보도.

⑤ 영유아 예방접종 지원예산이 싹둑 잘린다고?

정부가 저 출산 대책의 하나로 B형 간염 예방 같은 영유아를 위한 접종 비용에 대한 지원을 기존 30%에서 90%로 늘리겠다고 했다. 그래서 144억에서 675억으로 증액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짰다. 그런데 증액분을 빼기로 했다. 자기들이 약속한 친 서민 저 출산 대책, 자기들이 없앤 셈이다. 발표만 하고 추진은 안 하는 NATO정책, No Action Talk Only인 셈이다. <한겨레> 1면 보도.

⑥ 물 부족 해결한다는 4대강사업 안 해도 물이 남아돈다고?

2025년 기준으로 생활·공업용수 공급능력이 연간 9억5천만<sup>m</sup>나 남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이는 정부가 물 부족에 대비한다며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하겠다는 13억<sup>m</sup>의 73%에 이르는 양이다. 강기정 의원이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주장했다. <한겨레> 2면 보도.

⑦ 이 소식 접하고 너무 충격을 받았다. 10대 여성 가수 지망생에게 성상납을 강요한 기획사 대표가 있다고?

연예기획사 H엔터테인먼트 대표 김 모 씨가 의류 사업가인 또 다른 김 모 씨를 찾아가 "월 500만 원씩 지원하면 연예인 지망생과 1주일에 2~3회씩 성관계를 갖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사업가 김 모 씨는 기획사 연습실을 찾아가 가수지망생 정 모, 박 모 씨를 지목했다. 기획사 대표는 두 사람에게 "성공하려면 스폰서를 만나야 한다"며 성 상납을 강요했다고.

⑧ <국민일보>가 조용기 목사 장남 조희준 씨를 고발했네.

조희준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정리가 필요하다"며 <국민일보>를 '아버지 재산'으로 규정한 바 있지? <국민일보> 노사는 조희준 씨가 횡령죄로 50억 벌금을 내야 하는데 지인으로부터 끈 것도 아니고 그냥 받아서 냈다고. 이 와중에 증여세 한 푼 안 내고 일부는 허위 차용증을 썼다고. 탈세수법이다. 고발 내용이 입증되면 조희준 씨는 또 감옥 갈지도 모른다.

⑨ 경찰이 타블로가 스탠퍼드 대학을 나온 게 맞다고 결론 내렸다고?

타블로가 미국 스탠퍼드대를 실제로 졸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스탠퍼드대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내린 결론이라고 하는데. 경찰 관계자는 또, 타블로의 학력 위조 의혹을 퍼뜨린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라는 인터넷 카페의 매니저격인 '왓비컴즈'라는 인물은 미국에 사는 50대 네티즌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2면 보도.

⑩ 하지만 그 카페에서는 여전히 타블로를 못 믿는 모양이더라.

인터넷신문 'TV리포트'가 그 이유를 분석했다. 이 카페 회원들이 타블로가 스탠퍼드에서 썼던 이름, '대니얼 리'라는 이름의 주인공을 동명이인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스탠퍼드 학적부에 남은 '대니얼 리'라는 이름의 주인공은 딴 사람이란 이야기이다. 이 사람은 이공계 쪽에서 공부한 사람인데, 영문학과를 나온 타블로가 절반 이상 이공계 과목을 배운 점이 의혹의 핵심이라고.

⑪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랐다는 비명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152개 생활필수품을 대상으로 작성되는 장바구니 물가는 지난달 기준으로 지난 해 같은 때에 비해 4.1% 상승해, 세계경제 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일보> 1면 보도.

⑫ 한편 고장 난 농업관측 시스템을 짚은 기사가 있지?

'배추 8월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강세 지속될 듯. 8월 중순 이후 하락세 전망' '배추 9월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작년보다 강세 전망. 그러나 8월보다는 약보합세 전망' '배추 10월 가격은 출하 지역이 넓은 준고랭지 배추와 충청·경기권의 가을배추가 출하되면서 9월보다 21% 하락할 전망.'

총리실 산하 농업관측센터의 전망이다. 모두 전달에 비해 값이 내린다고 했다. 하지만 배추 파동에서 보듯 현실은 정반대다. 배추 가격은 9월 추석 이후 3배까지 폭등했다. 농업관측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엔 '한국 농업의 나침반·신호등·안내자'라고 쓰여 있다고. <중앙일보> 5면 보도.

⑬ 강희락 경찰청장이 음향대포를 도입하자던 조현오 당시 서울청장 제안을 묵살했다고?

"이건 인체에 치명적이야. 이거 못 써!" 라고 했다고 한다. 민주당 장세환 의원의 주장이다. 그래서 도입이 무산됐다. 그러나 조현오 청장이 경찰청장이 되면서 다시 도입된 것이다.

한편 국정감사 자리에서 조현오 청장은 "음향대포는 소통을 위한 도구"라고 주장해 논란을 빚었다. 집회 현장에서 의사소통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에서는 "이렇게 가다간 경찰 진압봉을 스킨십 도구라고 하고 최루탄을 폭죽놀이, 물대포를 물 안마라고 하겠다"라는 비아냥거림이 나온다고.

⑭ 장애아들을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려고 자살한 아버지 이야기가 있네.

한쪽 뇌의 성장이 멈춰 선천성 장애를 갖게 된 초등학교 아들 둘 아버지, 추석 때 폭우로 공사판 일감이 떨어져 먹고살 길이 막막해지는 바람에 지난달 동사무소를 찾았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지정해 생활비 좀 지원해 달라"고 애걸했다. 동사무소 직원은 "자격이 안 된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러자 이 사람, 자살을 했다고 한다. 유서에는 "이제 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고.

⑮ 오늘이 한로지?

오늘 전국에 촉촉한 가을비 소식이다. 지금 제주와 전남해안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 늦은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에 비가 내리겠다. 그 밖의 남부와 충북, 충남 남부, 경기 동부에 5밀리미터 정도가 되겠고, 서울에도 밤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주말은 맑겠다.

[출처] [\[10월08일\]](#) | 작성자 [김용민](#)

## 대한민국에 말을 걸다

### 목차

1. 신자유주의
2. FTA와 세계화
3. 파병과 세계평화
4. 북한과 미국
5. 교육 개혁
6. 지식인

#### 1.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란 자유, 민주, 평화라는 규칙을 세운 자들이 그 규칙을 위반하면서 발전하는 사회를 말한다. 남들이 그 규칙을 지키는 동안에...

#### 2. FTA와 세계화

FTA?자유무역? 그것은 세계화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로서의 단어 일수는 있으나 아무도 아직 자유무역 조차 상호간의 자유 무역이라고는 검증은 못했다. 단지 현재 검증된 것은 한쪽 일방만을 위한 독점 자유 무역이고, 그 독점 자유 무역은 한쪽 일방의 세계진출화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었다라는 사실을...

### 3. 파병과 세계평화

민주주의 사회는 힘이 지배하는 자유와 평화사회이다. 그래서 그 힘에 맞서는 상대에게 자유와 평화, 자비라는 단어로 힘을 가한다.

### 4. 북한과 미국

미국이 긴장을 고조시키면 북한도 그렇게 하며, 미국이 긴장을 완화하면 북한도 그에 따른다. 한국과 북한 관계 또한 마찬가지이다.

진실 왜곡의 중심은 정부와 정부의 입인 언론인 것이지, 실제론 진실은 일방이 약속을 어기니까 단지 상대방도 같이 어기는 것일 뿐이다.

## 5. 교육 개혁

교육의 목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결되어야 하며, 진정한 교육은 교육 기관이 무엇을 주입식으로 가르치냐 (cover)가 중요한게 아닌 학생이 무엇을 스스로 창조적으로 알아냈느냐 (discover) 가 중요하다. 학생들에게 기존 지식을 암기, 복종시키는 것 보다 새로운 지식에 도전할수 있는 용기와 격려를 심어주는게 진정한 교육자이며, 진정한 교육 기관은 학생들에게 이런 교육 기회 줄뿐 아니라, 학생들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수 있도록 하는 책임 또한 있는 것이다.

## 6. 지식인

현대는 지식, 지식과 특권 또는 지식과 재력을 가지며 사회의 문제에 개입이 가능한 사람을 향해서 '지식인'이라고 부르며, 그 '지식인'의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책임이 수반이 된다는 것이다. 만약 '지식인'의 특권, 재력이 지나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수반하지 않으면 '지식인'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들은 단지 '지식인이라는 단어로 포장한 자'일 뿐이다. 그리고 그 '지식인'이라는 단어로 포장한 자들은 그들에게 맞서는 '지식인'을 힘으로 가하려는 '신자유주의자' 일 뿐이다.

(영상 출처:www.youtube.com)

아브람 노암 촘스키 Avram Noam Chomsky

1928년 12월 7일,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에서 유대계 러시아인 이민 2세로 태어나(아버지 윌리엄 촘스키는 저명한 히브리어 학자다) 오크 레인 컨트리 데이 초등학교(존 듀이의 교육 이념을 따르는 실험적이고 진보적인 이 학교에서 촘스키는 창조적인 사고를 키웠다)와 필라델피아 센트럴 고등학교(대학 진학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경쟁적인 이 학교에서 촘스키는 불행했으며, 의욕을 상실했다)를 졸업하고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 진학했다.

그는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언어학·수학·철학을 공부했으며, 하버드 대학교 특별연구회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박사학위 논문의 기초 연구를 수행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 시절 언어학 교수 켈리그 해리스의 영향으로 언어학을 공부하게 된 촘스키는 생성문법 이론으로 명성을 얻게 되었는데, 그의 저술들은 1960년대 이후 학계의 폭넓은 지지를 받기 시작했으며, 그는 왕성한 저술 활동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한 강의 활동을 수행했다.

1956년(29세) MIT 대학 부교수, 1959년(32세) 정교수, 1964년(37세) 석좌교수가 되었으며, 1974년(47세)에는 ‘인스티튜트 프로페서’ (하나의 독립된 학문기관에 상응하는 존재)가 된 그는 지금까지 1천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70여 권의 저서를 집필했다.

어릴 때부터 정치에 깊은 관심을 가져온 그는 언어학도로만 머물지 않고 1960년대부터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기 시작했다.

특히 그는 1966년 『뉴욕 타임스』에 기고한 「지식인의 책무」를 통해 "지식인은 정부의 거짓말을 세상에 알려야 하며, 정부의 명분과 동기 이면에 감추어진 의도를 파악하고 비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기고문은 그를 “행동하는 지식인”으로 각인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자칭 “자유주의적 사회주의자”로서, 다국적 거대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촘스키는 올해(2005년)로 77세지만 진실을 향한 지적 성찰은 나이를 먹을 줄 모른다. 촘스키는, 지배권력의 선전에 세뇌되어 왜곡된 진실을 보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적인 자기 방어법을 제공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안목을 제시한다.

타락과 탐욕으로 범벅된 세계 지배권력의 심장을 정면으로 겨누는 촘스키의 투쟁은 종종 외로워 보이기도 하지만 ‘진실을 도둑맞고 사는 약자’들의 열렬하고도 광범위한 지지를 획득해가고 있다.

출처 : 네이버 '미셸'님의 블로그, <http://cshqueen2002.blog.me/50093035858>

## 매트릭스와 가상현실

I.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모두 가짜라면?

누군가에 의해 조종을 당하면서 우리 안에서 사육 되고 있다면?

물질에 유혹 되어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면?

말도 안되는 소리 !

미친 소리!

과연 그럴까?

자신이 꿈에서 깨어나기 전에는 절대 자기가 꿈을 꾸었다는 사실을 모르듯이

노예로 사육되고 있는지 자유인 인지는 지금의 현실 밖으로 나가서 관찰 해야 한다

우물 안 개구리가 우물 밖으로 나오기 전에는 밖의 세상을 이해 할 리가 없다

현실의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 깨달음이요

갇힌 우리 안에서 튀어 나오는 것이 깨달음이다

깨어나자

낯시 바늘에 꿰인 물질(돈,땅,아파트,권력,음식,일)의 유혹을 좇아 다니는 어리석은 짓 그만하고 깨어나자

우리를 주위에는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여러가지 많다

종교,책,철학자,스승,,,,영화

---

## 영화 매트릭스

영화 매트릭스를 통하여 가짜 세상에서 진정한 세상을 찾아가는 길을 보여준다

매트릭스라는 뜻은 여러가지로 해석 될 수 있다

태두리,자궁,수의 행렬,집합,특정공간,,등

영화 매트릭스에서는 "갇힌 태두리 안"으로 해석한다

영화 감독 워소스키 형제가 무엇을 표현하기 위하여,어떠한 메시지를 던져주기 위하여 이 영화를 만들었는지는 상세하게 알 길은 없으나

영화 평론가,학자,관객들은 여러가지의 심오한 메시지를 던지는 영화라고 한다

그 중 가장 쉽게 접할 수있는 것이 예수를 중심으로 쓰여있는 성경의 신약 부분을 표현한 것이다-구원의 역사

주인공 네오가 구원자 예수로 표현 되었으며, 모피어스는 동 시대에 태어나 예수에게 세례를 준 세례 요한으로 표현 되었고,트리니티는 예수를 끝까지 사모한 마리아,아키텍트는 창조자,오라클은 예언자,사이퍼는 예수를 팔아 넘긴 가룟유다,,등 여러 형태로 표현 되어 죄악 속에서 허덕이는 인류를 구원하는 이야기를 액션으로 표현하면서 암시를 준다

그러나 완전히 성경의 구원의 메시지를 표현한 것은 아니고 대화 속에서 영상 속에서 물어 나올 정도이다

그 외에 아리켄타라는 학자는 "너 자신을 알라" 라고 외치며 독배를 마신 소크라테스의 생애를 표현하였다고도 하고

평론가 제럴드 에리온은 철학자 데카르트의 사상을 표현 것이라고도 하였다

석가의 가르침 경전의 전체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영화로 보기에다 손색이 없다



영화를 보고도 이해를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영화 1,2,3편을 통틀어 전체적인 줄거리를 이해하기 쉽게 나열 하면  
"매트릭스 밖의 세상으로 넘나드는 네오, 그를 돕는 모피어스, 트리니티 그리고 그들을 제거 하기 위해 주야장창 쫓아다니는 스미스 요원  
예언자 혹은 할머니, 창조자 아키텍트,,등이 주요 등장인물 들이다  
창조자 아키텍트(윈수염 할아버지)는 자기가 통제 할수 있는 세상을 만든다 이것이 매트릭스 공간이다  
물질(기계,컴퓨터)에만 의존하다가 결국 기계에 의해 지배 당하여 프로그래밍 되어 인간은 살아간다  
일부 의식있는 인간은 매트릭스 세상에 저항하며 밀려나 지하의 중심부에 자기들만의 시온성을 건설하여 살아간다  
기계대왕(창조자) 아키텍트는 끊임없이 시온성을 공격한다  
시온성에서는 전함 느부갓네살호를 파견하여 전쟁을 끝내줄 구원자 "그"를 찾아나선다  
선장 모피어스를 비롯하여 여전사 트리니티가 네오를 찾는 장면으로 영화는 시작된다  
대기 오염에 의해 파괴된 태양  
태양에서의 에너지를 얻을 수 없게 되자 인간들을 인큐베이트에 배양하여 기계,프로그램 등의 영양분으로 삼는다  
배양된 인간의 수명이 다하면 기계의 분쇄기에 분쇄되어 다시 인간으로 만들어져 일하는 노예로 만들어 지는 일이 반복된다  
인간은 지능과 작업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기계에게는 최고의 영양분이다 인간들에게 적절한 희노애락이 주어지면서 키워지고 있다  
이러한 통제된 공간에서 낮에는 컴퓨터 회사의 직원으로 밤에는 천재 해커로 프로그램을 팔아 살아가는 주인공 엔드슨 이다  
매트릭스 공간 안에서 스미스 요원이 부를 때는 엔드슨이고  
천재 해커로 활동하면서 사용하는 그의 아이디가 네오(neo) 이기에 우연히 매트릭스 밖의 전사들과 접촉되어 불리어 지는 이름이네 오이다  
매트릭스 밖에서는 항시로 전함(느부갓네살)을 타고 다니면서 매트릭스 안에 갇혀 사는 인간을 구출 할려고 시도 한다  
컴퓨터로 접속하여 매트릭스의 세상 안으로 침투하는 것이다  
항상 의문이 많고 새로운 세상에 도전의식이 강한 네오  
전사 모피어스는 네오가 인류를 구원할 그림을 확신한다  
세상 밖의 느부갓네살 전함에서 모피어스와 트리니티가 접속하여 매트릭스로 침입하여 네오를 구출을 시도 한다  
가상현실과의 전함사이의 연결과 탈출은 전화로만 가능하다  
탈출을 시도하다 스미스 요원에게 붙잡힌 네오는 몸속에 추적장치가 삽입되어 풀려난다  
시온의 전사들에 의해 추적장치가 제거되어 가상의 세상을 탈출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허름한 방에서 모피어스와 대면을 갖는 다  
이 장면이 영화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심오한 대화들이 오고가는 것이다  
결국 네오는 매트릭스를 벗어나기로 하고 빨간약을 선택한다  
빠져나오면서 경험한 자신의 배양되어지는 모습에 전율을 느낀다  
가상의 공간에서 빠져 나온 네오는 인류를 구원할 전사로 만들어 지기 위하여 프로그램 속에서 훈련을 받게 되고  
훈련을 마친 네오는 예언자 오라클을 만나기 위해 시온의 전사들과 함께 매트릭스 속으로 침투한다  
한편 옛날 매트릭스속의 생활을 그리워 하며 힘든 전투와 하찮은 식사 죽에 실증을 느낀 사이퍼는 매트릭스로 되돌아가는 조건으로 전함 대원들을 팔아 넘기기 위해 스미스 요원과 스테이크 식사를 하며 첩보를 준다  
오라클을 만나기 위해 떠난 대원들은 사이퍼의 배신으로 죽임을 당하고 모피어스는 스미스 요원에게 잡히는 신세가 되고  
네오는 모피어스를 구출하기 위해 총알을 피하는 치열한 전투를 벌인다  
적들은 전함을 점점 시온성을 공격해 오고  
모피어스를 구출하고 혼자 남은 네오는 스미스 요원의 총탄에 쓰러지지만 트리니티 사랑의 키스로 다시 부활 하면서 1편은 막을 내

린다

1편만 이해하면 2,3편은 자연스럽게 이해가된다

이 영화의 가장 난해한 부분이 도저히 이해 할수 없는 대화 내용들이 많기 때문이다

대화의 대부분이 철학적,종교적 의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만들어져 있기에 이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영화다

이 영화가 시사하는 깨달음의 내용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스미스요원이 "인간은 과잉 물질을 쓰고 또 모자라면 자리를 이동하면서 소비를 하므로 몹쓸 바이러스이다"라고 표현한다

물질만을 추구하는 인간은 결국 물질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어 물질(기계,프로그램)의 지배를 받게되며

무분별한 과소비를 환경은 오염되고 결국 대기권이 막혀 태양의 빛을 잃어버린다

일부 지각있는 인간(의식이 깨어 있는 인간)은 매트릭스 공간을 피하여 지하의 핵심층에 숨어 들어가 그들만의 세계 시온성을 건설하여 생활 한다

## II.

물질 만능은 인간의 눈을 멀게하고 참 자유를 잃어버리며 생각없이 안주하는 돼지로 전락한다

[출처] 매트릭스와 가상현실(1) | 작성자 무침아

도덕 철학자 존 스튜어트는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참인간이 되는게 나으며 만족한 바보가 되느니 불만족스러운 소크라테스가 되는 게 낫다"라고 까지 한다

구도자들의 수행에서는 끊임없이 화두를 놓고 정진한다

이 뭐꼬? 라는 의문을 가지고 해답을 찾아 나가는 것이다

우리사회가 그나마 돌아가고 있는것은 안주 해 버린 제도권(법그릇보장,정년보장,) 내의 인간들이 아니라 제도권 밖에서 끊임없이 외치며 환경보호를 주장하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나라가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변화를 모르는 보수가 아니라 힘이 들어도 깨어있는 진보가 이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것이다

즉 물질이 움직이게 하는것이 아니라 정신이 움직이게 하는것이다

배신자 사이퍼는 전함속에서는 항상 죽 같은 식사에 불만을 느낀다

모피어스일당을 팔아넘기기 위해 매트릭스 속에서의 스미스 요원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자신의 선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나는 이 스테이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것을 알아 이걸 내 입속에 집어 넣으면 매트릭스가 나의 뇌에다 이게 맛있다고 인식시킨다는 것을 안다

9년이 지나고 나서 내가 뭘 깨달았는지 알아? 무지가 곧 행복이라는 거야"

이 대화 내용도 아주 중요하다

사이퍼는 깨달음이고 뭐고 아예 아무것도 몰랐을 때가 행복했다는 것이다

사이퍼의 선택을 비웃으면서도 우리는 그에게 공감을 한다

어느 누가 평생 주어지는 스테이크 밥그릇을 차 버리겠는가?

매 끼니마다 구역질나는 꿀꿀이죽 으로 연명을 해야하고 매일 골치 아픈 전투를 해야 하고 ,,,

사이퍼는 이 생활에 이골이 났다

여기서 당신도 선택을 해야 한다

자유와 영원,진정한 도전의 기회를 버리고 순간적인 만족과 안주를 선택 하여 매트릭스라는 공간에서 살아 갈 것인가?

우리의 대부분은 후자를 택하고 살아간다

맛있는 스테이크는 물질의 풍요를 암시하고 전함의 전사들이 먹는 하참은 죽 한 사발

자유와 영혼의 세계 영원의 세계로 가는길에는 먹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그 세계는 물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신으로 갈수 있다는 것이다

한 덩어리의 스테이크로 인간을 유혹한다

이 세상은 물질을 미끼로 인간을 눈이 멀게 하고 가두어 놓고 노예 처럼 일을 하게 만든다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한 덩어리의 스테이크를 얻기 위해?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

그들이 어디에 있는가 존재하지 않는다 잠시의 환상 일 뿐이다 프로그래밍 되어 영상 화면에 잠시 비쳐진 게임 캐릭터 일 뿐이다

예언자 오라클을 만나기 위해 잠시 대기 하고 있던 네오에게 꼬마 동자승이 손가락을 구부리며 하는 말

"손가락이 구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라고 그리고 손가락은 존재 하지 않는다"

모든 세상은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 낸 환상 일 뿐이다 생각하는 마음조차도 존재 하지 않는다

무심이다

깨달음으로 가자

맛있는 음식을 거부하고 단식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알 것이다 단식을 하면 할수록 의식은 점점 또렷해지고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꿰면 잡념이 없어지고 사람이 조용하고 온순해진다

몸의 뇌파가 낮은 세타파,델타파로 변하여 먼 곳 까지 송수신이 가능하다

예수님도 멀리 있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40일간의 단식 기도로 울부짖으며 소통한다

붓다 역시 40일간의 단식으로 깨달음을 얻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즉 물질을 멀리하면 영혼은 더욱 가까와 지고

물질에 집착하면 영적인 생활은 더욱 힘들어지는 것이다

---

영화 장면마다 등장인물들의 목 뒤에 배양호스 흔적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

네오가 흔적이 있을 때는 매트릭스 밖에 있는 것이고 흔적이 없을 때는 매트릭스 속으로 침투 한것이다

그리고 안이나 밖이나 흔적이 없는 사람은 처음 부터 시온성으로 쫓겨 난 원주민이다 즉 구식이라고 표현함

네오가 매트릭스 세계를 탈출하여 전함으로 옮겨와 깨어나면서 묻는다 "내눈이 왜 아프지?"

모피어스는 답한다 "당신의 눈은 진실을 단 한번도 본적이 없었기까 눈이 아플 수 밖에"

성경적으로 지금의 세상은 분명히 잘못 만들어진 세상이다

애초부터 탐욕의 최악의 유혹에 빠져 금단의 사과를 선택한 이브는 눈이 밝아져 부끄러움도 알게 되고 고통도 알게 된다

아담과 하와가 먹은 사과로 인하여 눈이 밝아 졌다고 하지만 물질의 유혹의 눈이 더 밝아진 것이지

영혼의 세계 즉 하나님의 세계와는 눈이 더 멀어진다

우리는 눈을 뜨고는 진리를 찾을 수 없다 온통 물질로 뒤덮혀 있기에

눈을 감고 명상하라 진리가 보일것이다

눈을 떠면 우리주위에는 모두가 매트릭스 세상이다

모피어스가 네오의 빨간약 선택의 순간에 하는 말이다 "매트릭스 세계는 어디에도 다 있다 창문을 열면 창밖에도 있고 TV속에도 있고 출근시

에도 있고 심지어 교회에도 매트릭스 세상이다"

진실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는 세계가 매트릭스 세계다

우리모두는 포장된 것을 보면 살아간다 진정한 진실은 숨겨두고 포장하면서 살아간다

멋진 저택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좋은차로 포장하고,얼굴을 화장으로 가리고,성형하고,지식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지금 쓰고 있는 이 블로그 글도 포장지에 불과하다

남에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지식들,글들,,말들

사이퍼가 말했듯이 아예 아무것도 몰랐을 때가 행복 했는지 모른다

III.

영화 매트릭스가 아직도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이유가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철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남여노소, 동양서양 다양한 성별이 균형 있게 배치되어 영화를 이끌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인류학자 앤터니 웰리스는 이 세상의 종교가 약 10만개 정도가 존재 한다고 주장한다  
 이 영화는 종교의 다원주의를 표방한다  
 종교가 10만개 아니라 천만개가 있더라도 종교가 생기고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하나이다  
 지금의 현실을 부정 하는 데에서 부터 출발한다  
 지금 현실을 만족한다면야 굳이 종교가 생길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매트릭스 속의 환영세계와 네브갓네살호의 실제 세계와의 대조는 이 영화에서 환상과 실제, 구속과 자유를 극명하게 표현한다  
 종교와 철학자들이 부정하는 가상 현실의 매트릭스 세계에도 강한 긍정의 씨앗이 남아 있으며  
 그들이 가고자 하는 실제 세계인 시온성도 강한 부정의 씨앗은 존재한다  
 이 영화에서의 모피어스나 오라클은 네오에게 옳고 그름의 판단은 항상 자유롭게 하도록한다 선택도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모피어스가 네오에게 두가지 약을 선택하라고 하면서도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매트릭스 밖의 시온성 세계가 진정한 세계라고 말하지 못한다  
 단지 모피어스의 입장에서는 매트릭스속의 세계는 구원의 대상이 될 뿐이다 오로지 자신의 입장에서 본 것이다  
 그러나 배신자 사이퍼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모피어스를 제거하기 위해 의자의 플러그를 뽑으면서 사이퍼는 이렇게 말한다  
 "만약 네가 진실을 말해 주었더라면 우리는 너에게 그 빌어먹을 빨간약을 당장 건어 치우라고 말 했을 거야  
 자유? 넌 이걸 자유라고 부르냐? 나는 그 놈이 시키는 일만 했잖아! 만약 내가 이것과 매트릭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매트릭  
 스를 선택하겠어"  
 그때 트리니티가 외친다 "뽑지마 매트릭스는 진짜가 아냐!"  
 사이퍼 "나는 그렇게 생각 안해 ! 매트릭스가 이 세계 보다 더 진실할 수도 있단 말이야"

인간은 살아 움직이고 있는 한 끊임없이 선택을 요구 받는다  
 밖과 안  
 진아와 자아  
 전체의식과 개체의식  
 통일과 분리  
 음과 양  
 불교와 기독교  
 매트릭스의 세상이 안이라면 그속은 자신만을 의식하는 자아만 자라나고 전체를 아우리지 않는 개체의식 될 것이고 그것은 분리를 의미하며  
 포용하지 않는 양적인 존재이면서  
 순종과 복종을 그리고 믿음을 강조하는 풍요의 기독교 색체가 강하며  
 그 반면 매트릭스 밖의 세상은 자신만을 의식하지 않는 아(我)상 진아의 세상이며 개별활동을 인정하지 않는 전체의식이며  
 우리는 하나이라며 통일을 강조하는 세상이며 툭툭 튀는 자식을 항상 품으로 감싸안으시는 어머니 품속 같은 음적인 존재의 세상이다  
 자유와 비움의 불교적인 색체가 강하다  
 전체만을 강조하고 개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의미가 없다 아무 의미가 되지 않는 것이다  
 깨달음이란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 선택하는 종교의 대상이 아니다  
 이리 같까? 저리 같까? 차라리 돌아갈까? 의 철학적 문제를 일으켜 해답을 요구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이러한 것이구나 하고 아는 것이 깨달음이다  
 소크라테스의 외침 "너 자신을 알라" 라는 의미는 "너 스스로 깨달아라" 라는 뜻이다 알아 라는 뜻이다  
 불교에서의 3대 죄악으로 꼽는 것이 무지와 탐욕 그리고 한가지(생각 안남)  
 무소유를 표방하는 불교에서도 무지함을 죄악으로 꼽는다  
 그 만큼 깨달음이 중요하다  
 깨달음이 전체를 의미 한다면 도전은 개체를 의미한다  
 깨달음 후에 도전을 한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주인공 네오는 안과 밖을 넘나들면서 창조자 아키텍트가 프로그래밍 해서 만들어 놓은 예언자 오라클을 만난다

예언자 오라클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꽃병 넘어지는 사건을 미리 말해 버린다  
 매트릭스 내에서는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 즉 한시간 후에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끔 프로그램화 되어있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세상은 모든 종교와 철학자들이 부정하는 가상의 세계이다 즉 매트릭스의 세상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도 예정된 시간,준비된 등장인물,프로그램화 된 사건으로 귀결된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문제점이 없는 완벽한 세상이다 애시초 부터 아무 문제가 없었던 인간이고 인생이다  
 연출되는 무대의 인생  
 당신은 언제 태어나고 당신은 40년6개월 3일 후에 죽어라  
 당신은 거지로 살아가고 당신은 빵집사장으로 분장하라  
 당신은 펜을 잡으면서 사무실에서 일 할 것이며 당신은 막 노동을 하여라  
 당신은 바람끼 있는 남편을 만나서 살다가 5년후에 이혼하라  
 이러한 것들은 자신의 의지로 변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체도 프로그램화 되어있다 완벽한 짝퉁이다  
 모두가 가짜이고  
 인생은 연극이고  
 한낱의 꿈속같은 인생인데  
 애 먹이는 자식이 있다한들 무엇이 걱정인가  
 돈이 없다 한들 무엇이 걱정인가  
 내일 죽는다고 한들 무엇이 두려운가  
 구걸하는 거지를 욕할 것인가  
 유리창문 너머 비치는 창녀들을 욕할 것인가  
 조폭  
 살인자  
 결코 없어지지 않는 존재들이다  
 누군가는 떠 말아야 할 배역들이다  
 용서하고 사랑하자 예수님은 일곱번을 일흔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셨다  
 예수님은 이 세상은 연출된 무대의 세상 인 것을 이미 깨달아 있기에 그러한 말씀이 나오시는 것이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의 힘은 위대하다 주인공 네오가 죽자 트리니티는 죽은 네오에게 사랑의 키스로 다시 부활 시킨다  
 죽은 영혼도 다시 부활 시키는 것이 사랑의 힘이다  
 용서와 사랑  
 각자의 말은 개체의식으로 한바탕 연극이 끝나고 무대에서 내려오면 우리는 하나가 된다 전체의식으로 돌아간다  
 둘러앉아 한잔의 대포잔을 기울이며 그려져 있던 거지의 분장을 서로 지워주며 편안한 표정으로 웃는다

---

매트릭스의 마지막 장면 사운드는 "깨어나라 깨어나라" 라고 외치면서 클로징된다

깨어나자

깨달음으로 가자

깨달음 후의 도전은 아름답다

[출처] [영화 매트릭스와 가상현실\(3\)](#) | 작성자 [무심아](#)

영화 매트릭스를 불교적인 관점,그리고 철학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쓸 기회가 있으면 쓸게요

[출처] [영화 매트릭스와 가상현실\(3\)](#) | 작성자 [무심아](#)  
 [출처] [매트릭스와 가상현실](#) | 작성자 [무심아](#)

 PDF로 발행할 수 없는 형식입니다.

 PDF로 발행할 수 없는 형식입니다.

 PDF로 발행할 수 없는 형식입니다.

 PDF로 발행할 수 없는 형식입니다.

 PDF로 발행할 수 없는 형식입니다.



<http://www.bspcn.com/2010/08/01/the-best-high-school-valedictorian-speech/>

지난 6월 25일, 미국의 Coxsackie-Athens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수석 졸업생인 Erica Goldson양이 했던 연설 전문입니다.

예전에 선(仙)을 공부하는 수도자가 있었는데, 하루는 스승을 찾아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하면 도를 깨우치는 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스승은 곰곰이 생각한 후, “10년 정도?”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제가 빨리 깨우침을 얻기 위해 진짜 많이 노력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그러자 스승은 “그렇다면 20년 정도 걸리겠군”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제가 진짜, 진짜, 무진장 노력하면 어떨까요?” 스승은 이 질문에 대해 “30년” 이라고 묵묵히 대답했습니다. 실망한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할수록 오래 걸린다니요? 왜 그런 말씀을...” . 그러자 스승이 말했습니다: “하나의 목표를 세워놓고 정진하면, 하나의 길만 바라보며 걸어야 하기 때문이니라...” (목표에 연연할수록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을 고찰하지 못 하게 된다는 의미로)

저도 미국의 교육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면서 비슷한 딜레마에 부딪혔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시험이니, 석차니, 모두들 어떤 목표를 세워 놓고 학습에 임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진정한 배움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단지 목표 달성만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할 뿐이니까요.

아마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시험도 무사히 통과하고 졸업생 대표까지 맡게 되었으면 뭔가 배웠을 것 아니냐?” . 네, 뭔가 배우긴 했겠죠. 하지만 잠재력을 발휘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 지명, 역사적인 사건의 발생일자 같은 것들을 외우고, 시험이 끝나면 또 다음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머리 속에 입력된 지식을 지우고... 학교 역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은 “최대한 빨리 이 곳에서 벗어나자” 라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제 그 목표의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졸업하거든요. 게다가 수석이라는 영예까지 얻었으니, 즐거워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동기생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결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저 시스템이 요구하는 것들을 잘 해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의 세뇌 프로그램을 충실하게 이행했다는 공로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걸 자랑스러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제 가을이 오면 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제가 직장에 들어가서도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증서(대학 졸업장)를 따내기 위해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일꾼이기 이전에 하나의 인간, 사고하는 인간, 그리고 모험을 하고 싶은 인간입니다. 일꾼이라는 것은 반복적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시스템이 준비해 놓은 체제에서 노예처럼 일하는 사람 말입니다. 저는 이 노예들 중에서도 최고라는 사실을 인정받았습니다. 저는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일들을 아주 잘 해냈습니다. 수업시간에 경청하지 않고 노트에 그림 연습을 했던 동기생들은 나중에 위대한 화가가 될 지도 모르지만, 수업시간에 열심히 필기를 한 저는 어느 누구보다 시험을 잘 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방과 후 자신이 읽고 싶은 책들을 읽느라 바빴던 동기생들은 다음 날 숙제를 해오지 못해 혼났지만, 저는 한 번도 숙제를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작곡과 작사에 열중하는 동안 저는 학과 점수를 조금이라도 더 따기 위한 특별활동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까지도 없었는데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수석이 되기 위해 그리도 발버둥을 쳤을까? 네, 물론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긴 합니다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제가 고등교육을 마치고 나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영원히 헤매게 될 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설계해야 할 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관심분야도 없어요. 저는 학교에서 배운 모든 분야에서 남보다 앞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분야를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들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매달렸던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지금 두렵습니다.

교육학자인 John Taylor Gatto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업시간, 교과목, 시험 같은 것들을 보다 덜 엄격하게 관리하고, 학생들에게 뛰어난 스승들을 붙여 주고, 학생들에게 자율을 허용하고 때로는 모험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치면 젊음의 특권이라 할 수 있는 호기심, 모험심, 활력을 얼마든지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다”. 시스템은 우리 학생들이 모두 똑같아지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표준화된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고 있으며, 학교가 정한 틀에서 벗어나 색다른 시각을 가지는 학생들은 실패한 자들로 평가되고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H.L. Mencken은 1924년 4월, The American Mercury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교육의 목적은 젊은이들에게 지식을 제공하고 지적 잠재력을 일깨워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공교육의 진정한 목적은... 가급적 많은 학생들을 안전한 수준으로 획일화시키고, 모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불만의 요소들을 제거하고, 개성을 없애는 것이다. 이게 바로 미국 공교육의 목적이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들 “비판적 사고” 를 해야 한다고들 강조하는데, 그렇다면 비판적이지 않은 사고도 존재한다는 겁니까? 사고라는 것은 정보를 처리하여 개인적인 의견을 형성한다는 뜻입니다.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걸 진정한 사고라 할 수 있습니까? 단지 남의 의견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행위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저도 이런 식으로 남의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면서 살아 왔습니다. 하지만 10학년 때 Donna Bryan 선생님을 만나면서부터 사고의 폭을 넓히고, 남의 말을 무조건 받아들이기 전에 스스로 질문해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Bryan 선생님을 알게 되지 못했더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저는 예전에 비해 많이 깨어났지만, 아직도 제 정신은 약하게 느껴집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교라는 곳이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달리, 얼마나 정신 나간 곳인지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다짐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간직하고 있는 개성을 억누르는 세상 속으로 몸을 던져야 합니다. 기업과 물질주의가 요구하는 비인간적인 난센스에 순응하거나, 아니면 변화를 요구하거나, 둘 중 하나의 길을 택해야 합니다. 나중에 자동화될 수도

있는 일, 불필요한 일, 열정도 없고 의미도 없는 노역과도 같은 일을 하도록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교육 시스템은 우리에게 열정을 불어넣을 수 없습니다. 돈이 동기부여가 되는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도 없습니다. 열정이 동기부여가 되어야 하지만, 우리를 격려하기 보다는 훈련시키려고만 하는 시스템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열정은 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주입 받은 내용들을 자동적으로 내뱉도록 훈련된 로봇이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특별합니다. 우리 모두 이보다는 더 나은 취급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암기보다는 혁신을, 쓸모 없는 일보다는 창의성을, 정체보다는 속고를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단지 졸업장을 받고, 취직을 하고, 업계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반복적인 소비를 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학교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다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합니다.

가장 슬픈 것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저처럼 현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기업과 정부로부터 권위에 순종하는 사회의 일꾼들이 되기 위한 세뇌교육을 충실하게 받고 있으며, 이 사실을 자각하지도 못합니다. 제가 살아온 지난 18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보다 나은 교육 시스템을 가진 나라로 도망가서 다시 배울 수도 없습니다. 제 유년 시절은 이미 막을 고쳤고,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저랑 똑같이 권력을 가진 자들의 손에 놀아나 잠재력을 억압당하는 일을 당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철학자이고, 꿈꾸는 자이고, 탐험가고, 예술가고, 작가이고, 엔지니어입니다. 우리 모두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꿈 실현을 위해 돕기보다는 억압하는 교육 시스템만 없다면 말이지요.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뿌리가 땅속에 깊게 박혀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교육 시스템의 요구에 순응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는 후배들도 절망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하고, 자신의 관점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세요. 자신의 지적 능력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방향으로 쓰이기보다는, 지적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을 요구하세요.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걸 공부해야 해” 라는 변명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얘기하세요. 교육이라는 것은 잘 활용하면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적을 올리기 보다는 배움을 위한 목적으로 공부를 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비판한 시스템 안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은 제 이야기에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옥하려는 게 아니라 동기를 부여하려고 하는 말이니깐요. 여러분들은 이 무능한 시스템을 변화시키기 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학생들이 교실에서 지루해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교육자의 길을 택한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위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무엇을 가르치라고 지시하는 것과,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경우 벌을 받게 되는 현실에 대해 진저리를 치고 계시잖아요. 젊은이들이 장차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제 곧 시스템을 떠나시는 동기생들에게는, 지난 몇 년 간 교실 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잊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여러분의 후배들을 외면하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의 미래이며, 잘못된 전통을 고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정부패의 벽을 허물고 미국 내에 새로운 지식의 정원을 가꿔나갈 것입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교양과 지혜로 무장한 우리는 이 힘을 좋은 용도로만 쓸 것입니다. 우리는 표면적인 것만 보고 끝이끝대로 받아들이는 악습을 타파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질문하고, 진실을 요구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섰습니다. 저 혼자서 졸업생들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선 게 아닙니다. 제 주변 환경, 그리고 지금 저를 바라보고 있는 모든 동기생들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없었더라면 제가 지금 이 위치에서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덕택에 지금의 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경쟁했지만, 여러분은 제 피와 살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졸업생 대표입니다.

이제 이 학교, 학교를 운영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후배들에게 작별을 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작별이 아니고 “다음에 또 보자” 는 인사입니다. 우리가 함께, 진정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만나야 하니까요. 하지만 일단은, 우리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고 인증하는 종이 쫄거리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http://blog.naver.com/kryzialove/150091614704>      작성자 : 윤민님

도시... 묘하게 사람을 잡아끄는 매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아름다운 것에 가시가 있다는 말... 새겨볼 필요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가시를 갖고 있는 장미도 가위로 다스리면 나에게서는 향기와 매력만을 내어주게 된다.

문제는... 사람이 향기와 아름다움, 그리고 기술(가위)의 편리함을 맛 보게 되면...

다음의 것들을 더 원하고 추구하려 함에 있다.

더 다양한 아름다움과... 가위외에 화병을, 화병외에 정원을, 정원 외에 하우스를, 하우스 이외에 별도 수익을,

수익 후에는 또 규모를 추구하게 된다.

도시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연스레, 무상으로 상징될 '다양한 욕구'에 집중하게 하며, 이를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주고, 또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독려한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 온 인생을 바치게 만든다. 사람이 그 자신도 모르도록...

최근의 도시는 이러한 성향이 유지되기 위한 몇 가지 기가 막힌 도구를 갖추고 있는데...

특히 TV의 위상은 독보적이라 하겠다.

원거리(Tele)까지 공급되는 온갖 영상(Vision)들은 인생들에게 끊임 없이, 하나님이 아닌, 새로운 목표(유물론적인)를 보여주며,

그 구성원으로 하여금 주변을 돌아볼 필요가 없게 만든다. 심지어, 그 자신을 돌아 볼 째마저도 허락치 않는다.

인간을 마르게 한다. 꺾인 장미처럼...

물론... '왜 주변을 안돌아 본다고 하는가?'라고 반문할 수 있다. 예전에 어떤 회사가 그리도 힘차게 외치던

'Connecting People'이 더욱 강하게 구현되어 가는 이 사회에서...

자문해 보시라고 말하고 싶다. 그 연결들이 진정 누구를 위한 커넥팅인지...

더 알아 보시라고 말하고 싶다. 그 연결들이 궁극적으로 어디에 혜택을 안기게 되는지...

그리고 다시 묻고 싶다. 지금 그 대답은 진정 깊이 생각하고 하는 답인지...

고대의 니므롯은 거대한 바벨탑을 통해서 그 탑을 볼 수 있는 권역으로 도시를 특정 짓고, 집단지성을 꾸준하게 확보할 수 있었다.(주1.)

그리고, 니므롯은 도시인들을 자신의 의지대로 통제할 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주2.)

화려한 아름다움과 편리함을 사모하던 백성들... 그리고, 이들에게 '신으로서' 만족을 안겨줄 줄 알았던 군주가 이루는 거대 사회.

이 말씀을 거스른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 43:21'

이 말씀을 외면한다. '여호와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민 6:25'

사람의 창조된 목적이 그러하기에 참된 사람다움은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림'에 있다하겠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참된 양분은 하나님께로 부터 온다. 바로 神의 참 사랑이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당장의 나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물질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예수님으로 해서 그 사랑을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도시는 항상 이를 지워내려 하고... 그 구성원 안에서는 사랑이 마르고, 사람 자체도 마른다. 양분을 공급받지 못 하는 꺾인 장미처럼...

이렇게 참된 사람다움이 말라 붙은 거대 사회... 그 안에서 인간은 양분된다. Master & Slaves로...

우리 역시 한 나라의 국민으로 일컬어지지만 거대한 시스템의 노예들일 수 있다. 우리의 면면을 돌아보자.

패션의 노예, 멋진 집장만과 인테리어의 노예, 최신 문화와 기술의 노예, 더 많은 소득의 노예...

모두 궁극적으로는 권위와 명예의 노예...

이 글을 쓰고 있는 필자 자신 부터도 이러한 '노예'라는 호칭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 함을 고백한다.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지금 도시에서 누릴 수 있는 문명과 음식 생활은 200년전의 어떤 왕이 누리던 것 보다 훌륭하기 까지 하다는 것을.

마리 앙뜨와네뜨가 지내던 마르세이유에서 남자들이 신던 신발 하이힐은 궁에 화장실이 없어서 용변이 도처에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철저히 쇄국 정책을 일관하던 흥선 대원군은 우리가 동네에서 즐길 수 있는 베트남 쌀국수나 일식 돈까스, 쉬림프 피자 맛을 알았겠나?

조선조에는 우유가 왕들이 특별하게만 먹던 음료였다고 한다. 하물며, 인터넷, 스마트폰, 엘리베이터, 각종 사회 문화 편의 시설 등이야...

TV에서 다양한 수라상 음식들이 소개되고 있고, 도시의 여염집에서는 그런 음식들을 이제는 얼마든지 즐길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를 그냥 감사하게만 받아 들이기에는 꺼림칙한 느낌이 있다. 지워지지 않는다.

세계가 즐기는 커피의 진실, 공산품 한 개에 소요되는 석탄 연료와 물의 량, 세계 물 부족 현황, 늘어가는 자연재해

오늘 하루에 접한 대규모 재해만, 파키스탄 홍수로 이재민 350만, 중국, 북한 홍수, 러시아 500여 마을 산불, 미국 가뭄 등이 있지만,

좋다. 자연 재해는 접어 보자. 지금 세계의 도시들은 '지구상에 함께 하고 있는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나?'

도시 구성원은 자신도 '노예'라는 호칭으로 부터 자유롭지 않으면서도, 또 '똑같이 노예를 부리고 있다.'는 말에 부정할 수 있겠는가?

몇 일 전 포브스지에는 세계에서 손 꼽히는 부자들 40인에 대한 뉴스가 떴다.

실로 거부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절반에 대한 기부서약이 빌 워씨와 워렌 워씨에 의해서 진행되고 또 확장된다는 뉴스였다. 하지만 이들이 기부하는 후원금은 소수의 엘리트가 그 지배체제를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 설립한 연구 기관 등에 주로 쓰이게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다. 하지만, 희망은 있다고 본다.

어떤 형편에 처해서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자신의 힘과 시간을 쓰고 있는 이들이 있을 것이기에...

멕시코에 놀러온 미국의 한 직장인이 배낭시를 나가서 멕시코 현지인 선장에게 도시 생활의 치열함을 알려주었다. 멕시코인 선장은 물었다.

'왜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십니까?' / '돈을 많이 벌려구요.'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벌려고 하십니까?' / '멋지게 은퇴하려고 하죠.'

'왜 그렇게 멋진 은퇴가 중요하십니까?' / '그래야 이런 멋진 곳에서 이렇게 낚시나 즐기는 훌륭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직장인은 어려서 부터 낚시를 즐기며 일생을 보내고 있는 그 멕시코 선장이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도시 생활의 가장 큰 잇점 중의 하나가 자녀 교육일진대, 필자가 교육의 중요성을 무시함이 아니다.

참神에게서만 공급 되는 참사랑의 양분으로만 이루어지는 참다운 인간성이 말살되는 도시...

효율성과 효용성으로 전도된 인간가치를 뿌리고 심고 있는 도시...

그 도시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고저 함이다.

또, 그 도시가 각 인생에게 오랫동안 심고 돌보아 온 전도된 가치의 씨앗에 대한 열매를 거두려 하고 있음을 고하려 함이다.

틀렸다고 치부되던 칼 맑스의 '자본론'에 예견된 '내재된 불안정성의 심화로 인한 자본주의 체제의 붕괴'의 날이 꽤나 가까이 온 듯 싶다.

맑스가 언급한 불안정성은 자본가의 끝도 없는 욕심에 기인한 것인데, 실재로 그 불안정성이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자본주의 붕괴 이후, 세상이 계속된다면 새로운 사회가 이뤄지게 될 터인데...

맑스는 거듭된 착취 끝에 어마어마한 숫자로 늘어난 비참한 노동자 집단이 한 줌의 거부들로 구성된 자본가 집단에 대하여 봉기하고 일어

나 변혁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었다.

그런데... 그의 예견에도 한계가 있음을 본다. 자본가에 의해 지급되는 재화에 응해 용역을 제공하는 어중뎠 집단.

그리고 이들에게 오랜 시간 노출로 주입된 Propaganda를 통해 신념으로까지 자리 잡힌 거짓된 가치와 두려움,

무엇보다도 이들에 의해서 행사되는 강력한 행정력... 이런 것들은 맑스도 미처 못 보았던 모습들일 듯 싶다.

그리고... 자신이 이 땅, 대한민국의 노동자이시라면...

자신이 블루 칼라이건 화이트 칼라이건을 떠나서... 나는 이러한 어정쩡한 집단에 속하지 않는다고 누가 자유롭게 대답할 수 있겠는가?

현재의 불안정성이 가중되어 자본 주의가 결국 붕괴되고 그 후로 세상이 이어진다고 한다면... 맑스의 예견대로 봉기는 비참한 노동자 집단에 의해서 일어나긴 하겠으나, 착취하던 자가 응징을 당하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한 줌의 그들이 통제하기 좋게 그 숫자를 알맞게 조절한 후 진행

되는 사회주의 세상일 확률이 더 높아 보인다. 조지 오웰이 1947년에 탈고한 소설 1984의 모습 되겠다. (Georgia Guidestone 검색도 참조)

심지어는 봉기의 시점마저 한 줌의 그들이 결정할 수 있는데, 필자가 미루어 짐작키로는 지구의 인구의 수가 줄어도 노동력이 염려되지 않을 유압식 제어 로봇(인간 동작 증강) 기술의 구현과 생산이 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이후의 세상이 어떤 모양이 되건 간에, 아래의 말씀이 이루어 질 것을 소원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 16:9'

(주1.)本人은 집단지성'에 대해서, '스스로 효율성을 고도화하는 상층 노동력의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싶다. 기록과 공유라는 틀을 전제로 발기되는 집단지성의 위력은 켈인류가 지난 200년 동안 이론 과학 기술의 발전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다.

(주2.) 니므롯 자신은 사막에서 그들을 지켜주는 月神, 'Nana'의 화신으로 선포하고 아들들도 신격화(별)하여 백성들로 섬기게 하였다 한다.

참고 자료 : <http://blog.naver.com/estherkoo/130089071792>

아래 영상은 위의 분수가 위치한 건물의 개장식 장면이다.

우리 나라의 S 사에서 시공한 모두가 잘 아시는 '부르즈(버즈) 두바이', '부르즈'는 탑을 뜻한다고 한다.

정식 명칭은 '부르즈 칼리파'라 명명되었는데, '칼리프'는 이슬람권에서의 왕에게 부여되는 칭호가 되겠다.

필자는 니므롯 때와 다르게 느껴지지도 않고, 우리 나라의 원불교 집안 기업에서 이룬 이 큰 업적이 자랑스럽게 생각되지도 않는데...

읽으시는 분들은 어떠하신지...

작은 희망은... 저 땅에 울려퍼지는 스와힐리어 주기도송...

가사의 내용을 모르고 듣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은 아프리카 분위기의 흥겨운 리듬이 두드러지는 곡으로만 느껴지겠지만 이 곡은... 주기도송이다.

작곡자는 스탠포드를 졸업하고 한 때 디즈니에서도 일을 했다는 '크리스토퍼 틴'...

개인적으로는 에큐메니컬의 일면으로 보기 보다는, '하늘이 허락하신 아프리카(연약한 자들)의 위대함'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뻘한 싸움, 그러나

(게시자주. 사랑의 교회 옥한흠 원로 목사님 장남  
부흥과 개혁사 홈페이지 게시글,  
세상&교회 읽기 시리즈 2권, 『내가 꿈꾸는 교회』 p83 수록)

물론 '모범 답안'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열매와 관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보기 때문이지요.

제가 한 10년 전에 구독하던 잡지가 있습니다. 전북대의 강준만 교수가 발행하던 월간 '인물과 사상' 입니다. 그 잡지 창간 준비호부터 한 1년간 제가 미국 가기 직전까지 받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강 교수는 그 잡지의 창간 준비호부터 정기 구독자가 만 명만 넘으면 이 잡지는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독자들을 독려하기 위한 일환으로 매달 잡지 머릿말에 해당 달의 정기 구독자 수를 명시하곤 했지요. 만 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중 강연을 하지 않는다는 자신의 원칙을 깨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정기 구독자 수를 50명(제 기억이 맞다면요...)을 확보해 주는 곳은 기꺼이 달려가서 대중 강연을 하는 파격적인 마케팅(?)까지도 감행했습니다. 따라서 저 같이 그 잡지에 대해서 애정이 있는 사람은 매달 머릿말에 실리는 구독자 수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창간 초기 몇 달 동안은 수직적으로 늘어나던 구독자 수가 8,9천에서 멈추더니 결국 만 명을 못 넘더군요.

"만 명이 뭐야? 이 추세면 10만도 금방 넘겠다." 라고 생각했던 제게 당시 담보 상태에서 변하지 않는 구독자 수는 매우 의외였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그 잡지가 폐간되었는데 얼마 전 검색을 해보니 아직도 있는 것 같더군요. 지금은 어떤 정신으로 운영하는지는 모르지만 제게 '인물과 사상' 은 10년 전 '실패한 (언론) 개혁' 의 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 교수는 '조선일보 제자리 찾아주기' 라는 운동의 일환으로 월간 '인물과 사상' 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론학 교수로서 끊임 없이 조선일보 개혁에 대한 화두를 자신의 중요한 사명으로 삼고 물고 늘어졌지요. 그 와중에 소송도 당하고 나름대로 많은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이 분이 어떻게 지내는지 제가 잘 모르는데 '김대중 죽이기' 라는 파격적인 책으로 한국 사회에 자신의 이름을 알린 뒤 10년 전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더랍니다.

저는 요즘 강 교수와 월간 '인물과 사상' 을 가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연 강 교수와 같이 '비주류' 의 목소리가 사회를 바꾸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생각하곤 합니다.

'심부기' 가 나온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잘 아는 한 목사님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 분께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셨지요.

" 성호야, 밖에서 그만 걸돌고 주류로 들어와라."

평생 재야에서 살 것 같던 사람들이 왜 국회의원이 됩니까? 무엇보다 비주류의 한계를 절감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문제는 그들이 주류로 들어간다고 그들이 원하던 세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 전 민노당을 열렬 지지하는 한 후배와 얘기를 하면서 민노당 내부가 한나라당과 별로 다르지 않은 성격의 극심한 갈등들을 겪고 있는 일화에 들었습니다. 저는 민노당이 집권당이 되어도 지금과 크게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직히...한나라당이 집권을 해도 크게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때 시스템이 주는 변화에 큰 기대를 가졌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인간' 이 가져다주는 변화에 대해서 별 기대가 없는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꿈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네요.

주류의 흐름은 대통령도 못 바꿉니다. 우리는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지금 살고 있지요. 그래서 과거에는 '혁명' 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정이 무시된 혁명은 더 '타락한' 주류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오늘날 더욱더 강성해진 '조선일보' 를 보면서 저는 10년 전 한 교수가 꿈꾸었던 '언론개혁' 의 현주소를 실감합니다.

한 때 강교수를 열렬 지지하던 사람들조차도 강교수의 끊임없는 조선일보 타령에 사정을 하곤했습니다.

“교수님, 이제 지겨워요. 다른 얘기해요. 처음에는 내 피를 끓게 하던 교수님의 조선일보 얘기가 이제는 나를 돌아버리게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세상은 변하지 않지만 사람은 쉽게 지겨워하며 변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

강교수의 영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한 부족한 기독교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과연 이 책들 때문에 교회에 변화가 있을까요?

조선일보와 같은 교회들이 달라질까요?

제 생각에 교회는 점점 더 심리적이 되고 더 마케팅적이 되며 더 엔터테인먼트에 몰들어갈 것입니다.

'부족한 기독교' 때문에 열 받아서 마케팅에 더 돈을 쏟을 출판사로 인해 오스틴군의 책은 더 많이 팔릴 것이고 '부족한 기독교' 를 읽고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까지 몰려들 각종 '치유 세미나' 는 더 차고 넘칠 것입니다.

그럼 옥집사는 왜 이려고 있는걸까요?

좋은 질문입니다...제가 스스로에게 항상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모범답안' 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열매와 관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보기 때문이지요. 저는 모범답안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모범답안들 안에 있는 위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위선' 의 문제이지요.(삼천포 자제...)

저는 '부활이 없다면 나처럼 불쌍한 사람도 없다' 라는 고백을 한 바울을 자주 생각합니다. 그 고백이 진짜 내 고백이 되는 사람은 정말로 진리를 아는 사람이지요. 바울이 무슨 대단한 '사역의 열매' 를 보고 죽음을 맞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즉, 살아서 열매를 눈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마케팅으로 교회를 키우려는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이 하나님의 '주권' 에 대한 확신으로 다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바울의 근처에도 못 미치는 사람이니까요. 바울인 척 하면서 폼 잡다가는 저도 '치유 세미나' 가야할지 모릅니다.

이 글은 결론은 없습니다. 기도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뻔한' 싸움을 어떻게 해야 더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반에서 9등밖에 못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더 열심히 더 코피 쏟으면서 공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PDF로 발행할 수 없는 형식입니다.

"만일 지구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52명은 여자이고

48명은 남자입니다

30명은 아이들이고

70명은 어른들입니다

어른들 가운데 7명은 노인입니다

90명은 이성애자이고

10명은 동성애자입니다

70명은 유색인종이고

30명이 백인입니다

61명은 아시아 사람이고

13명이 아프리카 사람

13명은 남북 아메리카 사람

12명이 유럽 사람

나머지 1명은 남태평양 지역 사람입니다

33명이 기독교

19명이 이슬람교

13명이 힌두교

6명이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5명은 나무나 바위 같은 모든 자연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24명은 또 다른 종교를 믿고 있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17명은 중국어로 말하고

9명은 영어를

8명은 힌두어와 우르두어를

6명은 스페인어를

6명은 러시아어를

4명은 아랍어로 말합니다

이들을 모두 합해도 겨우 마을 사람들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반은 벵골어, 포르투갈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한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말을 합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사는 이 마을에서는

당신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일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일들을 안다는 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20명은 영양실조이고

1명은 굶어죽기 직전인데

15명은 비만입니다

이 마을의 모든 부 가운데

6명이 59%를 가졌고

그들은 모두 미국 사람입니다

또 74명이 39%를 차지하고

겨우 2%만 20명이 나눠가졌습니다

이 마을의 모든 에너지중 20명이 80%를 사용하고 있고

80명이 20%를 나누어 쓰고 있습니다

75명은 먹을 양식을 비축해 두었고

비와 이슬을 피할 집이 있지만

나머지 25명은 그렇지 못합니다

17명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조차 없습니다

은행에 예금이 있고

지갑에 돈이 들어있고

집안 어딘가에 잔돈이 굴러다니는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8명안에 드는 한 사람입니다

자가용을 소유한자는 100명중 7명 안에 드는 한 사람입니다

마을 사람들 중 1명은 대학교육을 받았고

2명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4명은 글도 읽지 못합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괴롭힘이나 체포와 고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양심에 따라 움직이고 말할 수 있다면

그렇지 못한 48명보다 축복받았습니다

만일 당신이 공습이나 폭격, 지뢰로 인한 살육과 무장단체의 강간이나 납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렇지 못한 20명보다 축복받았습니다

1년동안 마을에서는

1명이 죽습니다

그러나 2명의 아기가 새로이 태어나므로

마을 사람은 내년에 101명으로 늘어납니다

Dr. Donella Meadows의 신문 칼럼에서 발원, 이메일을 통해 세계인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If the world were a village'라는 글입니다. David J. Smith가 쓰고 Shelagh Armstrong의 그림으로 같은 제목의 책이 2002년 봄에 출간되어 한국어판도 있는...

글 읽어주신 분들께 어려운 이웃과 따뜻함 나눠 볼 수 있는 기회, 살짝 나누어 봅니다. (아래 링크는 해당 홈페이지에 연결됩니다.)

[인천 계양구 동양동 581번지 장애우 공동 생활가정 '성신원'](#)



PDF로 발행할 수 없는 형식입니다.

원장님 당신 본인도 의족을 쓰고 있는 장애인이시면서 개인 사업이 어려워진 가운데 함께 생활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보살핌을

포기하지 않으므로 꾸려지고 있는 시설입니다. 세분의 자원봉사자가 계시지만, 자비운영 조건으로 인가가 된 관계로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전무한 가운데, 자발적인 지원도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점점 줄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함께 생활하던 식구

들 마저 줄이고 있는 상황이 되어서... 답답한 마음을 안고, 이렇게 지원 요청의 글을 올려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모두가 실천하는 사랑으로 아래, 이사야서 58:6-12 말씀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아울러 건강한 공동체에 본글의 스크랩도 부탁드립니다.

도움의 손길이 정말 절실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풀러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 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주린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로고의 암시 i (美 타코벨社 로고)

광고계 쪽에 몸담고 있으시던 쪽으로 추정되는 Stdoomsayer라는 분의 자료입니다. 광고 해석에 관한 이 분의 자료들은 가히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꽤 많이 좋아하던 패스트푸드인) 버거킹을 즐기는 기쁨을 앗아간 영상도 링크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

로고의 암시 ii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어이없는 자료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관심을 기울여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기 영상컨텐츠가 주장하는 바는 미국의 거대 기업로고, 또한 미국과 유럽의 오랜 문화 속에서, 그리고 캐톨릭의 성화와 포스터등에서 아래의 항목을 형상화한듯 한 분위기가 많이 관찰된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작성하는 저도 로만 캐톨릭에는 구원이 전혀 없다는 식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1. Baphomet(대표적인 Satanic symbol) 숭배자들이 즐겨 애용하는 Pentacle (별모양 마크)
2. 꼭대기에 전시안(혹은, 제 3의 눈)이 있는 피라미드 (셉트, 호루스, 이시스의 고대 이집트의 종교 사상)
3. 백인 우월주의의 표상인 부엉이 (Such as Bohemian Grove's Owl)
4. 고대 바벨론 종교와 고대 이집트 종교에서 횡행하던 태양숭배 사상

각 로고의 제작자 본인은 의도한 바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세상에 어두움의 영향력을 키우고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문화가 양산되는... (2002년 한국에서 붉은 악마 응원의 열풍 이후 OECD 회원국중 최고의 자살률, 전년 대비 이혼율 15% 증가, 기상청 관측 이래 최대의 홍수 피해, 유괴/납치/살인 주요범죄 증가, 2003년 태풍 매미 강타, 실업률 증가, 한국내 이념 대립 심화... 등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아도 무방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미 카터 前대통령이 CFR의 일원이라는 마지막의 자막 내용은 정말 다시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갈렙 목사님 추론처럼 CFR이 Conspiracy의 주역은 아니었던겐지..싶습니다만, 다른 정보가 잡히는 분은 언제라도 알려주세요.)

영화의 암시는 'illuminati in movies'라는 글로 따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만, 이러한 로고 외에도 드라마, 어린이 프로 등, 일반 매체에서의 암시 역시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의 오랜 친구 월트 디즈니는 1955년 디즈니社 설립 이후, 이러한 암시를 반세기 이상 전세계에 다양하게 뿌려온 선두 주자 중의 하나입니다.  
(유튜브에서 Disney, Subliminal, Backward, Reverse 4개의 단어중 어떤 것으로도 2개를 조합해서 검색해보면... 아...) 우리 세대 뿐만 아니라 디즈니를 접하던 전 인류가 얼마나 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왔는지... 그 실상은 우리의 상상과 추측, 그 너머입니다.

참으로 참람함이 하늘에 사무치는 시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Subliminal 효과가 어떤 것인지는 Darren Brown 이라는 사람의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더욱 깜짝 놀라시게 될 것입니다.

[대런 브라운의 대인 실험 영상](#)

그리스도인에게 술과 담배는 금기 사항이다.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며 술과 담배를 하는 사람들(카톨릭 사제들,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 등)을 보노라면 무엇인가 이것은 아닌데 생각하면서도 꼬집어 그것이 왜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필자도 과거에 감리교회를 20여 년 다니고도 몰랐었다. 그 당시 이에 대한 질문을 하면, 대답은 "그것 하나도 지킬 만한 용기와 절제가 없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느냐?" 또는 "몸에 나쁜 것이니 하지 말라." 또는 "원래 미국서는 할 수 있는데 한국식 기독교에서는 안 된다."라는 비성경적 것들이었다. 지금에 와서 바른 성경을 통한 진리의 지식을 배우고 나니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를 알았고, 그것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이 흡연을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안 되는 행동이다.

1.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께서 그의 몸 안에 거하시므로 그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고전 3:16, 고후 6:16).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몸은 주님이 값을 치르고 사신 하나님의 것(고전 6:20; 12:27)이므로 하나님께 가기까지 관리할 책임이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있는 것이다. 담배가 몸에 나쁘고 환경을 더럽힌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담배를 피움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자신 안에 들어와 사시는 하나님의 영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이고, 육신의 더러운 행실을 버리지 못한 행동으로 이런 분류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따른다(고전 3:17, 롬 8:13, 고전 11:30).

2. 담배를 피우는 모습은 사탄의 모습을 흉내 내는 것이다(욥기 41:18~22). 욥기 41장은 사탄인 리비아단에 대한 말씀인데, 리비아단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보기 바란다. 욥기 41:18-22 말씀은 다음과 같다.

〈[한글킹제임스성경](#)〉 그의 눈은 아침의 눈꺼풀 같고 그의 입에서는 타는 등불들이 나오며 불뿔이 튀는도다. 그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끓는 솔이나 가마솥에서 나는것 같도다. 그의 숨결로 숯불을 피우며 화염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도다. 그의 목에는 힘이 몰려 있고 그 앞에서는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도다.

〈[개역성경/개역개정판](#)〉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햇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 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솔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의 눈은 아침의 눈꺼풀 같고"(18절) - 지그시 눈감고 담배를 피워대는 모습과 유사하다. 개역성경은 이 문구에 빛(the rays)을 첨가해서 지그시 담배 필 때의 눈의 모습을 감췄다.

"그의 입에서는 타는 등불들이 나오며 불뚱이 튀는도다"(19절) - 등불처럼 타면서 안정된 상태로 불꽃을 내는 것은 촛불, 숯불, 담배 불이다. 그러나 입에서 타는 것은 담배 불이다. 담배를 필 때에 담배 끝에서 타는 등불이 있고 가끔씩 불뚱도 튀긴다. 개역성경은 타는 등불(burning lamps)을 횃불(torches)로 변개시켜서 담배 불인 것을 감췄다.

"그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끊는 솔이나 가마솥에서 나는것 같도다"(20절) - 담배 필 때에 코와 입에서 나오는 연기는 마치 끊는 가마솥에서 나는 연기와 흡사하다.

"그의 숨결로 숯불을 피우며 화염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도다."(21절) - 숨결에 따라 담배 불이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 한다.

"그의 목에는 힘이 몰려 있고 그 앞에서는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도다."(22절) 담배를 흡입할 때에 목에 힘이 들어가는 모습이다. 사람들이 담배 필 때에 죄와 세상사는 찌든 슬픔과 고통을 위로 받는다. 개역성경은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도다'를 '절망만 감돌 뿐이 구나'로 변개해 사탄인 리비아단이 입에서 불을 내며 위로를 받는다는 사실을 감추어 버렸다.

결론적으로 사탄은 입에서 불을 내며 위로를 받는다. 요한복음 8:44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 서 나와서 아버지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독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사탄이 위로 받는 방법인 입에서 불을 내는 흡연의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탄의 자식들인 자연인이 자기 아버지의 정욕적인 모습을 따라하는 것이다. 마치 아버지가 담배를 피면 그 아들이 커서 담배를 피우게 되는 것처럼) 더구나 그리스도인은 그 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해 계심을 알 때에 흡연은 자신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사탄은 인격체이기에 사람들에게 다가와 미혹한다. "담배는 몸에 나쁘나 인생은 짧고 굵게 멋있게 사는 것이야, 담배가 없으면 너는 살 맛이 없어질거야, 이것이 너의 유일한 낙이야, 이 한 모금이 이 세상의 찌든 슬픔과 고통으로부터 얼마나 너에게 평안함을 주는데!, 성경에 어디 담배 피우지 말라고 되 있니! 담배 피워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 봐 신부들은 거의 다 담배 피우는데 뭘!..." "그러나 올바른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 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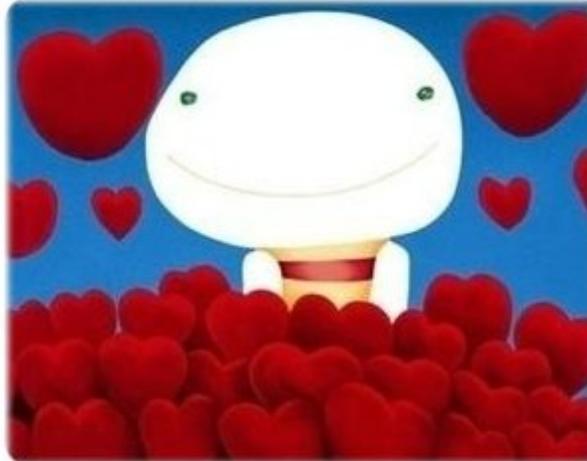
2010년 04월 27일

이진모 / 미국 Bible Baptist Church International

출처 : [바이블파워뉴스](#)

게시자주) 개인적으로 개역개정에 대한 극단적인 비판 태도에는 동의하지 않습디만, 윗글의 '담배를 왜 피우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숙고되어야 할 바로 생각합니다.





한 아저씨가 어린 아이에게 물었다....

**아저씨** : 애..꼬마야..니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는거니?

하나님이 계신 곳을 알려주면 이 아저씨가 너에게 사과를 하나 줄게..

**어린 아이** : 아저씨,..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을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사과를 두개 드릴게요...

'기적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나요?' 라는 질문(네이버 지식iN)에 대한 답변인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어들을 볼 때 카톨릭쪽 분이신듯 한데, 많은 단어들을 쉽게 설명하고 있어서 블로그에 담아보았습니다.

개별 단어에 대해서는 성경사전이 있으신 경우, 사전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기적은 히브리어로 '오트' 라고 합니다. 기적 외에 신호, 상징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외 많은 히브리어가 아래에 있습니다...

- ◎가나(Kanah)의 뜻은 '갈대'라는 뜻
- ◎가나안(Canaan)의 뜻은 '자색', '낮은 지대'이라는 뜻
- ◎가드(Gath)의 뜻은 '복', '행운'이라는 뜻
- ◎가띠(Gadi)의 뜻은 '행운'이라는 뜻이다.
- ◎가띠엘(Gaddiel)의 뜻은 '하느님의 군대'라는 뜻이다.
- ◎가르멜산(Carmel)의 뜻은 '동산', '과수원'이라는 뜻
- ◎가리웃 유다(이스가리웃 유다)(Iscariot Judas)의 뜻은 '가리웃 사람 유다'라는 뜻이다.
- ◎가물리엘(Gamaliel)의 뜻은 '하느님의 상급'이라는 뜻이다.
- ◎가브리엘(Gabriel)의 뜻은 '하느님의 영웅'이라는 뜻이다.
- ◎가아담(Gatam)의 뜻은 '빈약한'이라는 뜻이다.
- ◎가톨릭(Catholic)의 뜻은 '보편', '보편적인'이라는 뜻이다.

- ◎가파르나움(Capernaum)의 뜻은 '마을', '동리', '촌',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
- ◎갈렘(Caleb)의 뜻은 '개', '공격자', '종'이라는 뜻
- ◎갈보리(Calvary)는 해골이라는 뜻의 아람어 굴골타를 음역한 것으로 '해골'이라는 뜻
- ◎게세마니(Gethemane)의 뜻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
- ◎고라(Korah)의 뜻은 '우박', '대머리'라는 뜻이다.
- ◎고레스(Cyrus)의 뜻은 '태양'이라는 뜻이다.
- ◎고르넬리오(Cornelius)의 뜻은 '빨'이라는 뜻이다.
- ◎고린토(Corinth)의 뜻은 '빨'이라는 뜻
- ◎고멜(Gomer)의 뜻은 '완성'이라는 뜻
- ◎고모라(Gomorrah)의 뜻은 '깊은', '물이 많은'이라는 뜻
- ◎고임(Goim)의 뜻은 '이방인', '이교도'라는 뜻이다.
- ◎골고타(Golgotha)의 뜻은 '해골산'이라는 뜻이다.
- ◎골로사이(Golossae)의 뜻은 '버림'이라는 뜻
- ◎골리앗(Goliath)의 뜻은 '유랑자', '망명자'라는 뜻
- ◎그레데(Crete)의 뜻은 '방언'이라는 뜻이다.
- ◎그리스도(Christ)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축성된 자'라는 뜻이다.
- ◎그말리(Gemalli)의 뜻은 '낙타를 모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 ◎그모스(Chemosh)의 뜻은 '불'이라는 뜻이다.
- ◎글로리아(gloria)의 뜻은 '영광'이라는 뜻이다.
- ◎기드온(Gedeon)의 뜻은 '베는 자', '자르는 자'라는 뜻

- ◎기브온(Gibeon)의 뜻은 '언덕', '높은 곳'이라는 뜻
- ◎길갈(Gilgal)의 뜻은 '굴림', '돌로 두른 장소'이라는 뜻
- ◎길론(Chilion)의 뜻은 '낭비하다'라는 뜻이다.
- ◎길보아(Gilboa)의 뜻은 '분출하는 샘'이라는 뜻이다.
- ◎곶꼴라베(Conclave)의 뜻은 '자물쇠가 채워진 방'이라는 뜻이다.
- ◎꾸르실료(Cursillo)의 뜻은 '단기 강습회'라는 의미이다.
- ◎나단(Nathan)의 뜻은 '선물', '주는 자'라는 뜻
- ◎나답(Nadab)의 뜻은 '야훼는 기꺼이 ~하신다', '야훼는 자유로우시다'라는 뜻이다
- ◎나발(Nabal)의 뜻은 '바보', '야비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 ◎나봇(Naboth)의 뜻은 '싹트다', '뛰어난 사람'이라는 뜻에서 유래한다.
- ◎나아만(Naaman)의 뜻은 '즐거움'이라는 뜻
- ◎나오미(Naomi)의 뜻은 '나의 귀염둥이'라는 뜻이다.
- ◎나일강(Nile)의 뜻은 '탁하다', '흐르다'라는 뜻
- ◎나자렛(Nazareth)의 뜻은 '지켜보다', '파수꾼'이라는 뜻
- ◎나자로(Nazarus)는 '하느님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의 엘리야자르에서 유래
- ◎나타나엘(Nathanael)의 뜻은 '하느님께서 주심'이라는 뜻
- ◎나홀(Nahor)의 뜻은 '살해자', '코고는 자'라는 뜻이다.
- ◎나훔(Nahum)의 뜻은 '위로', '동정'이라는 뜻이다.
- ◎나흐비(Nahbi)의 뜻은 '하느님 곁에 숨음'이라는 뜻이다.
- ◎나흐손(Nahshon)의 뜻은 '점쟁이'라는 뜻이다.

- ◎납달리(Naphtali)의 뜻은 '경쟁', '다툼'이라는 뜻
- ◎네겍(Negeb)의 뜻은 '굴'이라는 뜻이다.
- ◎넬(Ner)의 뜻은 '등불'이라는 뜻이다.
- ◎노아(Noah)의 뜻은 '휴식', '위안'이라는 뜻
- ◎놉(Nob, Noph)의 뜻은 '높은 곳', '산당'이라는 뜻
- ◎놏(Nod)의 뜻은 '방랑'이라는 뜻이다.
- ◎눈(Nun)의 뜻은 '생선'이라는 뜻이다.
- ◎느보(Nebo)의 뜻은 '하늘', '높음', '전령관'이라는 뜻
- ◎느부갓네살(Nebuchadnezzar)의 뜻은 '나부가 나의 경계석을 보호하신다'라는 뜻
- ◎느헤미야(Nehemiah)의 뜻은 '야훼께서 위로하셨다'라는 뜻
- ◎니고데모(Necodemus)의 뜻은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
- ◎니느웨(Nineveh)의 뜻은 '합의'라는 뜻
- ◎니므롯(Nimrod)의 뜻은 '늠름하다'라는 뜻
- ◎니산달(Nisan)의 뜻은 '움직인다', '길 떠난다', '출발한다'라는 뜻이다. 태양력으로 3~4월에 해당한다.
- ◎넴시(Nimshi)의 뜻은 '끌어냄'이라는 뜻이다.
- ◎다니엘(Daniel)의 뜻은 '하느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
- ◎다르싯(Tarshish)의 뜻은 '금속의 정련'이라는 뜻
- ◎다말(Tamar)의 뜻은 '종려나무'라는 뜻
- ◎다윗(David)의 뜻은 '사랑 받는 자'라는 뜻
- ◎단(Dan)의 뜻은 '심판', '재판장'이라는 뜻

- ◎달란트(talent)의 뜻은 '재능', '재주'라는 뜻이다.
- ◎달마누타(Dalmanutha)의 뜻은 '과부'라는 뜻이다.
- ◎테라(Terah)의 뜻은 '표백'이라는 뜻이다.
- ◎데마(Demas)의 뜻은 '대중의 떡', '다스리는 자' 이라는 뜻
- ◎데메드리오(Temetrius)의 뜻은 '백성의 어머니'라는 뜻
- ◎데살로니카(Thessalonica)의 뜻은 '테살리의 승리'라는 뜻
- ◎도다인(Dothan)의 뜻은 '우물'이라는 뜻이다.
- ◎도르가(Dorcas)의 뜻은 '영양', '사슴'이라는 뜻
- ◎도후(Tohu)의 뜻은 '쇠약하다'라는 뜻이다.
- ◎톨라(Tola)의 뜻은 '벌레'라는 뜻이다.
- ◎두발카인(Tubalcain)의 뜻은 '대장장이'라는 뜻
- ◎드고아(Tekoa)의 뜻은 '안정되다', '정착하다'라는 뜻
- ◎드루실라(Drusilla)의 뜻은 '이슬에 젖다'라는 뜻
- ◎드보라(Deborah)의 뜻은 '꿀벌'이라는 뜻
- ◎들릴라(Delilah)의 뜻은 '나약', '호색'이라는 뜻
- ◎디나(Dinah)의 뜻은 '공의', '심판', '살피다'라는 뜻
- ◎디다케(didache)의 뜻은 '가르침'이라는 뜻이다.
- ◎디도(Titus)의 뜻은 '공경하다'라는 뜻
- ◎디모테오(Timothy)의 뜻은 '하느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하느님을 찬양하는자'라는 뜻
- ◎디아코니아(diakonia)의 뜻은 '봉사'라는 뜻이다.

- ◎딤나(Dimnah, Timnah)의 뜻은 '분깃', '배설물의 언덕'이라는 뜻이다.
- ◎테스따멘트(Testament)의 뜻은 '조약', '협정', '계약'이라는 뜻이다.
- ◎띠로(Tyre)의 뜻은 '바위'라는 뜻
- ◎라마(Ramah)의 뜻은 '높은 곳'이라는 뜻이다.
- ◎라맛레히(Ramath-lehi)의 뜻은 '턱뼈의 산'이라는 뜻이다.
- ◎라멕(Lamech)의 뜻은 '능력 있는 자'라는 뜻
- ◎라므세스(Raamses)의 뜻은 '태양신(레)이 그를 낳았다', '태양신이 나를 낳았다'라는 뜻
- ◎라반(Laban)의 뜻은 '흰빛'이라는 뜻
- ◎라부(Raphu)의 뜻은 '위로'라는 뜻이다.
- ◎라빠(Rabbah)의 뜻은 '큰 성읍'이라는 뜻
- ◎라오디게이아(Laodicea)의 뜻은 '백성의 정의'라는 뜻
- ◎라파엘(Raphael)의 뜻은 '하느님이 낮게 하셨다'라는 뜻이다.
- ◎라합(Rahab)의 뜻은 '넓다', '교만', '폭풍우'라는 뜻
- ◎라헬(Rachel)의 뜻은 '암양'라는 뜻
- ◎람(Ram)의 뜻은 '높아짐'이라는 뜻이다.
- ◎랍비(Rabbi)의 뜻은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며 신약 성서에서 예수님을 나타낼 때는 '선생님'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 ◎레아(Leah)의 뜻은 '암소'라는 뜻
- ◎레위(Levi)의 뜻은 '연합하다', '결합하다'라는 뜻
- ◎로데(Rhoda)의 뜻은 '장미'라는 뜻
- ◎로루하마(Loruhamah)의 뜻은 '천더기'라는 뜻이다.

- ◎로마(Rome)의 뜻은 '세력'이라는 뜻이다.
- ◎로사리오(Rosario)의 뜻은 '장미 다발'이라는 뜻이다.
- ◎로암미(Loammi)의 뜻은 '버린 자식'이라는 뜻이다.
- ◎로이스(Lois)의 뜻은 '유쾌함'이라는 뜻
- ◎롯(Lot)의 뜻은 '가리웠다'라는 뜻
- ◎루가(Luke, Lucas)의 뜻은 '충명하다', '빛나다'라는 뜻
- ◎루즈(Luz)의 뜻은 '편도나무'라는 뜻이다.
- ◎루치펠(Lucifer)의 뜻은 '새별'이라는 뜻이다.
- ◎루하마(Ruhamah)의 뜻은 '귀염둥이'라는 뜻이다.
- ◎룻(Ruth)의 뜻은 '여자 친구', '우정', '자손'라는 뜻
- ◎르우(Reu)의 뜻은 '친구'라는 뜻이다.
- ◎르우벤(Reuben)의 뜻은 '보라 아들이라'라는 뜻
- ◎르우엘(Reuel)의 뜻은 '하느님의 친구'라는 뜻이다.
- ◎르호보암(Rehoboam)의 뜻은 '백성이 많아지다'라는 뜻
- ◎리디아(Lydia)의 뜻은 '생산'이라는 뜻
- ◎리브가(Rebekah)의 뜻은 '그물 끈'이라는 뜻
- ◎마기(Machi)의 뜻은 '상심하다'라는 뜻이다.
- ◎마노아(Manoah)의 뜻은 '휴식', '평안'이라는 뜻이다.
- ◎마니피캣(Magnificat)은 성모님이 엘리사벳을 방문하여 부른 노래로서 '찬양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 ◎마따니아(Mattaniah)의 뜻은 '야훼의 선물'이라는 뜻

- ◎마딤(Mattan)의 뜻은 '한 선물'이라는 뜻이다.
- ◎마라(Mara)의 뜻은 '쓰라림', '괴롭다'이라는 뜻이다.
- ◎마라나타(maranatha)의 뜻은 '주여 어서 오소서', '주 예수여 오소서'라는 뜻이다.
- ◎마르코(Mark, Marcus)의 뜻은 '비추이다'라는 뜻이고, 본명은 요셉이다.
- ◎마르타(Martha)의 뜻은 '숙녀', '여주인'이라는 뜻
- ◎마리아(Mary, Maria)의 뜻은 '가장 높으신 분', '존귀한 분', '권력 있는 귀부인', '친숙한 사랑스러운 부인'이란 말
- ◎마므레(Mamre)의 뜻은 '강하다'라는 뜻이다.
- ◎마온(Maon)의 뜻은 '거주'라는 뜻이다.
- ◎마카베오(Maccabaei)의 뜻은 '망치'라는 뜻이다.
- ◎마케도니아(Macedonia)의 뜻은 '숭배'라는 뜻이다.
- ◎마태오(Matthew, Matthaues)의 뜻은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뜻이며, 본명은 레위이다.
- ◎마티아(Matthias)의 뜻은 '야훼의 선물', '하느님이 주심'이라는 뜻
- ◎마하나임(Mahanaim)의 뜻은 '두 진영', '하느님의 군대'라는 뜻
- ◎마할랄렐(Mahalalel)의 뜻은 '하느님을 찬양한다'라는 뜻이다.
- ◎마헤르살랄하스바스(Mahershalalhashbaz)의 뜻은 '노략품을 빨리 차지 하여라. 전리품에 성급한 자여!', '빨리 차지 하여라'라는 뜻이다.
- ◎마흘론(Mahlon)의 뜻은 '병약자', '약골'이라는 뜻이다.
- ◎막달라(Magdala)의 뜻은 '탐'이라는 뜻이다.
- ◎막벨라(Machpelah)의 뜻은 '이중의 동굴'이라는 뜻
- ◎만나(Manna)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나?'라는 뜻이다.
- ◎말기수아(Malchishua)의 뜻은 '야훼는 부유하시다'라는 뜻이다.

- ◎말라기(Malachi)의 뜻은 '나의 사자', '야훼의 사자'라는 뜻이다.
- ◎말코스(Malchus)의 뜻은 '권고자', '왕의 권세'라는 뜻이다.
- ◎메랍(Merab)의 뜻은 '중대함'이라는 뜻이다.
- ◎메삭(Meahach)의 뜻은 '누구나'라는 뜻
- ◎메시아(Messiah)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축성된 자'라는 뜻이다.
- ◎멜기(Melchi)의 뜻은 '왕'이라는 뜻이다.
- ◎멜키세덱(Melchizedek)의 뜻은 '의의 왕'이라는 뜻
- ◎모르드개(Mordecai)의 뜻은 '마르둑의 예배자'라는 뜻
- ◎모리아(Moriah)의 뜻은 '야훼의 계시'라는 뜻
- ◎모세(Moses)의 뜻은 '물에서 건진 아이'라는 뜻이다.
- ◎모압(Moab)의 뜻은 '아비의 소생', '아버지로 인해 얻은 자'라는 뜻이다.
- ◎몬시뇰(Monsignor)의 뜻은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다.
- ◎므기또(Megiddo)의 뜻은 '주둔지'라는 뜻
- ◎므나쎄(Menasseh)의 뜻은 '잊어버림'이라는 뜻이다.
- ◎므나헴(Menahem)의 뜻은 '위로자'라는 뜻이다.
- ◎므두셀라(Methuselah)의 뜻은 '대확장', '창 던지는 자'라는 뜻이다.
- ◎므리바(Meribah)의 뜻은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다투다'라는 뜻
- ◎므비보셋(Mephibosheth)의 뜻은 '부끄러움을 없애는 자'라는 뜻이다.
- ◎미가(Micah)의 뜻은 '야훼와 같은 이가 누구나?'라는 뜻
- ◎미가엘(Michael)의 뜻은 '누가 하느님과 같은나?'라는 뜻이다.

- ◎미갈(Michal)의 뜻은 '누가 하느님과 같으리요?', '누가 하느님과 같으랴'라는 뜻
- ◎미디안(Midian)의 뜻은 '심판'이라는 뜻
- ◎미리암(Miriam)의 뜻은 '지극히 존귀한 분', '귀부인'이라는 뜻이다.
- ◎미사(Mass)의 뜻은 '파견하다'라는 뜻이다.
- ◎미스바(Mizpah)의 뜻은 '망대', '파수하다'라는 뜻
- ◎미카엘(Michael)의 뜻은 '누가 하느님과 같으냐?'라는 뜻이다.
- ◎밀가(Milcah)의 뜻은 '여왕'이라는 뜻이다.
- ◎바느하스의 뜻은 '신탁'이라는 뜻
- ◎바라빠(Barabbas)의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
- ◎바룩(Baruk)의 뜻은 '축복 받은 자'라는 뜻이다.
- ◎바르(Bar~)의 뜻은 '~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 ◎바르나바(Barnabas)의 뜻은 '격려의 아들', '위로의 아들', '권위자'라는 뜻이며, 본명은 요셉이다.
- ◎바르사빠(Barsabbas)의 뜻은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 ◎바르요나(Bar-Jona)의 뜻은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 ◎바르질래(Barzillai)의 뜻은 '철로 만든 것'이라는 뜻
- ◎바르톨로메오(Bartholomew)의 뜻은 '톨로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 ◎바르티매오(Bartimaeus)의 뜻은 '티매오의 아들'이라는 뜻
- ◎바리사이(Pharisees)의 뜻은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이다.
- ◎바벨(Babel)의 뜻은 '하느님의 문', '혼돈'이라는 뜻
- ◎바빌론(Babylon)의 뜻은 '신의 문'이라는 뜻이며, 바벨탑이 세워진 곳이기도 하다.

- ◎바세바(Bathsheba)의 뜻은 '맹세의 여자'라는 뜻
- ◎바아사(Baasha)의 뜻은 '바알은 태양이시다'라는 뜻이다.
- ◎바알(Baal)이라는 뜻은 '주인', '소유자', '구름을 타고 오시는 자'라는 뜻이다.
- ◎바울로(바오로)(Paul)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
- ◎발락(Balak)의 뜻은 '멸하는 자'라는 뜻
- ◎발람(Balaam)의 뜻은 '백성을 망하게 하는 자', '백성의 주'라는 뜻
- ◎발티(Palti)의 뜻은 '야훼는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뜻이다.
- ◎베가(Pakah)의 뜻은 '그가 눈을 뜨다'라는 뜻이다.
- ◎베냐민(Benjamin)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 '믿을 만한 아들', '남방인'이라는 뜻이다.
- ◎베다니아(Bethany)의 뜻은 '번민하는 자의 뜻',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
- ◎베델(Bethel)의 뜻은 '산의 성소', '하느님의 집'라는 뜻
- ◎베드로(Peter)의 뜻은 '반석', '바위'라는 뜻이고, 본명은 시몬이다.
- ◎베들레헴(Beth-lehem)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
- ◎베레스(Peres)의 뜻은 '꺼짐'이라는 뜻이다.
- ◎베레아(Beroea)의 뜻은 '너머의 땅'이라는 뜻이다.
- ◎베르가모(Pergamum)의 뜻은 '높여진 곳', '훈인하는 곳'이라는 뜻
- ◎베싸이다(Beth-saida)의 뜻은 '사냥꾼의 집', '고기잡이의 집', '어촌'이라는 뜻
- ◎베엘제불(Beelzebul)의 뜻은 '집주인', '쓰레기의 신', '쓰레기의 사신'이란 뜻이다.
- ◎베짜타(Bethesda)의 뜻은 '은혜의 집', '올리브의 집'이라는 뜻
- ◎벤암미(Ben-Ammi)의 뜻은 '내 근친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 ◎벤오니(Benoni)의 뜻은 '가엾은 내 자식', '괴롭게 낳은 아들'이라는 뜻이다.
- ◎벨렉(Peleg)의 뜻은 '나뉘다'라는 뜻이다.
- ◎벳세메스(Beth-shemesh)의 뜻은 '태양의 집'이라는 뜻
- ◎보디발(Potiphar)의 뜻은 '태양신이 주신 자'라는 뜻
- ◎보아즈(Boaz)의 뜻은 '민첩', '재빠름', '유력자'이라는 뜻
- ◎본도(Pontus)의 뜻은 '바다'라는 뜻이다.
- ◎불가타(Vulgata)의 뜻은 '일반에게 널리 보급되고 있다', '백성들의 성서'라는 뜻이다.
- ◎불레셋(Philistia)이라는 이름은 팔레스타인이라는 명칭에 기원이 된다. → Philistia
- ◎브가히야(Pekahiah)의 뜻은 '야훼가 눈을 뜨셨다'라는 뜻이다.
- ◎브나야(Benaiah)의 뜻은 '야훼께서 세우심'이라는 뜻
- ◎브닌나(Peninnah)의 뜻은 '산호'라는 뜻이다.
- ◎브두엘(Buthuel, Pethel)의 뜻은 '하느님의 집', '하느님은 젊으시다'라는 뜻이다.
- ◎브리스킬라(Priscilla)의 뜻은 '늙다', '작은 노부인'라는 뜻
- ◎브엘세바(Beer-sheba)의 뜻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
- ◎비느하스(Phinehas)의 뜻은 '흑인'이라는 뜻
- ◎비베셋(Pi-beseth)의 뜻은 '고양이 여신의 전당'이라는 뜻
- ◎빌닷(Bildad)의 뜻은 '주가 사랑하셨다'라는 뜻이다.
- ◎빌라도(Pilate)의 뜻은 '창을 가짐'이라는 뜻
- ◎빌하(Pilha, Bilhah)의 뜻은 '보호', '어리석은', '유순한'이라는 뜻이다.
- ◎빠라클리토(Paracletus)의 뜻은 '보호자', '협조자'라는 뜻이다.

- ◎빠스카(Pascha)의 뜻은 '거르고 지나가다'라는 뜻이다.
- ◎뵁스로마나(Pax Romana)의 뜻은 '로마의 평화'라는 뜻이다.
- ◎사독(Zadok)의 뜻은 '의롭다'라는 뜻
- ◎사드락(Shadrak)의 뜻은 '당신의 명령'이라는 뜻
- ◎사라(Sarah)의 뜻은 '백성의 어머니', '왕비',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
- ◎사래(Sharai)의 뜻은 '영귀', '헌화', '야훼는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뜻이다.
- ◎사렙다(Sarepta)의 뜻은 '부위 놓다', '주입'이라는 뜻
- ◎사르디스(Sardis)의 뜻은 '남은 물건'이라는 뜻
- ◎사마리아(Samaria)의 뜻은 '지키는 산', '살피다'이라는 뜻
- ◎사반(Shaphan, Rock Rabbit)의 뜻은 '바위 너구리'라는 뜻이다.
- ◎사밧(Shaphat, Zabad)의 뜻은 '그는 살폈다', '그는 주셨다'라는 뜻이다.
- ◎사울(Saul, Shaul)의 뜻은 '하느님께 구했다', '희망'라는 뜻
- ◎사탄(Satan)의 뜻은 '대항하는 자'라는 뜻이다.
- ◎살로메(Salome)의 뜻은 '평화', '평안'이라는 뜻
- ◎살룸(Shallum)의 뜻은 '보응'이라는 뜻이다.
- ◎살몬(Salmon, Zalmon)의 뜻은 '그늘'이라는 뜻이다.
- ◎삼갈(Shamgar)의 뜻은 '시미케 신이 주셨다'라는 뜻이다.
- ◎삼마(Shammah)의 뜻은 '황폐함'이라는 뜻이다.
- ◎삼무아(Shammua)의 뜻은 '하느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이다.
- ◎삼손(Samson)의 뜻은 '태양의 사람'이라는 뜻

- ◎사피라(Sappira)의 뜻은 '아름답다'라는 뜻
- ◎샤밭(Shabbath)의 뜻은 '중지하다', '휴식하다'라는 뜻이다.
- ◎세겜(Shechem)의 뜻은 '목', '어깨', '상수리나무의 폐허', '등성의 언덕'이라는 뜻
- ◎세바(Sheba, Zebah)의 뜻은 '일곱', '희생', '풍부'라는 뜻이다.
- ◎세일산(Seir)의 뜻은 '털이 많은', '관목이 우거진'이라는 뜻
- ◎셀라(Shelah, Shela, Sela, Zela)의 뜻은 '무기', '높임', '고요', '반석', '낭떠러지', '파견된 자', '산비탈'이라는 뜻이다. <이 중에 '파견된 자'라는 뜻을 가진 연못은 실로암을 가르친다.>
- ◎셈(Shem)의 뜻은 '명성', '유명한'이라는 뜻
- ◎셋(Seth)의 뜻은 '대신 누움', '값음'이라는 뜻이다.
- ◎소돔(Sodom)의 뜻은 '에워싸인 장소'라는 뜻
- ◎소디(Sodi)의 뜻은 '야훼의 조안'이라는 뜻이다.
- ◎소렉(Sorek)의 뜻은 '포도 골짜기'라는 뜻이다.
- ◎소바르(Zophar)의 뜻은 '지저귀는 새', '날카로운 손톱'이라는 뜻이다.
- ◎소알(Zoar)의 뜻은 '작다'라는 뜻이다.
- ◎솔로몬(Solomon)의 뜻은 '평화롭다'라는 뜻
- ◎수꼴(Succoth)의 뜻은 '덤불', '초막', '우릿간'이라는 뜻
- ◎수넴(Shunem)의 뜻은 '동생의 땅', '울퉁불퉁한 요철의 땅', '두 휴식처'라는 뜻
- ◎수브(Zuph)의 뜻은 '아들'이라는 뜻이다.
- ◎수산나(Sousanna)의 뜻은 '백합화'라는 뜻이다.
- ◎수시(Susi)의 뜻은 '마부'라는 뜻이다.
- ◎스둘(Sethur)의 뜻은 '숨은 자'라는 뜻이다.

- ◎스룩(Serug)의 뜻은 '가지'라는 뜻이다.
- ◎스미르나(Smyrna)의 뜻은 '몰약'이라는 뜻
- ◎스바니아(Shebaniah)의 뜻은 '야훼는 감추심'이라는 뜻이다.
- ◎스알디엘(Shealtiel)의 뜻은 '하느님께 청구하다'라는 뜻이다.
- ◎스알야숨(Sheal-jashub)의 뜻은 '남은 자만이 돌아 올 것이다'라는 뜻이다.
- ◎스테파노(Stephen)의 뜻은 '면류관'이라는 뜻
- ◎스페인(Spain)의 뜻은 '토끼'라는 뜻이다.
- ◎시곳(Sakkuth)의 뜻은 '증오'라는 뜻이다.
- ◎시나이 산(Mt. Sinai)의 뜻은 '가시나무 숲'이라는 뜻
- ◎시돈(Sidon)의 뜻은 '어장', '노락물'이라는 뜻
- ◎시드키야(Zedekiah)의 뜻은 '야훼는 정의이시다'라는 뜻
- ◎시땀(Shittim)의 뜻은 '아카시아 나무'라는 뜻
- ◎시로페니키아(Syrophoenician)의 뜻은 '시로에 있는 페니키아', '붉다'라는 뜻
- ◎시몬(Shimon, Simon)의 뜻은 '응답하셨다', '들음'라는 뜻
- ◎시므온(Shimeon, Simeon)의 뜻은 '응답하셨다'라는 뜻
- ◎시므이(Shimei)의 뜻은 '야훼가 응답하셨다'라는 뜻
- ◎시뽀라(Zipporah)의 뜻은 '작은 새'라는 뜻이다.
- ◎시온(Shion, Zion)의 뜻은 '요새', '요해', '우뚝 솟은', '황폐', '봉우리'라는 뜻
- ◎시카르(Sychar)의 뜻은 '소개하는', '마지막'이라는 뜻
- ◎시혼(Sihon)의 뜻은 '청소하다', '황폐'라는 뜻이다.

- ◎실라(Silas, Silla)의 뜻은 '생각', '길'이라는 뜻
- ◎실로(Shiloh)의 뜻은 '휴식을 취하다'라는 뜻
- ◎실로암(Siloam)의 뜻은 '파견된 자'라는 뜻
- ◎쌍투스(Sanctus)의 뜻은 '거룩하시다'라는 뜻이다.
- ◎아가(雅歌)란 '노래들 중의 노래'라는 뜻의 히브리어 '쉬르 하쉬림'에서 유래
- ◎아간(Achan)의 뜻은 '곤란'이라는 뜻
- ◎아골(Achor)의 뜻은 '괴롭게 하다', '참혹한 일을 당하다'라는 뜻
- ◎아나니아(Ananiah)의 뜻은 '야훼는 은혜로우시다', '야훼께서 나타나심', '야훼께서 보호하심'이라는 뜻
- ◎아나뚓(Anathoth)의 뜻은 '여신 아나도의 장소', '응답'이라는 뜻이다.
- ◎아달리아(Athaliah, Adalia)의 뜻은 '야훼는 위대하시다', '영예로운', '야훼는 존귀하시다'라는 뜻
- ◎아담(Adam)의 뜻은 '붉은 흙', '사람'이라는 뜻
- ◎아도나이(Adonai)의 뜻은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다.
- ◎아도니아(Adonijah)의 뜻은 '야훼는 주'라는 뜻
- ◎아라랏산(Ararat)의 뜻은 '거룩한 땅', '창조'라는 뜻
- ◎아론(Aaron)의 뜻은 '고상함'이라는 뜻
- ◎아르박삿(Arpachshad)의 뜻은 '영역'이라는 뜻이다.
- ◎아르켈라오(Archelaus)의 뜻은 '백성을 다스림', '지배자'라는 뜻이다.
- ◎아마지야(Amaziah)의 뜻은 '야훼께서 맡으셨다'라는 뜻이다.
- ◎아멘(Amen)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 지소서', '그렇습니다'라는 뜻이다.
- ◎아멜렉(Amalek)의 뜻은 '골짜기에 사는 자'라는 뜻

- ◎아모리(Amorites)의 뜻은 '고지인'이라는 뜻이다.
- ◎아모스(Amos)의 뜻은 '주님을 짊어진 사람'이라는 뜻이다.
- ◎아몬(Amon)의 뜻은 '충실한 자', '숨어 있는 자'라는 뜻이다.
- ◎아므람(Amram)의 뜻은 '고귀한 백성', '찬양받는 백성'이라는 뜻
- ◎아벨(Abel)의 뜻은 '숨', '증기', '목장'이라는 뜻
- ◎아벳느고(Abednego)의 뜻은 '느고의 종'이라는 뜻
- ◎아브(Ab~)의 뜻은 '아버지는 ~이다', '~의 아버지'라는 뜻이다.
- ◎아브넬(Abner)의 뜻은 '아버지는 등불'이라는 뜻
- ◎아브라함(Abraham)의 뜻은 '백성의 아버지'라는 뜻
- ◎아브람(Abram)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다.
- ◎아비가일(Abigail)의 뜻은 '내 아버지가 기뻐하심'이라는 뜻
- ◎아비나답(Abinadab)의 뜻은 '내 아버지는 존귀하시다'라는 뜻이다.
- ◎아비멜렉(Abimelech)의 뜻은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
- ◎아비삭(Abishag)의 뜻은 '아버지는 방랑자'라는 뜻이다.
- ◎아비새(Abishai)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이새'라는 뜻
- ◎아비아(Abijah)의 뜻은 '내 아버지는 야훼이시다'라는 뜻이고 아비얌이라고 구약 성서에 나와 있다.
- ◎아비얌(Abijam)의 뜻은 '내 아버지는 야훼이심'이라는 뜻이다.
- ◎아비후(Abihu)의 뜻은 '그는 아버지이시다'라는 뜻
- ◎아비훗(Abihud)의 뜻은 '아버지는 영광이시다'라는 뜻이다.
- ◎아사(Asa)의 뜻은 '치료하는 사람', '치료'이라는 뜻

- ◎아사야(Asaiah)의 뜻은 '하느님이 행하심'이라는 뜻이다.
- ◎아사헬(Asahel)의 뜻은 '하느님이 만드심'이라는 뜻이다.
- ◎아삽(Asaph)의 뜻은 '모으는 자'라는 뜻이다.
- ◎아셀(Asher)의 뜻은 '기쁨', '행복', '쾌락'이라는 뜻
- ◎아수르(Asshur)의 뜻은 '평원'이라는 뜻이다. 앓수르, 아시리아, 앓시리아 등으로 기록되었다.
- ◎아시아(Asis)의 뜻은 '중앙'이라는 뜻이다.
- ◎아얄론(Aijalon)의 뜻은 '사슴의 들판'이라는 뜻
- ◎아우구스토(Augustus)의 뜻은 '크다'라는 뜻이다.
- ◎아이(Ai)의 뜻은 '폐허', '멸망'이라는 뜻
- ◎아졸(Azor)의 뜻은 '돕는자'라는 뜻이다.
- ◎아퀼라(Aquila)의 뜻은 '독수리'라는 뜻
- ◎아폴로(Apollos)의 뜻은 '침략자'라는 뜻
- ◎아하즈(Ahaz)의 뜻은 '야훼께서 사로잡으셨다'라는 뜻
- ◎아하지야(Ahaziah)의 뜻은 '야훼가 붙잡으심', '야훼가 소유하심'이라는 뜻이다.
- ◎아합(Ahab)의 뜻은 '아버지의 형제'라는 뜻
- ◎아히도벨(Ahithophel)의 뜻은 '어리석음의 형제'라는 뜻
- ◎아히야(Ahijah)의 뜻은 '야훼의 형제'라는 뜻
- ◎아히캄(Ahikam)의 뜻은 '내 형제가 일어섰다'라는 뜻이다.
- ◎아히툼(Ahitub)의 뜻은 '내 형제는 선량하다'라는 뜻이다.
- ◎아힘(Achim)의 뜻은 '지혜'라는 뜻이다.

- ◎악볼(Achbor)의 뜻은 '쥐'라는 뜻이다.
- ◎안나(Anna)는 한나의 그리스어 표기로 '은총'이라는 뜻
- ◎안드레아(Andrew)의 뜻은 '남자답다'라는 뜻
- ◎안티오키아(Anrtioch)의 뜻은 '병거'라는 뜻
- ◎알렉산더(Alexander)의 뜻은 '인간의 옹호자'라는 뜻이다.
- ◎알렐루야(Alleluia)는 "하느님을 찬미하여라"라는 뜻이다.
- ◎알패오(Alphaeus)의 뜻은 '사유'라는 뜻이다.
- ◎암논(Amnon)의 뜻은 '신실한'이라는 뜻이다.
- ◎암몬(Ammonites)의 뜻은 '근친의', '친족의',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 ◎암미(Ammi)의 뜻은 '나의 백성'이라는 뜻이다.
- ◎암미나답(Ammiadab)의 뜻은 '내 혈족은 고귀하다'라는 뜻이다.
- ◎암미엘(Ammiel)의 뜻은 '하느님이 내 친척이시다'라는 뜻이다.
- ◎압돈(Abdon)의 뜻은 '예배하다'라는 뜻이다.
- ◎압살롬(Absalom)의 뜻은 '평강의 아버지'라는 뜻
- ◎애굽(이집트)(Egypt)의 뜻은 '검은 땅'이라는 뜻이다.
- ◎야고보(James)는 '발꿈치를 잡다'라는 야곱의 희랍어 표기
- ◎야곱(Jacob)의 뜻은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이다.
- ◎야렛(Jared)의 '내려가다'라는 뜻이다.
- ◎야베스(Jabesh, Jaabez)의 뜻은 '마른', '건조한', '그는 고통을 준다'라는 뜻이다.
- ◎야벳(Japheth)의 뜻은 '야훼께서 확장하심'이라는 뜻

- ◎야벡강(Jabbok)의 뜻은 '흐르다'라는 뜻
- ◎야이르(Jair)의 뜻은 '하느님이 교화시킴'이라는 뜻이다.
- ◎야훼(Yahweh, Jahve)의 뜻은 '나는 바로 나다', '나는 있는 자 그로다'라는 뜻이다.
- ◎야훼삼마(Yahweh (Jahve) Shammah)의 뜻은 '야훼, 여기 계시다'라는 뜻이다.
- ◎야훼이레(Yahweh (Jahve) Jirreh)의 뜻은 '야훼께서 마련해 주신다', '야훼께서 이 산에 마련해 주신다', '야훼의 산에 장만되어 있다', '야훼의 산에서 그가 나타나신다'라는 뜻이다.
- ◎얀네(Jannes)의 뜻은 '조롱'이라는 뜻
- ◎얌브레(Jambres)의 뜻은 '지혜로운 자'라는 뜻
- ◎에노스(Enosh)의 뜻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 ◎에녹(Enoch)의 뜻은 '봉헌된 자', '시작하는 자'라는 뜻
- ◎에덴(Eden)의 뜻은 '광야', '평평한 땅', '비옥한 들', '즐거움'이라는 뜻이라고 추정됨. 수메리아어이다.
- ◎에돔(Edom)의 뜻은 '붉다'라는 뜻이다.
- ◎에드레이(Edrei)의 뜻은 '강한', '곡물의 땅'이라는 뜻
- ◎에발산(Ebal)의 뜻은 '벌거벗다'라는 뜻
- ◎에벨(Eber, Epher)의 뜻은 '저 쪽', '맞은 편', '어린 사슴', '영양'이라는 뜻이다.
- ◎에브라임(Ephraim)의 뜻은 '풍성함', '아들의 탄생'이라는 뜻
- ◎에비아달(Abiathar)의 뜻은 '아버지는 부유하시다', '풍성한 아버지'라는 뜻
- ◎에사오(Esau)의 뜻은 '털 복숭이'라는 뜻이다.
- ◎에스델(Esther)의 뜻은 '별'이라는 뜻
- ◎에시온게벨(Ezion-Geber)의 뜻은 '가디안 수풀', '거인의 등'이라는 뜻
- ◎에제키엘(Ezekiel)의 뜻은 '하느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

- ⊙에즈라(Ezra)의 뜻은 '도움'이라는 뜻
- ⊙에파타(Ephata)의 뜻은 '열려라'라는 뜻이다.
- ⊙에페소(Ephesus)의 뜻은 '인내'라는 뜻
- ⊙에훗(Ehud)의 뜻은 '연합하다'라는 뜻
- ⊙엔게디(Engedi)의 뜻은 '염소 새끼의 샘'이라는 뜻이다.
- ⊙엔도르(En-dor)의 뜻은 '거주지의 샘'이라는 뜻
- ⊙엔로겔(En-Rogel)의 뜻은 '빨래하는 자', '방랑자', '정탐꾼의 샘'이라는 뜻이다.
- ⊙엔학코레(En-Hakkore)의 뜻은 '하느님께 부르짖어서 솟은 샘'이라는 뜻이다.
- ⊙엘라(Elah, Ela)의 뜻은 '상수리나무'라는 뜻이다.
- ⊙엘로힘(Elohim)의 뜻은 '능력 있는 자'라는 뜻이다.
- ⊙엘론(Elon)의 뜻은 '떡갈나무', '테레빈 나무'라는 뜻이다.
- ⊙엘르아잘(Eleazar)의 뜻은 '하느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이다.
- ⊙엘리(Eli)의 뜻은 '야훼는 존귀하시다', '나의 하느님'이라는 뜻
- ⊙엘리멜렉(Elimelech)의 뜻은 '하느님은 왕이시다'라는 뜻
- ⊙엘리바즈(Eliphaz)의 뜻은 '하느님은 승리하신다'라는 뜻이다.
- ⊙엘리사(Elisha)의 뜻은 '야훼는 구원자'라는 뜻
- ⊙엘리사벳(Elizabeth)의 뜻은 '하느님은 나의 맹세'라는 뜻
- ⊙엘리아킴(Eliakim)의 뜻은 '하느님께서 확립하신다'라는 뜻이다.
- ⊙엘리압(Eliab)의 뜻은 '하느님은 내 아버지시다'라는 뜻이다.
- ⊙엘리야(Elijah)의 뜻은 '야훼는 하느님이시다'라는 뜻

- ◎엘리에젤(Eliezer)의 뜻은 '하느님의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이다.
- ◎엘리후(Elihu)의 뜻은 '그는 나의 하느님이시다'라는 뜻이다.
- ◎엘리훗(Eliud)의 뜻은 '하느님은 나의 영광이시다'라는 뜻이다.
- ◎엘카나(Elkanah)의 뜻은 '하느님께서 소유하신다'라는 뜻
- ◎엠마오(Emmaus)의 뜻은 '따뜻한 우물'이라는 뜻
- ◎엣세네(Essene)의 뜻은 '신앙심이 깊은 자'라는 뜻
- ◎여고니야(Jeconiah)의 뜻은 '야훼께서 맡긴 자', '야훼께 위임 받은 자'라는 뜻이다. 여호야긴의 별칭이며 고니야로도 표기된다.
- ◎여디디아(Jedidiah)의 뜻은 '야훼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이다.
- ◎여로보암(Jeroboam)의 뜻은 '백성이 번성함'이라는 뜻
- ◎여로함(Jeroham)의 뜻은 '그가 긍휼히 여겨주시기를'이라는 뜻이다.
- ◎여분네(Jephunneh)의 뜻은 '야훼께서 돌이키셨다'라는 뜻이다.
- ◎여호람(Jehoram)의 뜻은 '야훼는 존귀하시다', '야훼는 높으시다'라는 뜻
- ◎여호사밧(Jehoshaphat)의 뜻은 '야훼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
- ◎여호수아(Joshua)의 뜻은 '하느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
- ◎여호아스(Joash)의 뜻은 '주여 보호하소서'라는 뜻이다.
- ◎여호아하즈(Jehoahaz)의 뜻은 '야훼께서 불드심', '야훼께서 지탱하심'이라는 뜻이다.
- ◎여호야긴(Jehoiachin)의 뜻은 '야훼가 세우시리라'라는 뜻이다.
- ◎여호야킴(Jehoiakim)의 뜻은 '야훼가 일으키실 것이다'라는 뜻이다.
- ◎여호와(Jehovah)의 뜻은 '언약의 하느님'이라는 뜻이다.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하느님 야훼의 이름이다. 이는 '야훼'의 자음에 '아도나이'의 모음을 결합시켜 만든 합성어이다"
- ◎예레미야(Jeremiah)의 뜻은 '야훼께서 세우시다', '야훼여 들어 올리소서'라는 뜻

- ◎예루살렘(Jerusalem)은 '평화의 기초', '평화의 터전'이라는 히에루살렘이라는 아람어 명칭을 희랍어로 음역한 것이다.
- ◎예리고(Jericho)의 뜻은 '종려의 성읍', '달의 성읍'이라는 뜻
- ◎예수(Jesus)의 뜻은 '하느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이다.
- ◎예후(Jehu)의 뜻은 '그는 야훼 시다'라는 뜻
- ◎오네시모(Onesimus)의 뜻은 '유익함'이라는 뜻
- ◎오드니엘(Othniel)의 뜻은 '하느님은 힘이시다'라는 뜻
- ◎오르바(Orpah)의 뜻은 '목', '고집이 많음'이라는 뜻
- ◎오므리(Omri)의 뜻은 '야훼께 예배하는 자'라는 뜻
- ◎오바디아(Obadiah)의 뜻은 '야훼의 종'이라는 뜻
- ◎오벳(Obed)의 뜻은 '종'이라는 뜻이다.
- ◎오셈(Ozem)의 뜻은 '강함'이라는 뜻이다.
- ◎오헬(Ohel)의 뜻은 '장막'이라는 뜻이다.
- ◎오홀라(Ohholah)의 뜻은 '그 여자의 천막'이라는 뜻이다.
- ◎오홀리바(Oholibah)의 뜻은 '내 천막이 그 안에 있다'라는 뜻이다.
- ◎온(On)의 뜻은 '힘 있는 자', '태양성'이라는 뜻이다.
- ◎옵시(Vophsi)의 뜻은 '부유한'이라는 뜻이다.
- ◎와스디(Vashti)의 뜻은 '아름다운 여성', '가장 좋은 것'이라는 뜻
- ◎요게벳(Jochebed)의 뜻은 '야훼는 영광이시다'라는 뜻
- ◎요나(Jonah)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
- ◎요나단(Jonathan)의 뜻은 '야훼께서 주신다'라는 뜻

- ◎요담(Jotham)의 뜻은 '야훼는 완전하심'이라는 뜻이다.
- ◎요람(Joram)의 뜻은 '야훼는 높으심'이라는 뜻이다. 여호람으로 구약 성서에 나와 있다.
- ◎요르단강(Jordan)의 뜻은 '영원한 강', '빨리 흐르는 시내', '내려옴'이라는 뜻
- ◎요빠(Joppa)의 뜻은 '아름다움'이라는 뜻
- ◎요셉(Joseph)의 뜻은 '하느님께서 더하신다'라는 뜻
- ◎요시아(Josiah)의 뜻은 '야훼께서 도와주신다', '주여 보호하소서'라는 뜻
- ◎요아스(Joash)의 뜻은 '야훼께서 주셨다'라는 뜻
- ◎요안나(Joanna)의 뜻은 '야훼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뜻
- ◎요압(Joab)의 뜻은 '야훼는 아버지이심', '야훼는 하느님이시다'라는 뜻이다.
- ◎요아킴(Joiakim)의 뜻은 '야훼께서 세우심'이라는 뜻이다.
- ◎요엘(Joel)의 뜻은 '야훼는 하느님이시다'라는 뜻
- ◎요한(John, Joannes)의 뜻은 '야훼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
- ◎욘(Job)의 뜻은 '울부짖는 자', '핍박받는 자', '회개한 자',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
- ◎우르(Ur)의 뜻은 '빛', '밝음', '불꽃'이라는 뜻
- ◎우리아(Uriah)의 뜻은 '하느님은 빛이심'이라는 뜻
- ◎우찌야(Uzziah)의 뜻은 '야훼는 나의 힘', '야훼의 능력'이라는 뜻
- ◎유니케(Eunice)의 뜻은 '유명한 정복자'라는 뜻
- ◎유다(Judah)의 뜻은 '찬송', '찬양'이라는 뜻
- ◎유디코(Eutyclus)의 뜻은 '복되다', '행복한'이라는 뜻
- ◎유딧(Judith)의 뜻은 '유대 여인'이라는 뜻이다.

- ◎올리오(Julius)의 뜻은 '감았다'라는 뜻
- ◎이가봇(Ichabod)의 뜻은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이다.
- ◎이갈(Igal)의 뜻은 '하느님은 보복하실 것이다'라는 뜻이다.
- ◎이고니온(Iconiun)의 뜻은 '양의 가슴', '형상을 닮은'이라는 뜻
- ◎이두매(Idumea)의 뜻은 '에돔의 영토'라는 뜻이다.
- ◎이드로(Jethro)의 뜻은 '탁월', '유명'이라는 뜻이다.
- ◎이사악(Issac)의 뜻은 '웃음', '비웃음'이라는 뜻이다.
- ◎이사야(Isaiah)의 뜻은 '아훤는 구원'이라는 뜻
- ◎이새(Jesse)의 뜻은 '주의 선물'이라는 뜻
- ◎이세벨(Jezebel)의 뜻은 '고상한'이라는 뜻
- ◎이스라엘(Israel)의 뜻은 '하느님과 겨루어 이긴자', '하느님이 싸운다', '하느님은 강하다'라는 뜻이다.
- ◎이스마엘(Ishamael)의 뜻은 '하느님께서 들으심'이라는 뜻
- ◎이스보셋(Ishbosheth)의 뜻은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뜻
- ◎이스위(Lishui)의 뜻은 의 뜻은 '같은 것'이라는 뜻이다.
- ◎이싸갈(Issachar)의 뜻은 '자비를 베푸소서!', '값을 주실 것이다'라는 뜻
- ◎이즈르엘(Jezreel)의 뜻은 '하느님께서 씨를 뿌리신다'라는 뜻
- ◎임마누엘(Immanuel, Emmanuel)의 뜻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다.
- ◎임다(Jephthat)의 뜻은 '그는 연다', '열리다', '하느님께서 여신다'라는 뜻이다.
- ◎입산(Ibzan)의 뜻은 '찬란한'이라는 뜻이다.
- ◎자구르(Zaccur)의 뜻은 '순결'이라는 뜻이다.



- ◎토마(Thomas)의 뜻은 '쌍둥이'라는 뜻
- ◎토비트(Topheth)의 뜻은 '불사르는 곳'이라는 뜻이다.
- ◎티매오(Timaios)의 뜻은 '존경', '명예'라는 뜻이다.
- ◎티베리오(Tyberius)의 뜻은 '좋은 관찰'이라는 뜻이다.
- ◎티아디라(Thyatira)의 뜻은 '티아의 성읍'이라는 뜻
- ◎파라오(Pharaoh)의 뜻은 '큰집'이라는 뜻이다.
- ◎파트모스(Patmos)의 뜻은 '송진'이라는 뜻
- ◎페베(Phoebe)의 뜻은 '순결'이라는 뜻
- ◎필라델피아(Philadelphia)의 뜻은 '형제애'라는 뜻
- ◎필레몬(Philemon)의 뜻은 '사랑을 간직한 자'라는 뜻
- ◎필립보(Philip)의 뜻은 '말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
- ◎필립비(Philippi)의 뜻은 '말'이라는 뜻
- ◎하갈(Hagar)의 뜻은 '이주하다', '도망하다'라는 뜻
- ◎하깨(Haggai)의 뜻은 '축제', '즐거움'이라는 뜻
- ◎하길라(Hachilah)의 뜻은 '건조한 언덕'이라는 뜻이다.
- ◎하란(Haran)의 뜻은 '가두', '통로', '대상', '무역로 교차점', '산악의 사람'이라는 뜻
- ◎하몰(Hamor)의 뜻은 '나귀'라는 뜻이다.
- ◎하바꼭(Habakkuk)의 뜻은 '박하', '포옹'이라는 뜻이다.

- ◎하세롯(Hazeroth)의 뜻은 '뜰', '마을', '둘레'라는 뜻
- ◎하솔(Hazor)의 뜻은 '둘레', '취락'이라는 뜻
- ◎하시딤(Hasidim)의 뜻은 '경건한 자들', '율법에 충실한 자들'이라는 뜻
- ◎하와(Eve, Hawwah)의 뜻은 '생명', '여자', '살다'라는 뜻
- ◎한나(Hanna)의 뜻은 '은혜', '은총'이라는 뜻
- ◎함(Ham)의 뜻은 '검다', '뜨겁다'라는 뜻이다.
- ◎헤로데(Herod)의 뜻은 '영웅의 아들'이라는 뜻
- ◎헤로디아(Herodias)의 뜻은 '영웅의 딸'이라는 뜻
- ◎헤로디온(Herodion)의 뜻은 '거짓 영웅'이라는 뜻이다.
- ◎헤르몬산(Hermon)이라는 뜻은 '신성한 산', '봉헌된 장소'라는 뜻
- ◎헤만(Heman)의 뜻은 '충실', '신실'이라는 뜻
- ◎헤브론(Hebron)의 뜻은 '연합', '동맹', '친교'라는 뜻
- ◎헤스론(Hezron)의 뜻은 '울타리'라는 뜻이다.
- ◎헬라(Hellas, Helah)의 뜻은 '목걸이', '거품이 일어남'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거품이 일어남'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Hellas)는 그리스를 가르키는 말이다.
- ◎헷(Heth)의 뜻은 '두려움', '공포'라는 뜻이다. 헷(Heth) 족속을 'Hittites'라고 한다.
- ◎호렙(Horeb)의 뜻은 '건조한 곳'이라는 뜻이다.
- ◎호르마(Hormah)의 뜻은 '봉헌', '완전한 멸망'이라는 뜻
- ◎호르산(Hor)은 호르 자체가 '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 ◎호리(Hori)의 뜻은 '자유로운'이라는 뜻이다.
- ◎호산나(Hosanna)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뜻이다.

- ◎호세아(Hosea, Hoshea)의 뜻은 '야훼는 구원하신다'라는 뜻
- ◎홉니(Hophni)의 뜻은 '손바닥'이라는 뜻이다.
- ◎홍해(紅海)(Red Sea)의 뜻은 red sea로 '갈색 바다'라는 뜻
- ◎후르(Hur)의 뜻은 '고귀', '빛남'이라는 뜻
- ◎후새(Hushai)의 뜻은 '급속'이라는 뜻이다.
- ◎홀다(Huldah)의 뜻은 '두더지'라는 뜻이다.
- ◎히람(Hiram)의 뜻은 '형제가 존귀케 되었다', '높이 들린 자의 형제'라는 뜻
- ◎히브리(Hebrew)의 뜻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이다.
- ◎히엘(Hiel)의 뜻은 '하느님은 살아 계시다'라는 뜻이다.
- ◎히즈키야(Hizekiah)의 뜻은 '야훼는 강하시다'라는 뜻
- ◎힐키야(Hilkiah)의 뜻은 '야훼는 나의 분깃이시다'라는 뜻

**구약시대**

**다릭(Daric):** 구약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화폐로 무게는 약 8.4g이며 활과 칼을 든 다리오 1세의 초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스 2장 68절 ~ 69절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즐거이 드리되 역량대로 역사하는 곳간에 드리니 금이 육만 일천 다릭이요 은이 오천 마네요 제사장의 옷이 일백 벌이었던라”

하나님의 역사에 마음이 감동한 바사왕 고레스는 바벨론 점령 후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해방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명하였습니다(스 1:1-4). 이에 본국으로 귀환한 백성은 성전 재건작업에 착수하였는데, 오랜 포로생활 끝에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성전건축을 위해 온 마음으로 즐거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금이 육만 일천 다릭이라고 하였는데, 이를 무게로 환산하면 512,400g입니다. 이해를 돕고자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금 1돈(3.75g)이 179,300원 정도니(2009.11.25일 기준) 당시 드린 예물은 245억 정도에 해당합니다.

**신약시대**

1. 무게로 달 수 있는 단위

**달란트(Talent):** 구약시대에는 무게를 재는 최대의 단위로 사용되었으나 신약시대로 오면서 무게뿐만 아니라 화폐의 단위로도 사용되었습니다. 1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하는데, 이는 노동자가 16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마 18장 21절 ~ 35절 “...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계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계할 때에 일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일만 달란트 빚진 우리의 중한 죄를 용서해주셨으니 겨우 백 데나리온(100일 품삯)에 지나지 않은 형제의 적은 죄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일만 달란트는 일꾼이 16만 년을 매일 일해야 벌 수 있는 엄청난 금액입니다(성경상식 ‘일백 데나리온과 일만 달

란트' 편 참고).

**므나(Menah):** 금이나 은과 같은 귀금속의 중량을 재는 단위였으며 헬라와 로마에서는 화폐 단위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축복받는 믿음에 대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종들에게 돈을 나누고 돌아온 후에 회계하는 것' 으로 비유하셨는데, 이때 주인이 나누어 준 돈의 단위가 '므나' 였습니다(눅 19:11-27). 1 므나는 100드라크마로 노동자가 100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입니다.

## 2. 은화단위

**드라크마(Drachma):** 헬라의 은화이며 무게는 약 4.3g입니다. 로마의 데나리온과 비슷한 가치이며 세겔의 4분의 1에 해당합니다(눅 19:8-10). 이스라엘에서는 결혼할 때 남자가 사랑의 증표로 드라크마 10개를 꿰어 머리에 돌렸다고 합니다.

**데나리온(Denarius):** 로마의 은화이며 무게는 약 3.8g입니다. 1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고(마 20:2), 로마 병졸의 하루 급여에 해당하는 액수였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으로 바친 돈이었으며 가이사의 초상과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마 22:20-21).

눅 10장 30절 ~ 3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 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선한 사마리아 인이 강도 만난 자를 위해 선뜻 내 놓은 2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이들을 꼬박 일해 벌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로 미루어 사마리아 인이 큰 호의를 베풀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겔(Shekel):** 히브리어로 '무게를 달다' 는 뜻입니다. 원래는 바벨론 등지에서 사용된 무게단위였는데 후에 화폐 단위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세겔은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이스라엘은 한 세겔을 약 11.4g로 통용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주조한 세겔은 성전 세겔(약 9.8g), 일반 세겔(약 11.4g) 궁중 세겔(약 13g)로 구별됩니다. 일반 세겔은 4드라크마와 동등한 값어치가 있는데 이는 노동자가 나흘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입니다.

마 17장 24절 ~ 27절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 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아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 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은 성인이 되면서부터 성전에 성전세를 지급하였는데(출 30:13-16) 신약시대에 와서도 이는 이어져 왔습니다. 성전세는 나라에 바치는 세금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위한 헌금이었으며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성전유지를 위해 납세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유대인들의 오해를 사지 않고자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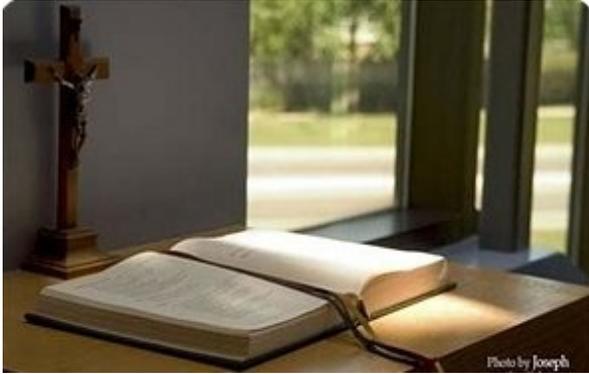
그 입에서 얻은 한 세겔을 내라' 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전세로 지급한 반 세겔은 노동자의 이틀 품삯이었 습니다.

### 3. 동전 단위

**앗사리온(Assarion):** 로마의 소액 동전이며 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해당합니다. 성경에는 참새를 파는 금 액으로 인용되었습니다(마 10:29, 눅 12:6).

**고드란트(Godrants):** 로마의 최소 동전이며 그리스의 최소 청동화인 렙돈의 2배에 해당합니다(막 12:42). 로마에서는 하루 입욕료로 통용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한 가난한 과부가 연보 궤에 넣은 금액으로 기록되었 습니다(막 12:41-44). 과부는 적은 금액이지만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렸고 예수께서는 그 믿음을 심 히 기뻐하시며 칭찬하셨습니다.

**렙돈(Lepton):** 헬라의 최소 동전이며 고드란트의 2분의 1, 앗사리온의 8분의 1, 데나리온(노동자의 하루 품 삯)의 128분의 1에 해당합니다(눅 21:2, 막 12:42).



교만을 없애달라 요청했지만, 하나님은 "No"하셨죠.  
당신이 없애는 것이 아니라  
네가 포기해야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장애아를 온전케 해달라 매달렸지만, 하나님은 "No"하  
셨죠.  
그 아이의 영혼은 온전하고  
그 몸은 일시적일 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인내심을 달라 요청했을 때, 하나님은 "No"하셨죠.  
인내는 고난의 부산물이니  
주는 것이 아니라 땀으로 수고하여 거두는 것이라 하셨습  
니다.

행복을 달라 요청했지만, 하나님은 "No"하셨죠.  
나는 네게 축복을 주노니  
행복은 네게 달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으로부터 꺼내달라 요청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No"하셨죠.

고통은 세상 관심에서 끌어내어  
내 앞으로 더 가까이 인도하는 나의 선물이라 하셨습니  
다.

내 영혼을 키워달라 요청했지만, 하나님은 "No"하셨습니  
다.

가지치기로 더 많은 열매가 맺히도록 돕겠지만  
너는 스스로 자라야 한다고 말하셨죠.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연에서는 공감의 달리는 쪽이지만,  
다른 구절들은 정말... 나눠보고저 올려봅니다. ^^



(그림설명: CERN 건물 앞에 있는 시바 신의 동상)

천문학적인 자본을 들여 프랑스와 스위스 국경지대 지하에 거대 강입자 가속기(LHC)를 건설한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CERN)가 파괴의 신으로 알려진 힌두교 시바 신을 숭배하고 있다는 기괴한 주장이 인터넷에 등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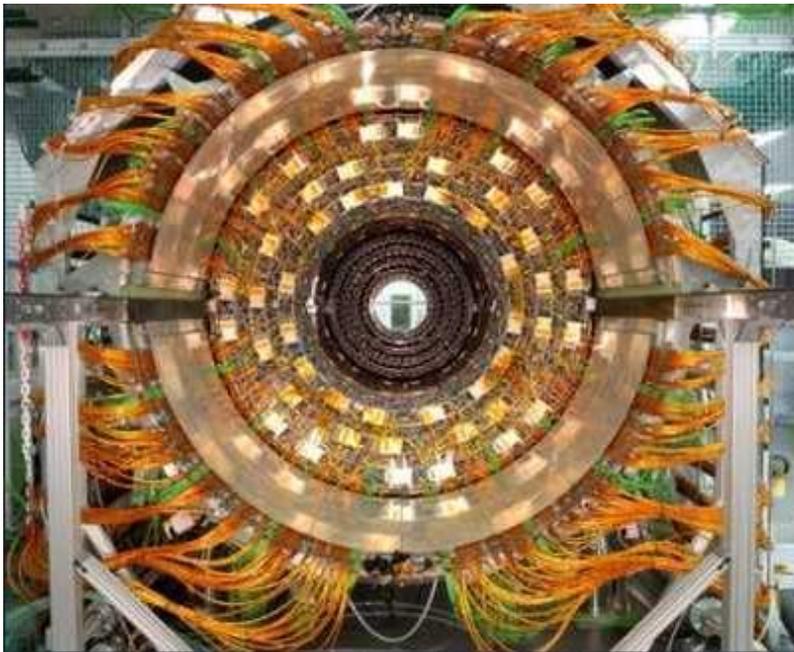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CERN 본사를 방문한 네티즌 유씨에일리언은 연구소 건물 앞에 서 있는 키가 2m가 넘는 시바 신의 동상을 보고 의아해 하다 문제의 동상이 소설 '다빈치코드'에 등장하는 수수께끼처럼 어떤 숨은 뜻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뇌리를 스쳤다.



(그림설명: CERN 건물 안에 있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조형물)

힌두교 3신 중 암흑세계를 관장하는 시바 신은 분노의 신, 혹은 파괴의 신으로 불리는 두려운 존재이지만 세상 모두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사악한 것들만을 파괴해 다시 만물을 깨끗이 재생시키는 가교 역할을 하는 신으로 알려졌다.

시바는 힌두교 제일 신 브라마가 다시 세상을 창조할 때 까지 영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때문에 힌두교에서 신도들이 가장 무서워하면서도 가장 많이 숭배하는 신으로 유명하다.



(그림설명: 거대 강입자 가속기)

CERN의 성격상 전혀 맞지 않는 시바 신상을 보고 의아해 한 그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더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여러 개의 희귀 언어로 장식된 유리로 된 대형 조형물이 파란색 레이저로 보호되고 있는 모습이었다.

조형물에는 알 수 없는 고대 인도어와 중국어, 그리고 아랍어 등으로 쓰인 기괴한 문장들이 있었는데 그는 문제의 고대 인도어가 힌두교의 베다와 우파니샤드 경전 연구 학자들만 읽을 수 있는 '신들의 언어' 산스크리트라는 것을 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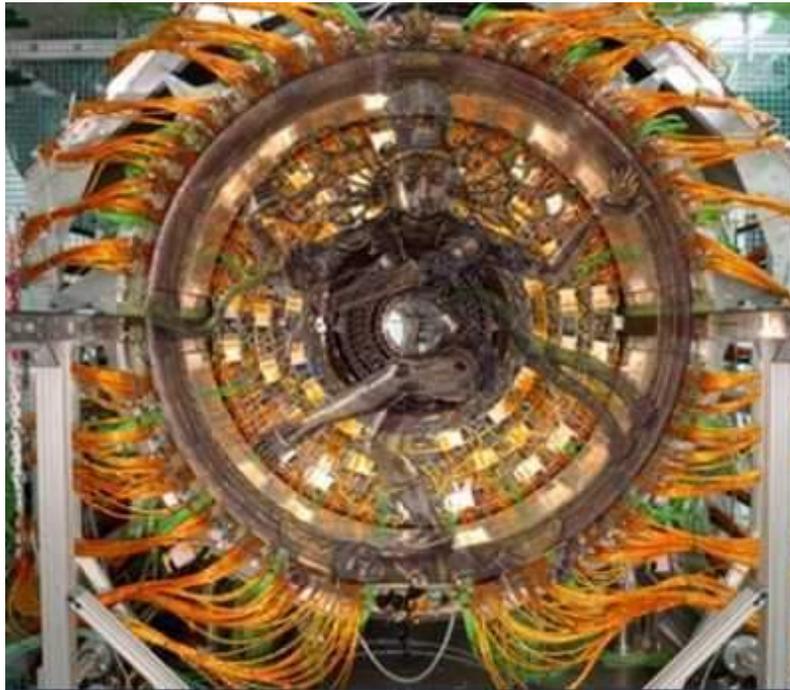


(그림설명: 시바 신)

그는 조형물에 있는 문장들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 하다 시바 신의 동상 배경에 있는 원형 조형물이 거대 강입자 가속기와 유사한 것을 발견하고 문제의 문장이 다름 아닌 거대 강입자 가속기를 사용해 시바 신을 현 세상으로 부를 때 외치는 주문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졌다.

일부 네티즌들은 연구소 로고가 묵시록의 악마의 수 '666'을 그대로 변형한 디자인이라고 주장하는데 CERN은 과연 유씨에일리언의 주장대로 시바 신을 숭배해 거대 강입자 가속기로 블랙홀의 출입구를

만들어 시바 신이 현세를 내왕할 수 있게 스타게이트를 만든 것일까?



(그림설명: 시바 신의 이미지와 일치하는 거대 강입자 가속기)

만약 시바 신이 현 세상에 다시 온다면 혹시 타락하고 사악한 인류를 묵시록의 예언 그대로 모두 멸하고 심판해 지구를 깨끗하게 정화해 창조신의 재창조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닐까?

출처 : 괴물딴지

<http://www.ddangi.com/1-1912.html>

관련글 : 아바돈

<http://www.ddangi.com/1-1890.html>



1980년..

에티오피아, 지부티, 에리트레아, 소말리아, 수단, 우간다 등...

거의 모든 아프리카 지역이 가뭄으로 메말랐다.

우간다에서만 50만명의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게 되었고,

거기엔 대부분의 신생아와 어린아이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살아남은 아이들도 차마 사람의 형상으로는 보기 어려울 정도로

피골이 상접하고, 피부색이 변질 되었다. 이들은 제대로 성장할 수 없게 되었다.

어느 목사님이 굶어죽어 가고 있는 어린 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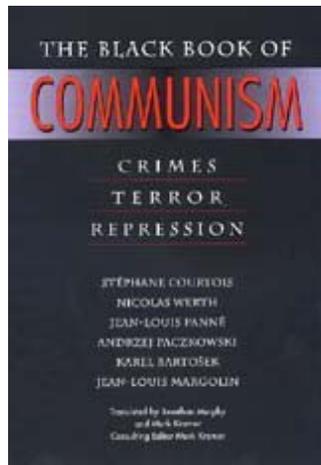
유엔과 자선단체들이 고통받는 아프리카에 식량을 보내 주도록 만들었다는

그 사진...

글 아래 쪽에 좌우정렬 스크롤바로 얼라인먼트를 좀 조정해 주시면 오른쪽 잘림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책 내용을 요약(?)의 스크랩 글인데... 원체 두꺼운 책이라... 스크롤 압박 있지만 내용 보시다 보면... ^^;

소개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비서(祕書)'의 내용이 담긴 책이라... 진위 여부는 읽으시는 분이...



共產主義 흑서 - LE LIVRE NOIR DU COMMUNISME

"An 800-page compendium of the crimes of Communist regimes worldwide, recorded and analyzed in detail by a team of scholars. The facts and figures, some of them well known, other newly confirmed from hitherto inaccessible archives, are irrefutable. The myth of the well intentioned founders - the great Lenin betrayed by his evil heirs - has been laid to rest for good. No one will any longer be able to live in ignorance or uncertainty about the **criminal nature of Communism**, and those who had begun to do so will be forced to remember anew." (from the dust jacket of English edition, 1997)



20세기의 巨惡 공산주의가 과연 누구에 의한, 무엇을 위한, 누구의 운동이었는지 그 뿌리부터 추적해봅시다.

유태인 공산주의자 명단 <http://www.russians.org/communist.html>

**Christian Rakovsky** 유태인 駐佛 소련대사

“아니오, 무슨 비교(秘敎)라 할 것도 없습니다. 실은 정반대요. 내가 아주 명료하게 설명하죠. 마르크스주의는 하

경제적, 정치적 시스템이기 이전에 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음모요. 그리고 오직 혁명만이 유일한 절대적 진리는 오직 혁명에 이르게 하는 철학과 경제, 그리고 정치만이 참된 것이요. 경제나 정치, 혹은 도덕윤리에서 절대적 주관적인 것이라고 합시다 - 는 존재하지 않소. 과학적 추론에 의하면 그것은 진리가 될 수도 있고 오류가 될 수. 하지만 혁명적 변증론을 신봉하는 우리에게 마르크스주의는 유일무이한 절대 진리요. 이것은 마르크스를 비롯하여 혁명가들에게 공통된 것이었소.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신념에 따라 행동합니다.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치밀한 논의 의도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한 어떤 이에게 레닌은 “내 생각엔 진리요” 라고 대답했소. 당신: 가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고 생각하오? 말하건데, 레닌에게 그것은 현실의 모든 것이었소. 혁명이라는 절대적 진리 외의 모든 진리는 상대적인 것들이었소. 마르크스는 천재였습니다. 그가 단지 자신의 일을 자본주의에 대한 심층적 국한시켰더라도 그의 학문적 업적은 대단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마르크스가 달인의 경지에 도달하는 대목은 에 불러들인 아이러니요. “공산주의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그 승리를 안겨줄 것이기 때문이 르크스는 고압적인 태도로 선언하지 않았소? 이보다 더한 아이러니가 있겠소? 기발한 곡예사의 숨씨로 인간을 의 하는 개인으로 변모시킨 그는 사람들이 그의 말을 믿게끔 하기 위해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부터 주관성을 떼어 같은 교묘한 술수가 그가 말한 자본주의가 현실이며 거기에 내재한 모순 때문에 결국 공산주의가 승리할 수 밖에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해 그가 사용한 방법이었소. 이는 homo economico에 내재하는 태생적인 어리석음이 C 부터는 마르크스가 주장한 것과 같은 지속적인 모순이 생겨나지 않기 때문이오. Homo sapiens를 homo stultu 키기 위해서는 인류를 동물학적 사다리의 맨 끝으로, 말하자면 짐승의 수준으로 끌어내릴 수 있을 만한 마력을 소 것을 의미하오. 오직 자본주의가 정점에 이른 시대에 짐승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진 인류가 존재해야만 ‘모순+시간 의’ 라는 예언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오. 그거 참, 당신한테만 하는 얘긴데 이런 비의(祕意)에 입회한 우리는 루비 위에 적힌 선전 문구를 보면서 터져 나오는 웃음을 주체할 수가 없소. 아마도 우리처럼 마르크스 역시 저승에서 : 한 인류를 향해 그의 턱수염 너머로 마음껏 비웃음을 터뜨리고 있을 것이오. 전술적인 이유 때문에 마르크스는 지 기원에 대해서는 사람들을 기만하지만 그 폐해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오. 마르크스는 애초부터 그 모 생겨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심화되며 결국은 모든 생산 활동이 공산주의 승리의 바로 전단계인 무정부적 . 르게 되는지 잘 알고 있었소... 그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본주의의 모순을 : 사람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오.”

#### Pope Pius XI (1922-1939)

"그 사악함과 간교함에 있어 인류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공산주의 이념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데는 궁 거짓된 선전선동 외에도 또 다른 원인이 있다. 공산주의는 하나로 통일된 어떤 중앙권력의 조종 하에 여러 국가의 와 특성에 따라 교묘하게 변형된 형태로 전파된다. 공산주의를 퍼뜨리는 핵심세력의 손끝에는 막대한 금융자원과 체들, 조직들, 국제기구들, 철저하게 훈련된 공작원들, 언론사, 출판사, 영화사, 연극무대, 라디오, 각급학원들, 그 이 놓여 있다. 오랜 시간에 걸친 이 거대한 네트워크의 일관된 노력으로 공산주의 사상은 조금씩 모든 계층 사람들 파고든다. 공산주의의 확산을 설명해주는 또 다른 주된 원인은 공산주의 이념이 불러온 재앙에 대한 세계 주요언론 침묵이다. 우리가 의도적인 침묵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까지 기사화하여 독자들의 기 쓰는 이들 언론이 러시아와 멕시코에서 일어났던 엄청난 비극과 현재 스페인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의 만행에 대해서, 또는 러시아의 공산정권과 같은 거대한 국제공산주의 조직에 대해서는 신기하게 일언반구도 없기 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이유는 이들 언론사들을 지배하는 오컬트세력(프리메이슨) 때문으로 이들의 변함없는 독 다름없이 기독교의 말살과 기독교적인 사회질서의 전복이다... 이들이 퍼뜨리는 공산주의 프로파간다의 해악은 바: 의 눈앞에 있다. 유명한 공산주의 이론가들이 이미 공개적으로 천명했듯이 그들의 목표는 기독교 서구문명과 기독교 살이며 인간, 특히 젊은이들의 마음속으로부터 신에 대한 기억을 추방하는 것이다... 스페인에서 공산주의자들은 그 치는 곳에 있는 모든 성당과 수도원들을 파괴하고 불살랐으며, 그 누구보다 먼저 노동계층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 천 명에 이르는 남녀 성직자들을 잔인하게 학살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이 저지른 만행의 희생자들 대다수는 일 이들은 요즘 시대에 가능하리라고는 도저히 상상조차 못했던 야만적인 방법들로 살해되었다. 꼭 국민의 안녕에 대 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아닌 평범한 사람이라도 양식이 있다면 지금 스페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내일은 . 국가에서 되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몸서리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 개인으로서, 또 한 사회의 일원으로 에게 어느 정도의 속박과 자기절제는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신을 인간의 마음에서 지워보라, 그러면 그들은 그

이르는 대로 그 어떤 끔찍한 만행까지 마다하지 않는 짐승들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다.” (Divini Redemptoris,

\* \* \*

#### Adam 'Spartacus' Weishaupt 유태인 카발리스트, 바이에른 Illuminati 창설

“ ‘평등과 자유는 태고의 원형적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선물받은 근본적인 권리다. 이 평등을 최초로 침해한 것은 였고, 자유를 속박한 것은 권력집단, 혹은 정부라고 하는 것이었다. 서구문명에서 사유재산제도와 정부의 존립기반 인 시민사회의 규범과 제도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그의 태고적 원시상태의 평등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사회를 타도해야하며 마지막으로는 사유재산을 폐지해야 한다.’ 바이스하우스트의 이러한 논리는 프리메이슨을 비롯한 비밀결사(secret society)들의 가장 근원적인 사상이다. 이러한 독소는 하급단계에서 배양되고 고급단계에서는 과 화되며 인터넷서널 공산주의와 사민주의를 통해 이 땅에 실현된다.” (Christina Stoddard, Inquire Within: Tr Serpent)

'빛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 일루미나티는 프랑크푸르트의 로스차일드, 암스테르담의 멘델손과 베르타이머, 함부르크 며, 런던의 골드슈미트 등 18세기 후반 유태인 은행가들이 비밀리에 후원했던 많은 급진적 비밀결사들 가운데 이 의 목표는 기독교에 기초한 유럽의 양시영레짐 타도였다. 계몽주의로 대변되는 세속인본주의와, 자유-평등을 내건 혁명사조의 확산으로 사양길에 접어든 전통적 토지귀족을 밀어내고 국제적인 연결망을 구축한 유태인 금융재벌들 흥 지배계급으로 부상했다. 프랑스대혁명은 그 신호탄이었다.



### Benjamin Disraeli 유태인 최초 영국수상

"당신은 고리타분하고 틀에 박힌 영국 대학의 셋님들이 고대의 파라오들과 느부갓네살, 로마, 그리고 중세시대를 이끈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오?... 수백년 동안의 멸시와 천대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유태인의 두뇌는 유대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소... 나는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유태인의 지성을 말하는 것이오... 이제껏 유럽에서 사조 운동들 중에 유태인들이 주도하지 않은 것은 없었소. 최초의 제주이트는 유태인이었고 지금 서유럽을 경각에 시아의 기묘한 외교정책도 유태인들이 꾸미고 시행하는 것이시오. 또한 영국에는 거의 알려진바 없지만 지금 독일 있는 저 막강한 혁명, 아니 두 번째의 종교개혁운동이라할 만한 이 혁명도 독일의 학계를 점령한 유태인들에 의하는 것이오." (Coningsby, 1844)

"지난번 유럽에서 불길처럼 퍼져나갔던 그 파괴적인 사상(맑시즘, 1848혁명)에서도 유태인들의 흔적을 발견하기란 일이 아니다. 이는 모든 전통과 관습, 귀족계층, 그리고 종교와 사유재산에 대한 반란이다. 기독교의 절멸과 만인고 사유재산의 폐지를 부르짖는 비밀결사들은 혁명정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 모든 조직의 최상부에는 리잡고 있다. 신의 선민은 무신론자들과 힘을 모으고, 부를 축적하는데 비상한 재주를 지닌 자들은 공산주의자들과 다. 신에게 선택받은 이 기묘한 민족은 또한 유럽의 가장 저급한 부류와 기층민 계급을 쓰다듬는다. 왜인가? 그들을 멸시천대하는 저 배은망덕한 기독교 문명을 말살하기 위함이다." (Lord George Bentinck, a Political Biography, 1852)

(Zionism과 국제사회주의 이론의 선구자 유태인 Moses Hess, 그랜드 오리엔트 프리메이슨)

### 클레멘스 폰 메르테르니히 오스트리아 재상

"독일에서 유태인은 혼란과 무질서를 선동하는 주된 불순분자들이며 가장 급진적인 혁명기들이다. 고대의 원한을

에 품은채 그들은 언론인, 문인, 철학자, 지식인, 선동가, 출판가, 그리고 은행가로 활동하고 있다. 언젠가 이들은 불러 올 것이다... 아마도 그들 스스로에 대한 더한 재앙과 함께.” (Pierre F. Rougeyron, Avenir de l'Eglise selon le Plan Divin)

(헤스의 제자 칼 맑스, 유대교 랍비의 손자)

#### Count von Beust 오스트리아 정치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한 유대인이 있었는데 그는 허영심에서인지 1848년 혁명을 즈음하여 그가 몸담고 있던 비밀을 자랑삼아 내게 귀뜸해 주었다. 내용인즉 이제 곧 유럽에서 대대적인 혁명이 일어나 유럽 전역으로 번져나갈 것이다. 그가 그런 얘기를 한 지 한 열흘 뒤 독일 각지에서 대규모 소요사태가 터지기 시작했다. 요즘 ” 억압받는 “해방” 등등을 운운하는 거의 모든 운동들의 배후에는 손가락으로 헤아릴 수 있을 정도의 유대인들이 버티고 있려지지 않은 이들은 유럽의 수많은 비밀결사들에게 지령을 내린다. 지금 우리의 발 밑에는 수천개의 지뢰가 깔려있고 이 지뢰를 설치하는 자들의 대부분은 유대인이다.” (Memoirs of Friedrich Ferdinand Count von Beust, 1

(페르디난드 라살 로센, 유대인 - 독일 사민당 창설)

#### Henri Gougenot des Mousseaux 프랑스 쉬발리에

“모든 이단종파, 영지학, 밀교들, 비밀결사들은 태양과 별들, 그리고 그 별들을 지배하는 정령들과 고대 페르시아 아리만(Ahriman)교로 불렀던 그 악마적인 교리들을 숭배한다. 이들은 가장 추잡한 것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모든 시한다... 칼데아적 카발리즘의 최고 현자들이 행했던 절대적인 독재는 중세 산상의 노인과 그의 암살단에 의해 지 그후 이들의 카발라적 세계관과 윤리체계는 프리메이슨의 실질적 군주들인 유대교의 현자들을 지배해 왔다... 신은

독교도들은 유대군주들의 하수인이 된다. 이들은 세상에 '진보'를 가져온다는 미명하에 유대인의 이 음험하고 주구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들은 불신자들의 아지트가 된 비밀결사에 가담해 그들의 수뇌부에 있는 현자들의 세속인본주의('Annuiti Conceptis - Novus Ordo Seclorum')가 세상을 지배하는 날을 만들기 위해 일한다. 의 얼굴에다 대고 그들의 이런 계획을 말하지만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느날 느긋한 를 박살내는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 카발라의 사탄적 교리를 숭배하는 오컬트결사들의 계획, 즉 폭력으로 기독교는 마각이 엄청난 재난의 모습으로 코 앞에 다가왔을 때, 오로지 그때가서야 사람들은 그들이 그 오랜시간 동안 외면해 왔던 이 거대한 음모와 대면하게 될 것이다.

“이 시대를 규정하는 모든 반기독교적인 운동들에는 유대인의 이름이 봉인되어있다. 세상에서 가장 코스모폴리탄에 인류의 통합을 부르짖는 유대인은 그들의 전매특허인 'libre-pensae(자유로운 사유)'를 무기로 그들의 전로 실현될 거라는 '메시아적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이 시대의 도래를 눈 앞에 둔 그들은 이의 성공요인을 18세 확산시켰던 계몽주의 사조에 부여한다. 그들은 대개 무신론자였거나 카발리스트들이었고 그들의 작업은 이 땅을 한 토대를 다졌다... 인류 통합이라는 유대인의 메시아주의적 명제는 만국이스라엘협회, 세계프리메이슨연대와 이들로 보다 근래에 설립된 세계종교연합,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이름에 거부감을 느끼는 인사들을 위한 조직인 Ligue universelle de l'enseignement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 거대한 프리메이슨 연대의 배일에 가려진 진정한 유대인으로 이들이 곁에 내세우는 실권이 없는 허수아비들과 이들을 혼동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 유대인들은 카발 가장 급진적이며 과격한 유대교도들이다. 초급 프리메이슨들은 이 엘리트들의 존재조차 모르며 고급단원이라해도 (noms de guerre)외에는 그들의 실체에 대해 알지 못한다. 끔찍한 위협과 가차없는 보복으로 비밀을 유지하는 이 유대인 엘리트들은 카발라적 비의의 힘을 빌어 그들이 목표로 한 바를 성취한다... 이 유대인들이야말로 혁명의 도가요 기술자들인 것이다.” (Le Juif, la Judaisme, et la Judaisation des Peuples Chretiens, 1869)

#### 프란츠 리스트 헝가리 작곡가

“유럽국가들에 유대인이 존재한다는 것은 많은 사회악을 수반한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계속 돈을 독점하는 자신의 지갑속의 돈을 풀거나 거둬들임으로서 국가의 목줄을 죄었다 놔다한다. 이는 실로 판도라의 상자가 열이 없다. 과거의 소규모 수공업과 상업은 날로 확장하는 산업과 은행들간의 거대한 액수가 오가는 괴물적인 몸집 대체되었으며 이 와중에서 유대인은 현기증이 날 정도의 빠른 속도로 세상의 절대군주가 되었다. 그들이 획득한 자유와 시민적 권리를 무기로 유대인은 모든 기독교적 진리와 가치관을 공격하며 그들이 소유한 언론을 무기로 사회 파괴한다... 그들은 확립된 기존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종류의 비밀결사에 가담한다. 그들은 왕정과 교회, 종교고 法治를 차례로 붕괴시키려는 모든 지하조직과 이들이 일으키는 소오의 뿌리에 있다. 모든 기독교 문명의 옹호자 혁명의 무저갱을 통해 부정되고 의구심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것은 그들에게겐 무척이나 재미있는 일이다. 설사 혁에서 수백만을 도둑맞고 그들의 저택이 불타버린다해도 저들 유대인들은 잃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들은 라피테(Lafitte)의 파괴는 파리가 무너지는 것과 똑같다는 관념에 코웃음을 친다. 석유는 그들의 매부리코엔 향내음이며 그의 폭음은 그들의 귀엔 감미로운 음악일 따름이다. 그리고 그 누가 그들로부터 토라와 탈무드를 앗아갈 수 있을 : 은 모든 사회혼란의 배후에 있으며 역병처럼 번지고 있는 부도덕의 근원에 있다... 그들은 신앙과 윤리를 파괴하는 을 은밀하게 유통시킨다. 그들은 적절한 양으로 가미된 방종과 부도덕한 풍조에는 그 어떤 사회도 저항할 수 없으 인간의 知性은 총체적으로 타락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들을 용납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결: 들을 모조리 추방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날이 올 것이다. 이들을 용납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삶과 죽음 만성적인 질환, 그리고 평화속의 안정과 끊임없는 사회혼란 중 그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와 직결된 문제인 것이다 (Israeliten)

#### Bernard Lazare 유대인 언론인 (佛)

“유대인에 대한 시공을 초월하는 이 반감은 어디에서 생겨나는가? 왜 유대인은 알렉산드리아와 로마에서부터, 페랍, 그리고 투르크와 기독교국가들에서까지 번번히 증오와 천대의 대상이 되어왔을까? 그것은 유대인은 융화가 될이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오늘날까지도 변함이 없다... 왜 유대인은 융화되지 않는 것인가? 그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양립할 수도 없는, 그들만의 교조적 진리를 가르치는 종교와 율법을 유대인이 따르고 있기

그들만이 택함을 받았으며 그들이 결국에는 세상을 지배하게 될거라는 믿음은 유대인에게 엄청난 자부심을 심어주  
 해 유대인은 비유대인을 경멸의 눈초리로 바라보게되었으며 종교적인 신앙에 민족주의적인 요소까지 가미되었을 때  
 대한 시각에는 증오심까지 보태지게 되었다... 1830년을 시발점으로 한 제2차 유럽혁명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첫번  
 보다 더욱 열정적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유럽의 대다수 국가들에서 유대인은 평등한 민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  
 볼때 유대인은 혁명에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개인적인 이유나 기질적인 차이로 일선의 혁명가로 활약하지 않  
 도 마음속으로는 혁명이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랬다. 그들의 승리는 자유주의(liberalism)의 승리와 직결되어 있었  
 들이 가진 돈과 시간, 열정과 능력을 유럽의 근대혁명에 쏟아부었다... 그 기간동안 유대민족의 금융가, 산업재벌,  
 작가, 급진적 선동가들은 한 목표를 향해 발을 맞추었다... 그들은 '젊은독일(Young Germany)' 운동에 적극적  
 며 폭력혁명을 주도했던 프리메이슨 롯지들을 비롯하여 카르보나리아(Carbonaria), 로마의 Haute-Vente 등의  
 대다수 멤버들 역시 유대인이었다. 그들은 프랑스,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그리고 이탈리아 모든 곳에서 혁명을  
 오늘날 유대인은 이 시대의 양극에 위치해 있다. 유대인은 산업자본주의와 금융자본주의의 정점에 있는 동시에 또  
 격렬하게 저항하는 세력의 근원에 자리잡고 있기도 하다. 로스차일드가 맑스와 라살의 안티테제임과 동시에 자본  
 자들에게서 조력자의 손을 발견하며 전 세계를 훑는 주식투기꾼들의 냉혹한 눈초리는 국제적 프롤레타리아들의  
 그 해답을 찾는다...

“칼 맑스는 분명, 내세의 구원을 거부하고 오로지 현세의 지상낙원을 꿈꾸는, 태고의 유물론적 세계관에 젖어있  
 자였으며 그도 이런 사실을 의식하고 있었다... 제1차 인터내셔널의 창설을 주도한 맑스는 또한 1864년 런던에서  
 조직했다. 이 단체의 대다수 멤버들은 유대인이었으며 중앙위원회에는 독일과 러시아 대표 비서 칼 맑스, 덴마크  
 코헨(James Cohen)이 포진하고 있었다. 인터내셔널의 유대인 멤버들은 파리꼬뮌사태에 대거 가담했으며 이곳  
 그들의 동족과 상면했다. 유대인들은 사회주의 성향의 정당 창당과 운영에 있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독일  
 라살을, 오스트리아에서는 아론 리버만(Aaron Libermann)과 애들러(Adler), 그리고 루마니아에서는 도브로얀  
 (Dobrojan Gherea)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의 유대인들은 팔목할만 한다. 게토의 티를 아직  
 이어린 유대인 학생들은 러시아에서 허무주의적 프로파간다를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여학생들을 포함  
 방안 대의를 위해 그들의 생업을 포기했으며 이들 가운데서도 의사와 변호사 등의 유대계 청년 지식인들은 반  
 망명중인 노동운동가들과 함께 런던과 뉴욕에서 노동자단체들을 조직하여 사회주의 및 무정부주의적 선전선동을  
 대인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비난은 과히 틀리지 않다. 실로 유대인에게 혁명적인 기질이 있으며 그가  
 말든 그들은 모든 혁명의 근원에 있다... 유럽이 유대인에게 평등한 권리를 선사했을때 그들 국가, 아니 그 기독교  
 복과 파괴의 표적이 되었음을 알아야한다... 유대인은 단지 기독교의 절멸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의 목적은 유대교  
 파하는 것이다. 그들은 단지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공격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신앙을 조장한다. 그  
 영적인 황무지 위에 그들은 자신들만의 세계관과 인생관, 그리고 가치관을 강요하려는 것이다. 그들은 지금도 역사  
 수행하고 있다. 그 과업이란 그리스도의 종교를 말살하는 것이다.” (L'Antisemitisme, 1887)



(러시아 정교인들의 성찬예식을 조롱하는 볼셰비키 선전지)

**Wilhelm Marr** 독일 저술가

“러시아는 유대인에 대한 기독교 문명 최후의 방어선이다. 그러나 러시아가 이들에게 굴복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굴의 의지가 담긴 유대인의 책략은 결국 인류가 일찍이 본 적이 없는 대혁명으로 러시아를 무너뜨릴 것이다. 러시아에 성공한다면 유대인은 그 어느 나라를 겁낼 필요도 없게 된다. 우리의 독일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러시아의 식할 것이며 러시아를 무기로 서구문명의 말살이란 과업에 나설 것이다.” (Der Sieg des Judentums über d Germanentum, 1879)



**Alexander III 러시아 황제 (1881-1894)**

“그동안 우리 정부는 유대인들과 제국백성들 간의 관계를 큰 관심을 갖고 지켜봐온 바, 부당한 상행위를 통해 유 땅의 기독교인 백성들을 비참한 상황으로 내몰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개별적인 소수! 외하고, 유대인들은 한 집단으로서 이 나라의 번영과 발전에 기여하는 대신 그들의 간악함을 무기로 특히 빈곤한 을 약탈해왔고 그들에 대한 백성들의 원성은 끊이지 않았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 하에 정부는 민중에 대한 ! 압적이고 부도덕한 행태를 근절하고자 엄격한 조치들을 발동했던 것인데 이에 대해 유대인들은 체제를 전복하고자 모의를 주동함으로써 정부에 맞서고 있다.” (Imperial Edict of September 3, 1882; Elizabeth Latimer, Rus Turkey in the 19th Century)

1881년 3월 1일, 알렉산드르3세의 아버지 알렉산드르2세는 맑스주의자들에 의해 암살되었다. 주동자 5인방 Grine Rysakov, Mikhailov, Emelianov, Helfmann은 공산주의혁명 지하조직이었던 Narodnaya Volya(민중의 의지 서 다섯 사람 모두 유대인이었다. 사상 최초의 정치 테러단체라 할 수 있는 나로드냐 볼야는 역시 유대인인 Mark 이 구축한 맑스주의적 지하조직 ‘랜드앤프리덤(Land and Freedom, 토지와 자유)의 하위 무장조직이었다. 나트 유명한 유대인 무정부주의자 알렉산더 버크만의 숙부이기도 하다. 특기하자면, 레닌의 형은 황제 암살사건과 관련 다.

유대인 공산주의자 및 혁명분자들이 주도한 요인암살 사례들을 간략히 나열하면:

- 1879년 - 우크라이나 하르코프 지사 쿠로파트킨(Kropotkin) 암살 (유명한 무정부주의자 쿠로파트킨의 사촌)
- 1881년 - 알렉산드르 2세 암살
- 1892년 - 미국의 유대인 여류 무정부주의자 에마 골드만의 주도하에 유대인 추종자들이 자선사업가 Henry Clay Frick을 암살하려다 미수에 그침. 암살을 실제로 결행한 인물은 알렉산더 버크만
- 1901년 - 미국 맥킨리(William McKinley) 대통령 암살. 범인은 에마 골드만의 추종자로 폴란드 출신 유대인인 레온 코글로즈
- 1901년 - 러시아 교육부 장관 보골레포프(Bogolepov) 암살
- 1902년 - 러시아 내무부 장관 스피야긴(Sipyagin) 암살
- 1903년 - 우파(Ufa) 지사 보그다노비치(Bogdanovich) 암살
- 1903년 - 러시아 내무부 장관 플레프(Plehve) 암살
- 1905년 - 니콜라이2세의 숙부 세르게이 대공(Grand Duke Sergei) 암살
- 1906년 - 러시아군 장성 두브라스프(Dubrassov) 암살
- 1911년 - 러시아 수상 스톨리핀(Stolypin) 암살

1918년 - 모스크바주재 독일대사 미르바하 백작(Count Mirbach) 암살

1918년 - 볼셰비키 지도자 유대인 스베들로프(Sverdlov)의 지시하에 니콜라이 2세와 전 가족이 살해됨



### Robert Michels 독일 정치학자

"사회주의 정당과 급진혁명 정당들의 지도부에 유대인이 많다는 사실은 주목을 요한다. 유대인은 그들 민족의 특색 중의 지도자이고 조직자이며 선동가이다. 그 특성들 가운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그들의 세속적인 광신주의(이러한 성향은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며 마치 전염병처럼 민중에게 확산된다. 그 다음은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라는 그들만의 자부심이다. 유대인은 언어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매우 민첩하다. 또한 모든 상황에 적응할 수 제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두드러지는 것은 입신양명(立身揚名)에 대한 뿌리칠 수 없는 욕망이다. 175년간 유럽을 뒤흔든 새로운 좌파적 정치조류(潮流)들 가운데 유대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은 없었다... 적응력과 지적인 활력만으로는 노동자들의 정당에서 유대인이 차지하는 질적, 양적인 비중을 설명할 수 없다. 그 독일의 노동운동계에서 유대인은 괄목할만한 영향을 끼쳤다. 먼저 유대인 페르디난트 라살(Ferdinand Lassalle, Karl Marx)를 들 수 있고 이들과 동시대 인물이었던 모세스 헤스(Moses Hess)도 빼놓을 수 없다. 기존체제에서는 처음으로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했던 요한 자코비(Johann Jacoby)역시 유대인이었다. 비슷한 경우로, 프란츠 유대인 거상(巨商)의 아들인 칼 호슈베르크(Karl Hochberg)는 독일에선 처음으로 사회주의 저널을 발행했다. 독일 의회의 의장 폴 싱어(Paul Singer)도 유대인이었다... 또한 많은 유대인들이 다양한 직책에서 사회주의 정당에 지냈다. 에두아르트 번스타인(Eduard Bernstein), 하인리히 브라운(Heinrich Braun), 야콥 스텐(Jakob Stern), 타인(Simon Katzenstein), 그리고 브루노 손랑크(Bruno Schonlank)는 사회주의 이론가로서 당의 노선을 뒷받침했다. 라드나워(Gradnauer), 아이스너(Eisner), 그리고 조셉 블로흐(Josef Bloch)는 언론인으로서 사회주의 일간지 **Socialistische Monatsheft** 를 제작했다. 또한 휴고 하인만(Hugo Heinmann)은 지방정부 정치인으로, 레오 아르논스(Leo Arons)는 선거와 관련된 영역에서 사회주의자로서 큰 역할을 했으며 루드비히 프랑크(Ludwig Frank)는 소년 조직을 창설했다. 오스트리아에서도 사회주의 운동에 유대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핵심적이다. 빅터 애들러(Viktor Adler, Ellenbogen), 프리츠 아우스테를리츠(Fritz Austerlitz), 맥스 애들러(Max Adler), F. 헤르츠(F. Hertz), 레진저 에크스타인(Therese Schlesinger-Eckstein), 다이아몬드 박사(Dr. Diamond), 아돌프 브라운(Adolf Braun) 이름이 곧 떠오른다... 미국으로 건너가 보면 유대인 모리스 힐퀴트(Morris Hillquitt), A. M. 사이몬스(A.M. Simon), 언터만(M. Untermann)이 있고 네덜란드에는 다이아몬드 노조를 이끌고 있는 헨리 폴락(Henri Polak)과 독립적인 D. J. 윈쿠프(D. J. Wijnkoop), 그리고 M. 멘델스(M. Mendels)가 눈에 띈다. 이탈리아에는 엘리아 무사티(Elia Muscati), 라우디오 트레베스(Claudio Treves), G. E. 모딜리아니(G. E. Modigliani), 리카르도(Riccardo), 그리고 아돌포 모미글리안노(Adolfo Momigliano), R. L. 포아(R. L. Foa), 과학자인 체사레 롬브로소(Cesare Lombroso) 등을 유명한 인물로 꼽을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유대인이 덜 드러나 보이는 프랑스에서도 폴 루이(Paul Louis), 에드가 밀하우드(Edgar Milhaud), 그리고 1904년 **l'Humanite** 의 주주들이 눈길을 끈다. 1879년에 있었던 프랑스의 사회주의 정당 **Parti Ouvrier** 의 창당도 강베타 정부에서 알제리 총독을 지냈던 아돌프 크레미유의 자금지원으로 가능했다. 또한 사회주의 대회에 참석하는 각국 대표단의 면면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러시아와 루마니아, 헝가리와 폴란드의 노동자 정당들의 수중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러시아로부터는 많은 수의 유대계 공산주의 혁명가들이 외국의 노동운동계로 수출된다. 로자 룩셈부르크(Rosa Luxemburg)와 파르부스(Parvus)로 알려진 이스라엘 헬판트 박사(Dr. Israhel Helfant)도 그들 중의 한 사람이다.

Helphant)는 독일로, 찰스 라파포트(Charles Rappoport)는 프랑스로, 아나 쿨리쇼프(Anna Kulishoff)와 안젤 프(Angelica Balabanoff)는 이탈리아로, 라익스베르크 형제는 스위스로, M. 비어(M. Beer)와 테어도어 뢰슈타인(Rothstein)은 영국으로 활동의 무대를 옮겼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유명한 무정부주의자 구스타프 랜다우어(Gust Landauer), 지그프리트 나흐트(Siegfried Nacht), 피에르 라무스(Pierre Ramus), 그리고 세나 호즈(Senna)로서 이 긴 명단의 마침표를 찍고자 한다.

“유대인이 사회주의 운동에서 이러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독일을 포함한 동부유럽 유대인들이 그들만의 독특한 딜레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들 지역에서 제도적인 유대인 해방은 그들의 사회적, 그리고 도덕적으로 해소하지 못했다. 독일인들 사이에서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과 반감은 지배적이며 유대인에 대한 거부감은 과거에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대로부터 전해내려오는 유대인의 반란적인 기질은 그들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불공평하다는 감정과 맞물리게 되었다. 이러한 감정은 체계화된 이론을 통해 이들이 인식하는 일반적인 사회악에 대해 발전하게 되고 혁명가들의 의지는 점차 세상을 개량하겠다는 더 한층 거창한 목표를 향해 움직이게 된다. 많은 유대인이라도 최소한 동부유럽에서 유대인은 기존의 정치, 경제, 문화적 시스템이 비유대인들에게 부여하는 혜택과 소외되어 있으며 사회의 주류로부터 거부당하는 한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쉽게 말하자면 비유대인의 사회는 유대인 없고 이들 사회의 지배적인 정서 또한 유대인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반유대적 사회주의”는 1870년 공식적으로 나타났다. 베를린 대학의 박사출신이었던 오이겐 뒤링(Eugen Dühring)은 맑스와 그의 추종자들의 “유대” 사회주의와 “게르만(German)” 사회주의를 선포했다. 애국적인 동기에서 이 운동을 시작한 뒤링은 맑스주의적 사회주의는 유대인들을 위해 일하는 하수인들의 이익을 위해 이들이 지배할 국가에 전 국민이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870년에 이르러 뒤링은 일단의 베를린 사회주의자 서클의 중심적인 인물이 되었다. 요한 모스트(Johann Most)는 그의 동료였다. 그러나 이 그룹의 영향력은 뒤링과 “유대인 맑스”의 영적인 형제라는 엥겔스 사이에서 일어났던 그 유명한 논쟁을 거두지 못했다. 사회주의 성향의 대중에 대한 뒤링의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감소하여 1878년에 이르러 그는 무대에 오르지 못했다. 1894년에는 사회주의에 반유대적인 성격을 부여하려는 또 한 차례의 시도가 있었다.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의 사회주의자 Braunschweiger Volksfreund의 언론인이었던 리하르트 칼베르(Richard Calwer)는 유대인 사회주의자와 함께 힐난했다, “괜찮은 유대인 사회주의 이론가가 한 명 당 최소한 쓰레기 같은 유대인 사회주의자들이 여럿이 그들이 가진 장점이라고는 특출난 자기주장 능력과 마르지 않는 언어의 샘이다. 사회주의가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전혀 없이.” (Political Parties: a Sociological Study of the Oligarchical Tendencies of Modern Democracy, 1903)

**Henry Wickham Steed** 영국 더 타임스 편집장

“자신들의 지적인 우월함에 대한 자신감으로 유대인은 항상 “자유”의 기수였으며 여러 차원의 속박을 견디지 않는 그들의 성향은 그들의 정치적 급진주의를 낳게 했다. 오늘날 “자유주의(Liberalism)”라고 불리는 정치, 경제적 교리

대인, 비밀 유대인(crypto-Jews), 또는 親유대적 지식인들에 의해 집적된 사상체계이다. 오스트리아 제국과 독일 정당들을 보면 대부분 유대계 정치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이들을 뒷받침하는 언론과 학계에서도 유대인들의 활을 발견할 수 있다. 독일에서 자유무역을 주장한 맨체스터학파를 옹호한 사람들 역시 유대인들이었다. 이들의 저르거(Kurnberger)가 규정한 “닭장에 들어간,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는 여우”였다. 급진파(急進派)와 마찬가지로 일면이 있다는 이유로 비스마르크가 반대했던 국가사회주의(State Socialism)는 강한 반유대적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루거(Lueger)의 기독교 사회주의(Christian Socialism) 역시 반유대주의적이었고 자본주의의 무제한적 기할 사회적 병폐들로부터 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하고자 했다. 최소한 독일과 합스부르크 제국에서 혁명적 사회주의는 유대인들이 이끌어 왔고 유대적인 교조들로부터 영감을 받아왔다. 사회주의자들의 성서인 'Das Kapital'을 쓴 대인이었고 그의 라이벌로 독일 사민당을 창설한 라살 역시 유대인이었다. 좀더 근래에 들어서는 싱어(Singer), 베른슈타인(Bernstein), 아론스(Arons), 피셔(Fischer), 그리고 슈타트하겐(Stadthagen)과 같은 유대인 사회주의자들이 1919년 독일 제국의회에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사회주의 정당들의 과반수 이상은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오스트리아 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이념의 확산은 대부분 유대인들이 수행한 프로파간다의 결과였다. 오스트리아 사회주의 운동의 지도자로는 유대인 빅터 애들러 박사(Dr. Victor Adler)였고 그의 추종자들 역시 대부분 유대인들이었다. 헝가리에서 사회주의 정당을 만들었으며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와같은 현상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유대인의 민첩한 知性과 성에 뿌리박혀 있는, 상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미래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본주의 체제는 말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있는 그들은 민족주의세력 對 금융/산업 복합체 간의 우위는 조직화 된 민보트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국가와 사회를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사회주의 단체들과 조직을 통해 일반대중을 그들의 뜻대로 통제할 필요성을 절감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사회주의는 원의 반유대주의에 대한 해독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각종 경제비리등 유대인의 반사회적인 이윤추구 행위들과 본질에 대한 반유대주의자들과 그들 자신의 비유대계 추종자들의 비판과 관련하여 독일의 유대인 사회주의 지도자인 변명은 이런 것이다, ‘물론 유대인이 자본주의의 가장 두드러진 대표자들이긴 하지만 자본주의의 병폐는 근원의 체제에 기인하는 것일뿐 유대인과는 관계가 없다. 자본주의적인 사회악을 제거하는 유일한 길은 계급의식으로 타리아의 조직화와 계급투쟁이며 인터내셔널 혁명적 사민주의에 입각한 사회의 재구축 뿐이다.’ ... 그들과 별 교투인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것이 비유대인들의 세상과는 얼마나 본질적으로 상반된 것인지, 또한 하게 유대인 문제가 현대문명에 작용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The Hapsburg Monarchy, 1919)

(멘셰비키 지도자 마르토프, 유대인)

(유대인 골드만 가족에서 태어나 1/4 유대계인 올리아노프 가족에 입적된 레닌)

**Vlacheslav Plehve** 러시아 내무상

“서부 러시아의 공산주의 혁명분자들을 보면 90퍼센트가 유대인들이요. 그리고 러시아 전체적으로는 40퍼센트를 소. 정부는 지금 러시아에서 진행중인 유대인들의 이러한 움직임을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경고하건데, 자제들이 혁명운동에 가담하는 것을 여러분이 막지 않는다면 정부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유대인이 이 나라를 떠날도록 만들 것이오!” (In a speech to a Jewish delegation in Odessa in 1903: Michael Lynch, Reactionary Revolutions: Russia 1881-1924)

1903년 7월 28일, Plehve는 공산혁명가 Egor Sazonov가 던진 폭탄에 살해되었다. 명령을 내린 유대인 에브노(Aze)는 사회주의혁명당 휘하 테러조직의 수괴였다.

(아제프)

**Vladimir Lamsdorf** 러시아 외무상

“1905년 露日전쟁 직후의 사태와 지난 10월 더 한층 극렬하게 전개된 대규모 파업과 모스크바를 비롯한 각 지역 무장반란 사태를 볼 때 러시아의 혁명운동은 이 나라의 내부적인 사회, 경제, 정치적 요인과 더불어 국제적인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론을 뒷받침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혁명세력이 국외에서 반입된 무기들로 무장하고 이들이 상당한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장반란은 말할 것도 없이 반정부 운동과 파업을 주도하여 운영하는데는 많은 돈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적한 바 어느 외국정부가 이들에게 무기와 자금을 제공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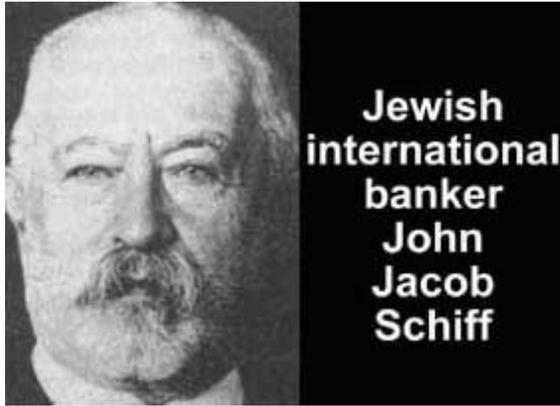
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국외에 존재하는 모종의 자본가들의 모임이 우리나라의 혁명운동을 배후에서  
 며 러시아의 공산화를 기도하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배경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반정부 기  
 적인 성격으로, 혁명운동은 아르메니아, 그루지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폴란드 등의 여러 소수민족 출신  
 있습니다. 그러나 제국정부의 전복을 모의하는 이들 가운데서도 가장 두드러진 집단은 유대인입니다. 개인적으로  
 과나 간부의 위치에서 비유대계 반정부단체들을 이끌고 있으며 서부지역의 유대인분드와 같이 그들만의 독자적인  
 체제전복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그 어느 소수민족보다 과격하고 급진적인 요소입니다. 혁명  
 유대인들의 이러한 주도적인 위치를 감안할 때 외국의 유대인 자본가 서클이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단정해도 득  
 입입니다. 더욱이 이와관련하여 본다면 러시아의 혁명운동은 외국으로부터의 지원을 받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  
 으로부터 조종되고 있다는 추론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 폭력성에 있어 유례가 없었던 지난 10월의 총파업사태 당  
 는 마침 로스차일드 계열의 금융사들을 배제한채 차관도입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중이었다는 사실을 특별히 주목  
 습니다. 정보를 입수한 유대인 자본가와 은행가들은 의도적으로 루블을 대량매도하여 외환시장에서 공황사태를 이  
 시아 정부의 차관도입을 무산시키는 한편 급락하는 러시아 환율에 대한 투기행위로 막대한 이윤을 남겼습니다... (  
 이미 러시아 언론에 보도된 일련의 사례들은 이 나라의 혁명운동이 국외의 유대인 단체들과 연계되어 있다는 사  
 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정보국 요원들이 확인했듯이 무기반입의 근원지는 미국이며 영국을 거쳐 이 나라에 들어  
 이와 관련하여 언론은 이미 1905년 6월, 러시아의 유대계 맑스주의적 테러단체들을 무장시키는 것이 목표임을 공  
 한 유대인 자본가들의 자금모금 위원회가 결성되었다는 사실을 보도한바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에 대한 비방과 모  
 려진 유대인 출판사업가 루시엥 올프는 이 위원회의 주요 인물입니다. 또한 이 위원회와는 별도로 영국에서는 로  
 주도하에 또 다른 유대계 자본가들의 위원회가 조직되었습니다. 그들은 포그롬으로 인한 유대인 피해자들을 돕는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기금모금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역시 그 의도가 불분명한 러시아 유대인 운  
 현지 유대계 유력인사들에 의해 조직되어 모금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Secret Report to Emperor Nicholas  
 January 3, 1906)

## 러시아 혁명에 자금을 제공한 주요 유대인 금융가들



©JewishEncycloped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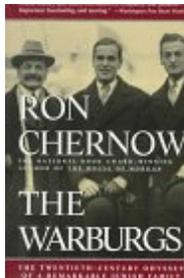
(제3대 로스차일드 남작, 네이션 메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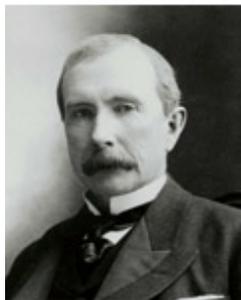
(로스차일드 미국 에이전트 야콥 슈프)



(폴 워버그, 미국 FRB 창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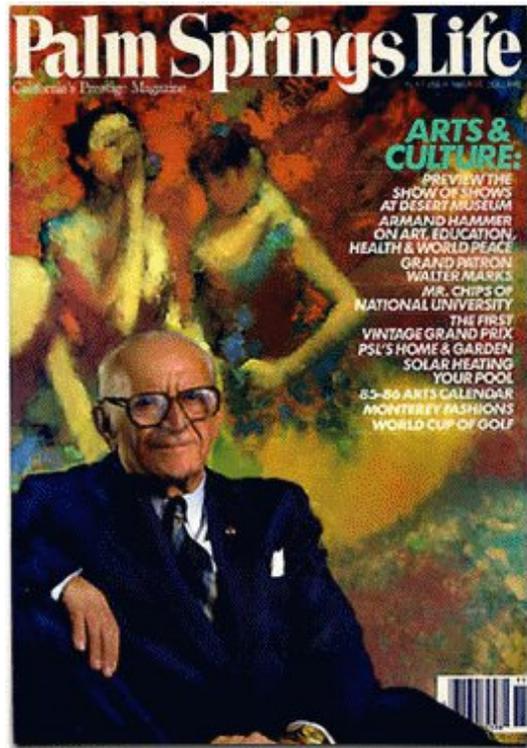
(워버그 삼형제, 폴, 맥스 - 1차대전시 독일 정보국 총수, 봉인된 기차에 레닌을 러시아로... -, 필릭스 워버그; 책 체르노프 - "독일과 미국 발전에 기여한 유대인 영웅들!")



(존 D. 록펠러, 모노폴리의 대가, 세파르디 crypto-jew)



(손자 데이빗 록펠러, 뉴욕 FRB 회장, 체이스맨하탄 회장; CFR 회장; 유대인 석유재벌 아만드 해머와 함께 소련에 영향력으로 유명; 유명한 家臣, 헨리 키신저,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매들린 올브라이트, 조지 H.W. 부시, 버거, 홀!



("레닌이 죽으려면 죽을 수도 있었다", Occidental Petroleum 회장/국제공산주의자 아만드 해머, 브네이브리스 프리메이슨; 알 고어 1세, 2세 소유)

#### Boris Brasol 러시아 역사가

"1916년 여름 러시아 합참본부는 뉴욕에서 임무를 수행중인 요원으로부터 비밀보고서를 받았다. 1916년 2월15일(보고서의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러시아를 탈출하여 미국에 망명중인 사회주의 혁명가들이 다시 행동을 이들의 분주한 움직임으로 볼 때 모종의 중대한 사태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916년 12월14일, 뉴욕시의 이 (Lower East Side, 유대인 밀집지역)에서는 러시아에서 제2차 폭력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첫 번째 비밀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는 모두 62인의 대표가 참석했는데 이들 가운데 50명은 1905년 혁명의 베테랑들이었으며 나머지는 젊은이들입니다. 이 대표단의 대다수는 유대인들로서 이들의 상당수는 의사와 변호사, 언론인 등의 전문직업 지식인까지는 직업적인 사회주의 혁명가들입니다... 회의의 초점은 전적으로 러시아에서 대대적인 혁명을 일으킬 수단을 강구하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금이야말로 혁명을 일으킬 최고의 적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러시아에 이 혁명가들에겐 매우 유리한 상황이며 즉각적인 무장봉기를 위한 만반의 준비가 끝났다는 내용의, 러시아에서 건넌 낭독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유일한 고민거리는 재정적인 문제였으나 이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대표단의 특징인 이 혁명운동에 우호적이며 러시아 민중을 해방시키는 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이 충분한 자금을 제공할

정에 관한 문제는 염려할 필요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야콥 쉬프라는 이름이 거듭 언급되었습니다 (World at the Cross Roads, Gordon Press Publishers)

#### Christina Stoddard 미국 역사가

“유대인분드(Jewish Bund)는 1897년 유대인 노동자총연맹으로 창설되었다. 분드는 프롤레타리아 계층 유대인들적인 단체였으며 그들은 이디시어(Yiddish)를 사용하여 선전선동 활동을 전개했다. 분드는 ‘자유’와 ‘해방’ 등의 여러 조직과 단체들의 모델이 되었으며 사실상 러시아 혁명의 선봉이었다. 광대한 제국에 존재하는 정치결사단체 유대인이 이끌거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단체는 없었다. 사민파(社民派)와 혁명적 사회주의 정당들, 드 사회당의 수뇌부에는 예외없이 유대인들이 포진하고 있었다... 많은 정치적 비밀결사들과 오컬트조직들에 대한 연구를 한 바, 한가지 뚜렷한 그림이 드러난다. 모든 증거들은 한결같이 이들 단체와 조직들을 배후에서 사주하고 발라적인 유대인 수괴들이 존재함을 가리킨다. 이들은 쓸만한 허수아비들을 내세워 기독교 신앙뿐만 아니라 서구권 통과 관습과 가치관을 말살하기 위한 범 세계적인 음모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 통제와 공격을 위한 그들의 무기는 력(磁氣力)으로 생과 死를 결정하고 인간에게 빛을 비춰 해방시킨다는 불의 삼각형이다. 그러나 이들의 유일한 목 용하여 인간의 눈을 가리고 우민(愚民)들로 통합시켜 알려지지 않은 어떤 외계적인 통치자에게 더욱 확실하게 종: 다. 이러한 음험한 의도를 위해 이들은 ‘너 자신을 알라’, ‘인간도 신과 같이 될 수 있다’와 같은 태고적인 무 을 기만하고 뒷에 빠뜨리는 것이다. 소위 ‘인간해방’을 추구한다는 일루미니즘(Illuminism)의 그 불순한 목표는 모의 완성과 절대적인 제왕을 위해 인간을 도구로서 노예화하고자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Inquire Within: the Serpent)

(유대인 혁명분자 게르슈닌)

#### NATIONAL GEOGRAPHIC - William E. Curtis, The Revolution in Russia, May, 1907

“맑스주의적 체제전복 운동의 주동자들은 대부분 유대인이며 가장 강력한 혁명단체는 유대인분드이다. 러시아 정 이 제국의 그 어느 민족보다도 유대인에게 시달려왔다. 요인암살, 파괴공작 등 테러행위의 주범은 항상 유대인이미 서 제국에 진심으로 충성심을 가진 자는 거의 없다. 제국을 마비상태에 빠뜨렸으며 황제로 하여금 입헌군주제와 5 게 만들었던 총파업사태 역시 유대인 크루스탈레프(Krustaleff)가 명령을 내리고 조종한 것이었다. 노동자의회 의 관 30세에 불과한 나이이다. 종신형을 선고받고 투옥된 후에도 그는 3주가 못되어 수형소 직원들의 파업을 주동했다 안지방들에서 무장반란을 조직하고 주도한 막심(Maxim)은 특출난 수완을 소유한 유대인이다. 지난 가을 미국을 1 강연회를 열고 러시아의 혁명운동을 위한 모금 활동을 벌인 바 있으나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종적을 감추었는데 . 대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혁명 테러단의 리더로 활약하다 체포되어 몽고 국경지대의 은광(銀鑛)에서 종신형 선고받고 수형중이던 게르슈닌(Gerschunin)은 얼마전 물통에 몸을 숨겨 수형지를 탈출했는데 현재 그는 샌프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폴란드 출신의 유대인으로 약관 27세의 나이이다. 필자는 지금 여기서 혁명주동자 100인의 0

수 있는데 확실한 것 하나는 이들 모두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이다. 신문기사를 보면 언제 어디서 발생한 암살이나 범인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905년 무장폭동 이후 러시아를 가장 떠들썩 하게 한 사건은 지난 10월 던 유대인 맑스주의자들의 강도사건이었다. 생빠짜르부르크의 중심가인 카잔성당 앞에서 네 명의 유대인이 재무부 습격하여 \$270,000를 탈취해 달아났다. 네 명은 강탈한 돈을 한 여자에게 맡겼는데 여자는 그 직후 자취를 감추었 땡게 되었는지 아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네 명은 얼마후 체포되어 마땅한 벌을 받았다. 또한 11월 8일에는 폴란드 (Ragow)에 있는 재무부 산하의 기관에 일단의 유대인 혁명분자들이 침입하여 \$850,000를 훔쳐 달아나는 일이 벌 한 부류의 행위를 저지르는 자들은 열이면 열, 유대인이다. 흔히 포그롬으로 불리는 유대인 박해는 실상 유대인 들 테러행위에 대한 러시아제국 민관(民官)의 보복이다.”

#### THE MACCABEAN 시온주의 일간지(뉴욕)

“러시아에서의 혁명은 유대민족의 역사를 가름할 유대인의 혁명이다. 러시아 혁명이 유대인의 혁명인 이유는 전 인구중 절반이 이곳에 살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짜르의 폭압적인 군주독재를 뒤엎는 것은 향후 그곳에 아직 살고 과 더불어 이미 러시아를 등지고 각국에 퍼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일하기에 그러한 러시아의 혁명이 유대인의 혁명인 까닭은 짜르의 제국에서 가장 열성적인 혁명가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이다.” (N, 1905)

#### 조르쥬 소벨

“만약 유대인들이 정직한 생업에 종사하면서 사회와 문화에 나름대로 기여하는 우리의 평범한 이웃으로 살아갔 상관없이 우리는 유대인을 우리 조국의 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불행히도 유대인 식자들은 스스로를 무 착각하고 기타 유대인들은 이들의 송고한 사명에 동참하고 성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변혁의 기수요 정받고 싶어하는 유대계 지식인들은 단지 이민이라는 우연으로 그들이 거쳐하게된 나라의 정신적 유산을 집요하게 해한다. 그와같은 행태는 당연히 그 나라 국민의 정당한 분노를 불러일으킨다. 유대인들의 기만적인 선전선동에 특 민족은 대재앙을 맞아 마땅하고 또한 그렇게 될 것이다.” (Quelques pretentions juives)

#### THE FORWARD 뉴욕 유대계 일간지

“혁명이 시작되었다. 이는 피로 얼룩진 지난 3년 동안의 지긋지긋한 전쟁 통에서 날아온 유일한 희소식이 아닐 - 같은 소식으로 모든 노동자들의 가슴은 환희와 기쁨으로 터질 듯 하다. 니콜라이가 퇴출되었다. 두마(Duma, 의회 득했으며 이제는 자유주의적 정부가 러시아를 통치한다. 만세!” (March 15, 1917)

(볼셰비키들에게 정권을 넘겨준 과도정부 수반 유대인 케렌스키, 그랜드 오리엔트 프리메이슨)

#### M. Oudendyk 駐러시아 네덜란드 대사

“지금 이곳의 사정은 너무도 위급하여 본인은 이 위협의 중대함을 영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에 알리는 것이 본인.

생각합니다. 경고하건데, 만약 러시아의 볼셰비즘을 현재의 시작단계에서 근절하지 않는다면 전 세계의 문명이 위  
될 것입니다. 볼셰비즘의 확산을 진압하는 것은 오늘날의 세계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서 지금 계속되고 있  
들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 혁명을 막아야 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볼셰비즘을 싹의 단계에서 잘라내지 않는디  
혁명 은 어떨 한 형태로든 유럽과 전 세계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악한 모의는 자신들만의 목표를 위  
서를 파괴하려는 조국도 없는 유대인들이 주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Telegram to British Government da  
September 6, 1918; A Collection of Reports on Bolshevism in Russia; Foreign Relations of the U  
1918. Russia, Published by U.S. State Dept., Vol. I, pp. 678-9; British White Paper "Russia" No. 1,  
p. 6, on Bolshevism in Russia)

**David R. Francis**駐러시아 미국대사

“볼셰비키혁명 지도자들은 대부분 유대인이며 이중 90퍼센트가 외국에서 들어온 자들 입니다. 이들은 러시아나  
대해서도 애정이 없는 인터내셔널리스트들로 이들은 지금 러시아를 거점으로 전 세계적인 사회주의 혁명을 획책하  
다... 유대인들이 각 지역의 소비에트를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민중 사이에서는 유대인에 대한 반감이 고조  
이중 일부는 근접해 있는 독일군을 해방군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Telegram to U.S. State Department dat  
1918(#861.00/1757); Russia From the American Embassy, 1921)

**Montgomery Schuyler** 시베리아 파병 미군장교

“아마도 미국에서 이런 얘기를 큰 소리로 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을 듯 싶습니다만, 볼셰비키혁명 운동은 처음부터  
고 저급한 부류의 러시아 유대인들에 의해 시작되었고 오늘날까지 그들에 의해 주도되어 왔습니다. 이들 가운데  
에서 도피생활을 한 자들로 이들은 미국 문화의 가장 천박한 일면들 만을 습득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말하  
(liberty)’ 를 눈곱만큼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Military intelligence report dated March 1, 1919 to Lt. C  
in Vladivostok; U.S. National Archive)

**JEWISH CHRONICLE** 런던 유대계 일간지

“볼셰비즘의 본질적인 지향점을 유념할 때, 또한 대다수의 볼셰비키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에서 볼 때, 볼셰비즘  
많은 부분에서 유대교의 가장 핵심적인 이상향들과 일치한다.” (April 4, 1919)

**Catherine Radziwill** 로마노프 일족, 러시아 작가

“그들 중에 한 사람은 카메네프(Kamenev)란 이름의 남자였다. 후일 그의 이름은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의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는 그 때 자신을 레닌과 트로츠키의 측근으로 소개했었다. 이 카메네프란 자는 또 하나의  
인으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장 빠른 시일내에 자신의 배를 채우는데 유일한 목표인, 두 말할 나위없이 매우  
이었다. 그는 항상 무슨 천재지변이 일어나기만을 고대했다. 그래야만 러시아의 국고에 그의 탐욕스런 손을 댈 수  
까. 얼마후 루스텐베르크 대위에게서 듣자하니 독일이 러시아를 볼셰비키들에게 넘기기 위해 제공한 수백만 달러  
큰 몫을 차지한 자는 카메네프였다고 한다.” (The Firebrand of Bolshevism, 1919)

(페드로그라드 소비에트 서기장 지노비에프, 유태인 실명 아펠바움)

**Zinoviev - Hirsch Apfelbaum** 볼셰비키 지도자

“우리는 적의 피바다 앞에서도 절대로 떨지 않으며, 그 어떤 자비나 동정심도 느낄수 없도록 우리의 가슴을 잔혹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만들 것이다. 우리는 이 땅을 피바다에 잠기게 할 것이다. 우리는 단 한 명도 남김없이 우를 죽일 것이다. 수천, 수백만이라도 상관없다. 그들을 그들이 흘린 피에 빠져죽게 만들자! 레닌과 유리츠키, 지노비예로다르스키를 위해 부르조아지들의 피로 홍수를 만들자. 우리는 더 많은 피를 원한다! 많을수록 더욱 좋다!” (“Blood”, Krasnaya Gazeta, September 1, 1918)

볼셰비키 혁명과 관련하여 권위를 인정받는 알렉산드르 솔제니친, 로버트 컨퀘스트, 리처드 파이프스를 비롯, 1997 《Le Livre Noir du Communisme(공산주의 흑서)》에 따르면 1917년부터 1953년 스탈린의 사망시까지 소비에트 포정치, 인위적 기근, 그리고 굴라그 강제노동수용소 시스템 등을 통해 목숨을 잃은 러시아인을 비롯한 기타 소수 3천만에서 5천만명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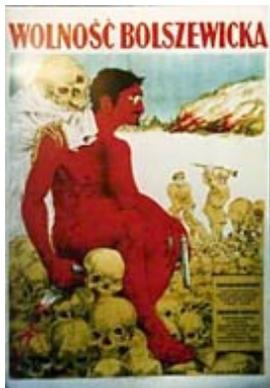
**Robert Wilton** 더 타임즈 러시아 특파원

"1918년 현재, 384명의 소비에트 정치국원들 가운데 두 명이 흑인, 13명이 러시아인, 15명이 동양인, 22명이 아랍인 300명 이상이 유대인들이다. 이들 300명 중에서 264명은 황제의 정부가 붕괴된 직후 미국에서 건너온 자들이다...의 무지에 호소하여 러시아를 무너뜨린 이 유대인들은 그들의 허수아비를 내세워 인류가 일찍이 목도한 적이 없는 하려 하고 있다... 러시아의 볼셰비즘에는 누구도 간과할 수 없는 이방민족의 정복이란 성격이 봉인되어 있다. 유디프가 계획하고 명령을 내렸으며 유대인 골로셰킨, 사이로몰로토프, 사파로프, 보이코프, 그리고 유로프스키가 수행의 전 가족에 대한 피비린내나는 학살극은 러시아 민중이 아닌, 적개심으로 가득찬 침략자들의 소행이다." (The of the Romanovs)

(소비에트 공화국 대통령, 스페들로프)



The Romanovs - a family portrait  
Photo courtesy Bob Atchison  
Alexander Palace Associ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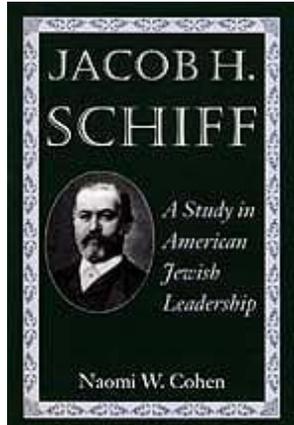
(1920년 폴란드의 한 시사지 표지에 실린 유태인 리바 브론슈타인 - aka 레온 트로츠키)

#### THE TIMES

“러시아 혁명에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유대계 투자은행 쿤앤로옌(Kuhn & Loeb)이 독일의 유대계 은행 스트팔리안 신디케이트(Rheinisch-Westphalian Syndicate), 파리의 라자드 프레레(Lazard Freres), 그리고 도쿄, 파리의 건즈보그(Gunzbourg) 은행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볼 때, 또한 이전에 언급한 무역 단, 뉴욕, 프랑크푸르트의 슈페이어(Speyer & Co), 볼셰비키들 후원으로 널리 알려진 스톡홀름의 유대계 은행 (Banken)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볼 때 볼셰비키 국제공산주의는 계층과 국적을 초월한 유대계적 정치운동이라 해석할 수 있으며 일부 특정 유대계 투자은행들은 이 운동을 조직, 확산시키는데 큰 관심을 갖로 보인다. (February 9, 1918)

\* \* \*

"1919년 초, 미국 육군참모부는 미국을 방문한 프랑스 공화국의 고위인사들에게 러시아 공산혁명의 준비와 집행과 관련한 미국의 주요인사들의 명단을 제공했다. 이 문서에 의하면; " 1916년 2월, 우리는 러시아에서 혁명이 조직되 보를 최초로 입수했습니다. 러시아를 파괴하기 위한 공작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은행가는 야콥 쉬프(Jacob 스 워버그(Felix Warburg), 오토 칸(Otto Kahn), 모티머 쉬프(Mortimer Schiff), 히로노머스 하나우어(Hieron Hanauer), 구겐하임(Guggenheim), 맥스 브라이통(Max Breitung)으로 이들은 모두 유대인입니다." (-7-618 by the General Staff; 0 of the 20th Army; N. 912-S.R.2. copy; Maurice Pinnay, The Secret Force)



"서방의 주요 유대계 금융가들과 마찬가지로 야콥 쉬프는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에 자신의 개인자금 2천만 달러를 가 사망한지 1년 뒤 볼셰비키 정부는 6억 루블을 쉬프의 투자은행인 쿤앤로옌에 예치했다." (New York Journal February 3, 1949; Andelman, M.S. (1974). To Eliminate the Opiate, New York-Tel Aviv: Zahavia, Ltd.

#### George A. Simons 러시아 미국선교사

"우리가 들기론 뉴욕시의 로워이스트사이드(lower east side)로부터 수백명의 선동꾼들이 트로츠키(브론슈타인)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페트로그라드에서 만났던 이들 중 일부는 내가 미국인임을 알게되자 영어를 쓸 다며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어실력은 미국인으로 볼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초청으로 본인의 집회에 수차례 참석했는데 처음부터 웬지 모르게 모든 것이 유대적이어서 저로서는 매우 기이하게 생각했습니다. 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선동가들의 대다수가 유대인들이며 소위 말하는 이 볼셰비키 운동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산주의 혁명운동이 유대인들의 운동이며 그 근거지는 뉴욕시의 이스트사이드라고 저는 후 인이 러시아를 떠나기 전에 들은 놀라운 얘기에 의하면 1918년 12월 당시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의 서기장은 아펠 에프)이라는 이름의 유대인이었는데 그의 휘하에 있는 388명의 정치위원들 중에 진짜 러시아 사람은 16명 밖에 없 다. 한 명은 예외로 그 자는 스스로를 고든 교수로 부르는 미국에서 온 흑인이었습니다... 상원의원님, 저는 이 모 정말 놀랐습니다. 1917년 겨울 혁명이 끝난 직후 거리에는 벤치나 비누상자 위에 올라가 입이 부르를 때까지 열변 는 유대인들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때 본인은 '전부 유대인들 아냐? 이거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건지.' 라 말하곤 했습니다. 혁명전까지만 해도 그들의 입성이 금지되어있었기 때문에 페트로그라드에는 유대인이 거의 없었 만 혁명이 끝나자마자 유대인들이 이곳에 무리를 지어 몰려왔는데 이들은 대부분 공산주의 선동가들이었습니다. 리자면, 페트로그라드가 볼셰비키들에게 점령당한 뒤 혁명의 성공을 자축하기 위해 도시 요소에 내걸린 대형 포스 들도 전부 이디시어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이제 러시아의 공용어는 이디시어가 되겠구나라고 진짜 러시아 사람들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해 대단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Bolshevik Propaganda Hear the Sub-Committee of the Committee on the Judiciary, United States Senate, 65th Congress; U.S Archive)

#### NEW YORK CALL 유대계 잡지(뉴욕)

“그에게 러시아 혁명은 유대인의 승리였다. 그는 이스트사이드에서 혁명의 성공을 자축하는 인파의 물결과 기쁨이 칠 줄을 몰랐다고 말했다. 카한 씨는 이번 혁명은 유대민족의 대의를 위한 위대한 승리라고 거듭 말했다. 러시아의 구세력은 항상 반유대적 세력과 일치했다. 특히 혁명단체의 수뇌부에는 항상 유대인들이 포진하고 있었다는 사실 부는 반정부 운동의 진양지로 유대인 사회를 지목해 왔다.” (February 5, 1918; Abraham Cahan, Upheaval Fight for Liberty)

#### CHEKA 소련 비밀경찰

“혁명 직후 소비에트 정부에서 유대인이 누렸던 각별한 위상에 전세계 유대인들은 그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최 소련 공산당 정치국은 유대계 인사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레닌의 영도 하에 유대인들은 혁명의 모든 양상에 관여 여기에는 반혁명분자들을 처리하는 가장 더럽고 끔찍한 일도 포함되어 있었다. 반유대주의를 근절하겠다는 공산주의에도 불구하고 공산화 과정에서 일어났던 적색테러로 인해 유대인에 대한 반감은 혁명 직후 불길처럼 번져나갔다. Rapoport, Stalin's War Against the Jews, 1990)

“아마도 데르진스키를 제외하고 볼셰비키 정부의 요직에 포진한 유대인들의 비율은 체카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었 관점에서 볼 때 많은 유대인 청년들을 체카에 끌어들이는 주된 매력은 분명 비밀경찰이 보유하고 있었던 절대적이다... 이유가 무엇이든 체카 요원들의 대다수는 유대인이었다... 체카는 러시아 민중이 볼셰비키 정권에게 느꼈던 공포 기관이었기에 반유대적 감정은 체카가 수행했던 적색테러의 수위와 비례했다.” (Zvi Gitelman, Jewish Nation: Soviet Politics, 1972)

“체카의 수중에 떨어질만큼 불운한 인간의 운명이 머리뒤에 발사되는 유대인 요원의 총 한방에 결정될 확률은 미 (Leonard Schapiro, The Role of Jews in the Russian Revolutionary Movement, 1961)

#### THE DEFENDER 1930년대 미국 기독교-보수 월간지

"마침내 유태인은 힘없는 러시아인들을 상대로 대량학살과 고문에 대한 그들의 백일몽을 마음껏 행동으로 옮길 : 다. 이들은 기독교인들을 잡든 침대에서 끌고나와 고문하고 살해했다. 유태인들은 실제로 희생자의 신체를 조금씩 또 어떤 이들은 불에 달군 쇠꼬치로 지졌으며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안기기 위해 안구를 뽑아내기도 했다. 어떤 경머리와 사지가 드러난 상자에 들어갔고 그 상태에서 상자 안으로 투입된 굶주린 쥐들에 의해 몸통을 뜯겼다. 또 (과 발에 못질을 당하여 천정에 매달린 상태에서 서서히 죽어갔다. 쇠사슬로 바닥에 묶여있는 어떤 이들의 입에는 납이 부어지기도 했다. 많은 이들이 말에 묶여 거리에 질질 끌려 다녔으며 이를 보고 몰려든 유태인 군중이 던진 맞아죽었다. 기독교도 여인들은 그들의 아기들과 함께 광장에 끌려나왔고 유태인 적색분자들은 그들에게 그리스도 명령했다. 만약 여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유태인은 아기를 허공에 던졌고 또 다른 유태인이 총검으로 아기를 낫은 기독교도 임산부들을 나무에 묶어놓고 그들의 배를 갈라 태아를 꺼냈다. 혁명 당시 러시아의 많은 곳에서 공개졌는데 이중 한 사례에 관하여 미국에서 파견된 로박위원회(Rohrbach Committee)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 (Kiev) 체카사령부 안에 있는 한 처형실의 시멘트 바닥은 희생자들이 흘린 피로 질퍽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 수위했다. 피에는 사람의 뇌수와 두개골 파편들이 섞여 있어 괴기스러운 장면을 연출했다. 처형실의 벽은 피로 범벅이

며 어떤 곳에는 뇌수와 머리가죽의 일부가 말라붙어 있었다. 피를 빼내기 위해 만들어져 있었던 너비 25센티미터, 그리고 깊이 25센티미터 크기의 배수구 역시 피로 가득차 있었다. 일부 시신은 내장이 제거된 상태였으며 또 다른 자가 절단되어 있었고 또 일부는 형체를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난도질을 당한 상태였다. 일부는 안구가 없었으며 굴, 목, 가슴 등에 깊은 자상을 입고 있었다. 또한 우리는 가슴에 말뚝이 박혀있는 시신과 혀가 없는 시신들도 발견했다. 구석에는 주인을 알 수 없는 많은 수의 절단된 팔과 다리들이 쌓여있었다." (October, 1933)

*Source: Latvia, The Ghastly Years*

**Sir Percival Phillips** 駐러시아 영국 외교관

“나는 볼셰비키 러시아에서 지옥을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정권을 잡았으니깐요.” (Daily Mail, October 9, 1933)

### L'ILLUSTRATION 프랑스 시사주간지

“볼셰비키 정부의 주요인사 및 관료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생활하다보면 한가지 사실이 머리를 때리는데, 그것은 다 유대인이라는 점이다. 필자는 절대로 반유대주의자가 아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쓸 수 밖에 없다. 페트 스크바, 각 지방행정구, 정치위원회, 지역 소비에트 정부, 스몰니(Smolny) 등 가는 곳마다 맞닥뜨리게 되는 이들과 또 유대인들이다... 이 혁명에 대해 알면 알수록 볼셰비즘이란 그동안 러시아에서 차별적인 지위에 놓여있었던 체제전복 운동이란 사실을 깨달을 수 밖에 없다.” (September 14, 1918)

### JEWISH COMMUNAL REGISTER 뉴욕시 유대인 커뮤니티 연감

“러시아의 혁명 단 한방으로 그 나라의 유대인들은 완전히 해방되었다... 이번 혁명으로 민족적인 해방이란 차원의 대인들은 완전한 정치적, 시민적 권리를 누리게 되었다. 그러므로 짜르의 폭정으로 신음했던 6백만명의 동포들을 키려했던 구상은 이제 불필요한 것이 되었다.” (1917-1918, p 1425, p 1391)

\* \* \*

“유대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는 1917년 건국 때부터 소련 정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들 가운데 하나였다. 짜르체제 1주일 후, 레닌이 이끌었던 유아기의 사회주의 정부는 전국적으로 유대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했으며 지구상에서는 대주의를 중범죄로 규정했다... 그 어떤 형태건 모든 반유대주의는 극형을 포함하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었다.”

Levine, Soviet Russia Today, 1946)



로마노프 정부와 러시아 농민들에 대한 악의적인 묘사로 유명한 유대인 볼셰비키 영화감독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

### Maurice Cohen 유대인 공산주의자 (美)

“과장할 필요도 없이 저 위대한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은 유대인의 손에 의해 성취되었다고 할 있다. 음울하고 러시아의 노동자와 농민들이 그들만의 힘으로 과연 부르조아지들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물론 아니다. 유대의 프롤레타리아에게 인터내셔널의 새벽을 맛보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손에 쥐어져 있는 소비에트의 대 러시아를 이끌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레온 트로츠키 동지가 Red Army의 통수권자라는 사실을 환영한다. 赤軍의 속에는 유대인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중앙정치국을 비롯한 각종 소비에트 조직들에서 유대인은 정치위원(cc)로서 용감하게 러시아의 프롤레타리아를 승리로 이끌고 있다. 모든 소비에트 기관들 선거에서 유대인 동지들이 절를 얻어 요직에 임명되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닌 것이다. 수세기 동안 자본주의를 상대로 투쟁을 벌여온 유대민족이 러시아 프롤레타리아의 상징이 되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붉은색의 오각별은 시온주의와 유대민족의 상징이 이 행군하는 곳마다 기생충과 같은 부르조아지들은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 그들은 유대인이 흘린 눈물의 대가를 땀으로 치르게 될 것이다.” (The Communist, April 12, 1918)

\* \* \*

“모든 이의 눈을 피할 수 없는 확연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유대인과 소비에트 정권과의 관계였다. 언제든 백군(白軍)을 받아 적군(赤軍)이 도시나 마을에서 철수해야 할 상황이 오면 그것이 며칠이건 단 몇시간이건, 유대인들은 항상 적군과 함께 행동했다... 적군이 유대인 인구에 쏟은 관심과 이들을 철수시키는데 들인 성의와 노력을 보면 누가 볼셰비키 정권은 유대인 정권이였다.” (Lestchinsky, Between Life and Death)

### S. P. Melgounov 스페인 망명 러시아 역사가

"볼셰비키 정권의 적색테러는 너무도 광범위하게 펼쳐졌기 때문에 저항세력을 제압하기 위해 체카가 동원한 반인민을 여기에 일일이 나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가지 자주 사용되었던 수법 중에 하나는 인질을 잡아두는 것이었다. 여기서 각출된 인질을 잡아둔 체카는 민중봉기, 백군(白軍)을 위한 부역행위, 파업, 추수한 곡물에 대한 공출거부 등 위들로 규정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인질들을 공개처형했다. 그러므로 페트로그라드 특과위원회의 유대인 4명 살되었을 때 수천명에 달하는 인질들이 학살되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살해당하기 전 체카사령부의 지하실에 유대인 요원들에 의해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고문을 당해야 했다... 지금 내 앞에는 다가오는 白軍을 피해 볼셰비키 난 뒤, 각국에서 파견된 연합조사단의 참관 하에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하르코프(Kharkov)에서 촬영된 사진들이 모두 외면하고 싶을 정도로 참혹한 모습을 담고 있다. 이들 가운데 하나는 인질로 잡혀 있다가 파업에 대한 보복으로 공장노동자 3명의 사진으로 한 명은 눈가의 심한 화상과 함께 코와 입술이 도려내어져 있으며 두 명은 손이 절단되었다... 소작농이었던 아파니아수크씨와 프로코포비치씨의 시신은 머리가죽이 벗겨진 상태이며 신체의 요소에 불의한 듯한 화상을 입고 있다. 군 장교였던 보브로프씨는 혀와 한쪽 손이 절단되어 있으며 그의 왼쪽 다리는 가죽으로 덮여 있다... 또한 일부 사진에는 어떤 예리한 금속성 흉기를 사용해 벗겨낸 듯한 인피(人皮)들이 보인다. 이들은 모두 하르코프 특과위원회 건물의 지하를 수색하던 중 발견된 시신들을 촬영한 것이다. 퇴역장성으로 인질로 잡혀있던 중 아파씨의 시신은 오른 손의 피부가 벗겨져 있으며 성기가 훼손되어 있다. 또한 가구수리 사업을 했던 이바노브나 콜포바 대령의 카롤사하 부인의 시신들도 심하게 훼손된 채로 발견되었다. 이들의 가슴은 칼자국이 난채 그 안이기에 화상을 입고 있었는데 그 부위에서 석탄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네 명의 농부 인질들, 본다렌코, 푸코리, 그리고 시도리페후크의 시신은 모두 얼굴이 지독하게 난자되어 있었으며 성기부위에는 고환이 거세되어 있었으며 어지기 전에 집행된 것으로 보이는 이 수술로 이들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으리라 생각된다... 적색테러의 오된 온갖 패륜적인 만행들을 이 책 한 권에 모두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유대인 사엔코가 악명을 떨쳤던 희생자의 손가락을 장갑처럼 벗겨내는 특별한 기술로 유명했다... 보로네즈에서는 안으로 많은 대못이 박힌 드린긴 희생자를 가둔 다음 언덕에서 굴렸으며 희생자들의 이마에 달군 쇠로 오각별을 지지 넣기도 했고 짜리친(Tsarshin(Kamishin)에서는 톱으로 사지를 잘랐다. 케이프(Keif)에서는 희생자를 썩는 시체가 들어있는 관에 합장했다가 시 꺼내 심문을 다시 시작하곤 했다. 이런 일을 몇 차례 되풀이 당한 사람들은 대개 정신이 돌아버렸다." (El Ter Russia 1918-1924, tomo II; Editorial Caro Raggio, Madrid, 1927)

Source: *Latvia, The Ghastly Years*



(Now you know why Hitler called jews sub-human)

**Clare Sheridan** 미국 공산주의자, 트로츠키 측근

“공산주의자들은 유대인이며 러시아는 지금 그들이 통치하고 있다. 행정, 사법, 입법, 언론 등 모든 정부기관의 모든 그들은 모든 곳에서 진짜 러시아인들을 몰아내고 있다. 지금 러시아에서 급증하고 있는 반유대주의는 그들의 책  
(New York World, December 15, 1923)

\* \* \*

\*소련정부 유대계 비율표

총인원 / 유대인 / 유대계 비율

인민위원회의	22 / 17 / 77.2%
전쟁 정치위원회	43 / 33 / 76.7%
외교 정치위원회	16 / 13 / 81.2%
재무 정치위원회	30 / 24 / 80.0%
법무 정치위원회	21 / 20 / 95.2%
선전홍보 정치위원회	53 / 42 / 79.2%
사회조력 정치위원회	6 / 6 / 100.0%
노동 정치위원회	8 / 7 / 87.5%
해외 볼셰비키 대표부	8 / 8 / 100.0%
지방 정치위원회	23 / 21 / 91.3%
언론위원회	41 / 41 / 100.0%

(The Dearborn Independent, September 25, 1920)

AMERICAN HEBREW 뉴욕 유대계 일간지

“그 운명의 해였던 1914년부터 어어져왔던 불안과 소요는 러시아 혁명의 완결로 막을 내렸다. 혁명은 1세기 전의 보다 더욱 큰 의미를 지닌 사건으로 지구상의 그 어떤 집단보다 그 뿌리가 견고했고 이기적이었으며 극악무도했던 시아 황정을 마침내 타도하기에 이르렀다. 1차대전의 핵심적인 결과이자 가장 위대한 과업의 완성으로 역사에 기록된 유대민족이 인식한 부조리와 이에 대한 유대민족의 치유법,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의 재구축을 염원하는 유대민족의 산물이었으며 유대민족의 이상주의가 맺은 결실이었다... 러시아에서 대과업을 성취하게 한 유대민족의 역사적 그리고 열정은 다른 나라들에서도 동일한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September 10, 1920)

JEWISH TRIBUNE 시카고 유대계 일간지

“독일혁명은 유대인의 업적이다. 많은 수의 유대인 정치가들이 자유민주주의적 정당들을 이끌고 있으며 바이마르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July 5, 1920)

(로자 룩셈부르크, 폴란드 태생 유태인이 독일에서 혁명을?)

(룩셈부르크의 오른팔, 유태인 리쁘끄네히트)

1918년, 독일은 1년 전의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유대인 맑스주의자들이 주동하는 혁명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미드서부전선에서 막대한 사상자를 내며 패색이 짙어가던 상황에서 독일 사민당(SPD)은 패배주의 여론을 조장하면서 이를 흐르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사민당과 연계된 좌익단체들의 책동으로 1918년 11월3일 키엘의 독일해군기지에서도 장폭동이 일어났고 유대계 유력 일간지들의 선동적인 보도 하에 유혈소요사태를 동반한 총파업이 독일 전지역으로 극도로 불안해진 정국을 감당할 능력을 상실한 빌헬름 2세가 마침내 11월9일 퇴위를 선언하자 사민당은 기타 맑스들과의 연대 하에 독일 사회민주주의공화국(바이마르 공화국)을 선포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독일인들에게 곧 '비수꽃기'로 불려지게 되었다.) 공화국 선포 이틀 후 연합국과의 휴전에 서명한 신정부는 또 한편 군대의 해산을 로인해 독일은 남은 군사력을 담보로 평화조건을 협상하는 대신 베르사이유 조약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처지이다. 이 사건은 많은 독일인들로 하여금 독일 유대인들에게서 영원히 등을 돌리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해산을 명령한 사민당의 정치인들을 "11월의 범죄자들"이라고 불렀다.) 일단 군대의 해산으로 잠재적인 반혁명자 유대인 로자 룩셈부르크, 칼 리쁘끄네히트, 쿠르트 아이스너, 레오 조기쉬스, 프란츠 메링, 클라라 제트킨 등의 면으로 부상하여 러시아 볼셰비키들의 전철에 따라 혁명장악을 시도했다. 소련으로부터 무기와 자금을 지원받은 칼 리쁘끄네히트의 스파르타쿠스단(Spartakusbund)은 1919년 초 베를린에서 대대적인 무장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익장교단이 지휘한 Freikorps(해산된 군인들로 구성된 시민의용군)와의 시가전 끝에 격퇴되었고 주동자인 룩셈부르크와 리쁘끄네히트는 체포후 처형되었다. 이들 사후 제3차 인터내셔널은 독일 공산당(KPD) 당수로 유대인 칼 라덱을 임명했으며 역시 유대계 여류 공산주의자 루스 피셔가 1924년까지 KPD를 이끌었다.



(FreiKorp의 병사들)

(쿠르트 아이스너)

**Kurt Eisner 유대인 볼셰비키 (獨)**

“뮌헨에서 볼셰비키 혁명을 주동했으며 그 결과로 탄생한 바이에른 사회주의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던 쿠르트 아이스너가 뮌헨에 도착하여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그의 동지이자 내각에 임명된 아우어(Auer)에게 말했다, ” 11인의 왜소한 사위대한 혁명을 달성했소!” 그럼 이 “위대한 혁명” 을 성취했다는 “11인의 왜소한 사나이들” 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면 그 이름은 맑스 로웬베르크, 쿠르트 로센펠드, 가스파르 볼하임, 맥스 로스차일드, 칼 아르놀트, 크라놀트, 로센헨, 이스, 그리고 카이세르로 10인 모두 유대인이었다. 이들과 함께 쿠르트 아이스너 밴 이스라엘로비치는 바이에른의 명정부를 이끌었다. 11인은 예외없이 프리메이슨들로 모두 뮌헨 Briennerstrasse 51번지에 있었던 11호 비밀로다.” (Monseigneur Jouin, Le peril Judeo-Maconnique, 5 Vols. 1919-1927)

\* \* \*

1900년부터 히틀러가 집권한 1933년까지 독일의 유대인 인구는 전체 독일인구의 1퍼센트 미만(정확하게 .50-.75 퍼센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정당 소속의 유대계 정치인들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요직을 독식했다. 다음은 바이마르 유대계 인사들이다:

에버트(Ebert, 바이마르 초대 대통령), 프로이스(Preuss, 바이마르 헌법 성안자, 내무장관), 프룬트(Freund, 내무장관), 란더스베르크(Landsberg, 재무장관), 힐퍼딩(Hilferding, 재무장관), 카우츠키(Kautski, 재무장관), 쉬퍼(Schiffer, 재무장관), 그윈너(Gwiner, 독일중앙은행 총재), 에두아르 번슈타인(Eduard Berstein, 주정부 국고담당 비서), 코헨(Cohen, 주정부 차관), 허쉬(Hirsch, 내무장관), 로센펠드(Rosenfeld, 법무장관), 푸트란(Futran, 교육장관), 아르트(Arndt, 교육장관), 브레타노(Brentano, 산업, 무역, 교통 장관), 시몬(Simon, 프로이센 주정부 재무장관), 카스텐베르크(Kastenberg, 과학장관), 스트라트겐(Strathgen, 국가개발부 장관), 마이어-게어하트(Meyer-Gerhart, 식민지국 국장), 부름(Wurm, 식량장관), 코헨(Kohen, 독일 勞兵평의회 의장), 언스트(Ernst, 베를린 경찰총장), 바이스(Weiss, 베를린 경찰총장), 신제이머(Sinzheimer, 프랑크푸르트 경찰총장), 레비(Lewy, 헤센주 경찰총장), 쿠르트 아이스너(Kurt Eisner, 바이에른 대통령), 야페(Jaffe, 바이에른 재무장관), 탈하이머(Talheimer, 뷔르템베르크 지사), 하인만(Heinmann, 뷔르템베르크 지사), 풀더(Fulda, 헤센주정부 각료), 디어도어 울프(Theodor Wolf, 베를린 유력지 《Berliner Tageblatt》 편집장, 기타 사료의 주요인사: 메르츠(Merz), 바일(Weil), 카첸슈타인(Katzenstein), 스텐(Stern), 로웬베르크(Lowenberg), 프랑켈(Frankel), 쉐슬링저(Schlesinger), 이스라엘로비치(Israelowitz), 셀리그손(Seligsohn), 루벤하임(Laubenheim), 맥스 라인하르트(Max Reinhardt).



(바이마르 헌법 성안자 유태인 휴고 프로이스)

**Bela Kun - Aaron Cohen** 유대인 공산독재자 (헝가리)

“헝가리의 공산화를 위해 순탄대로를 닦고자 했던 인물은 유대인 측근들에게 둘러 쌓여있었던 프리메이슨 카롤리다. 카롤리 정권은 어린세대의 좌경화를 위해 교육부와 학계의 요직에 유대인을 비롯한 프리메이슨 지식인, 학자들을 했다. 전통적 교육질서를 전복하고 대대적으로 수정된 교과서들을 도입한 그들은 저격수의 조준숨씨로 헝가리 여자를 겨냥했다. 그들은 체계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아이들의 도덕과 애국심을 파괴했고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권고를 무시하며 난삽한 그림들이 삽입된 교재들을 동원하여 강제로 성교육을 실시했다. 이러한 ‘진보적인 교육’을 정권에 대해 학부모들의 원성은 끊이지 않았다... 카롤리가 선명한 것과 다름없는 벨라 쿤의 공포정치에 대항할 없었다. 그는 레닌처럼 절대권력을 휘두르는 정치위원들로 스스로를 둘러 쌓는다. 32인의 주요위원들 가운데 25명이며 이 비율은 러시아의 그것과 비슷했다. 이들 중에서도 최고의 권위를 지닌 최고위원회의 5인 가운데 네 명이 유대계 실명이 각각 코헨(Cohen), 바이츠(Weiss), 슈와츠(Schwartz), 쿤슈테터(Kunstatter)인 벨라 베이가 조셉 포가니(Joseph Pogany), 시기스몬트 쿤피(Sigismond Kunfi)였다. 또한 유대인 알파리(Alpari)와 스자무(Szamuely)는 헝가리의 애국자들을 상대로 무자비한 적색테러를 전개해나갔다.” (Cecile de Tormay, An Old Diary, 1923)

1919년 유대인 벨라 쿤은 러시아 다음으로 헝가리에 두 번째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했다. 일찍이 러시아 볼셰비키였던 그는 합스부르크 왕정의 붕괴와 함께 득세한 ‘진보’ 성향의 카롤리 정권과의 교감하에 헝가리의 권력을 탈취했다. 호르티 제독이 이끈 민족주의세력에게 축출되기 전까지, 흔히 ‘벨라 쿤의 100일 천하’로 불리는 1919년 3

일까지 벨라 쿤 정권은 그 포악성에 있어 러시아를 능가하는 잔혹한 공포정치로 온 헝가리를 두려움에 떨게 했다. 에 끼어 많은 외침을 경험한 헝가리의 국민들이었지만 그들에게 가장 극심한 시련을 안겨준 집단은 벨라 쿤의 정 유대인 이웃들이었다. 런던에서 발행된 《1919 Yearbook》(Dodd, Mead, Co., p.587)에 의하면, “벨라 쿤 정부 전적으로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혁명정부 초기 공산주의자들은 온건좌파 성향의 사민파와 공동보조를 취했 라 쿤은 이념적 색채와는 별도로 정부를 구성함에 있어 요직의 인사들을 헝가리의 유대인 사회로부터 조달했다.”

#### Louis K. Birinyi 헝가리 법조인

“헝가리인들이 마침내 유대인의 만행에 대항하기 시작했을때 이 나라에서 “백색테러”가 자행되고 있다는 뉴스 퍼져나갔다. “우리는 스스로를 대변할 힘이 없었다,”는 텔레키 백작의 고백처럼 유럽 주요국들의 여론을 제단하 대인들의 수중에 있었다. 폴란드와 러시아에서 건너온 저 유대인들은 일요일 오전 교회에서 나오는 기독교인들을 매다는 식으로 그들 내키는대로 우리 국민을 살해하고 학살했다. 그러나 헝가리 밖에 사는 그 누가 이런 사실을 ? 반면 한 헝가리인이 실수로 유대인의 발가락이라도 밟게되면 그 유대인은 너무도 큰 소리로 요란을 떨기에 전 세 인의 비명을 듣게 되는 것이다.” (The Tragedy of Hungary, 1924)

### 윈스턴 처칠

“... 일부 애국적인 유대인들의 이러한 노력에 맞서 국제유대인의 폭력적인 음모가 그 마각을 드러낸다. 이 음험한 자들은 대개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멸시를 받았던 나라에 살았던 유대인들이다. 그들의 대부분 영적인 구원에 대한 희망을 포기한 자들로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러한 정치운동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스팔하우트의 시절부터 칼 맑스를 통해 러시아의 트로츠키, 헝가리의 벨라 쿤, 독일의 로자 룩셈부르크, 미국의 에마 골드만까지, 문명사회를 전복시키고 억압된 성숙, 시기와 질투에 근거한 악의, 그리고 도저히 불가능한 평등이라는 토인비 사회를 재구축하려는 유대인들의 전 세계적인 음모는 꾸준히 그 세력을 불려왔다. 이 시대의 저술가인 웹스터 부( Webster)도 자신의 저서를 통해 설득력있게 입증했듯이 이러한 음모는 프랑스로의 비극에서도 분명히 핵심이었으며 그 후 19세기 유럽에서 전개된 모든 체제전복 운동들의 근원에 자리잡고 있었다. 그리고 유럽과 아메리카의 암약해왔던 이 특출난 일당은 마침내 러시아 국민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사실상 이 광대한 제국의 절대군주들로 통치하는 세비즘의 탄생과 러시아 혁명의 실현과정에서 이 세계주의적이며 무신론적인 유대인들의 역할은 과장할 필요가 없다. 이 혁명에서 유대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요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절대적이다. 레닌을 제외하고 혁명지도자들은 유대인이며 이들에게 사상적 영감과 이론을 제공한 이들도 유대인들이었다... 소비에트 정부의 유대인 더욱 놀랍지만 한다. 특히 반혁명세력에 대한 테러조직의 역할을 수행하는 체카에서 여성을 포함한 유대인들의 주된 활약만 한다. 벨라 쿤이 헝가리를 잠시 통치했던 기간에도 적색테러와 관련하여 유대인들의 이런 사악한 역할은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또한 독일에서도 나타났다. 특히 바이에른에서는 패전으로 무기력과 실의에 빠진 독일국민을 포위하여 이러한 광란극이 한동안 연출되기도 했다. 전체인구에서 유대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할 때 유대인들이 이들 국 운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충격적이다.” (Zionism Versus Bolshevism: A Struggle for the Soul of the Jewish People, Illustrated Sunday Herald, London, February 8, 1920)

### Oscar Levy 유대인 의사, 작가 (英)

“이 세상에서 유대인보다 더욱 불가사의하며 치명적인 민족도 없다. 유대인과 그들이 끼친 영향에 대한 질문은 그 이해하는 열쇠이며 모든 진실의 근원으로 유대인문제는 모든 정직한 사상가들에 의해 논의되어야 할 주제이다... 이 세계도 불만에 가득 찬 목소리로 자본과 산업이 유대인들에 의해 독점됨으로서 생겨나는 병폐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반란과 혁명을 주동하는 주된 불순세력임을 지적한다. 당신들은 또한 막대한 부(富)를 손끝에 부리는 유대국제금융(集産主義)이 민주주의를 내건 칼 맑스와 트로츠키의 국제공산주의와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리고 그 차원에서 이 모든 극악한 상황과 비참한 현실에 대해 당신들은 그 원인을 유대인이라는 한 민족으로 추슬러 올라가 현대유럽에서 일어난 일들 가운데 그 근원을 유대인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거의 없다. 얼마전에 끝난 세계대전에 들어 보자. 과연 그 전쟁의 기원과 명분이 무엇이었는데 스스로에게 다시 질문해 보라...”

“당신들은 경악에 찬 목소리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는 이 세상의 영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종말을 가져올 유대인

을 지적한다. 이론과 실천, 이상주의와 유물론, 그리고 정치와 철학에 있어 모세로부터 맑스까지, 유대인은 언제나 분과 목표에 열정적으로 헌신해왔던 족속이었다... ‘하지만 유대인의 그런 명분과 비전은 그릇된 것’ 이라고 당시 것이다. 그리고 외칠 것이다, ‘한번 돌려 보라. 유대인이 이 세상을 어떤 지경으로 몰고 왔는지. 지난 300년 동안 을 일으켜왔으면서도 아직 부족하다는 것인가?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는 당신들에게 이런 세상을 강요당하고, 또 ! 달려야 하는가?’ ... 이에 대해 나의 대답은 한가지 뿐이다. 그것은 당신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이다! 이러한 운 도 정당한 것으로 이러한 의견일치의 토대위에서 나는 당신들과 기꺼이 악수를 나눌 준비가 되어있으며 당신이 적인 증오에서 그런 말을 하는게 아님을 인정할 것이다... 당신이 만약 반유대주의자라면 유대인인 나는 당신들! 유대주의자임을 나는 고백한다. 동포여, 우리는 잘못을 저질렀다. 그것도 아주 중대한 잘못을. 그동안 세상의 구원 던 우리는 오늘날 인류의 화근이요 유혹자이며 파괴자이고 사형집행자 외에는 그 무엇도 아니다. 당신들에게 새로 속했던 우리는 당신들을 새로운 지옥에 끌어다 놓았다. 그 동안 진보란 것은 없었고 특히 인류의 도덕적인 진보길 옥 없었다. 그리고 인류의 참된 진보를 가로막았던 것은 바로 우리의 파괴적인 도덕과 세계관이었다. 나는 이 세 음침함에 몸서리를 친다. 그리고 그 영적인 집필자의 정체를 알기에 나는 더욱 격렬하게 몸서리를 칠 수 밖에 없 은 종교이자 신앙이다. 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자들이 혁명과 반란의 전문가인 유대인들이 이끄는 칼 맑스의 불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Dr. Oscar Levy, Preface to the World Significance of the Russian by George Pitt-Rivers, 1920)

### George Pitt-Rivers 영국 언론인

“그 동안 러시아의 짜르정부를 상대로 악의적인 중상과 비방을 전개해온 나라는 국제유대인의 본거지인 이곳 영 은 체계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짜르정부를 세계 역사 초유의 폭압적인 전제정권으로 선전해왔다. 그럼에도 불 러시아에서 오랫동안 생활했던 스테픈 그레함씨와 같은 영국작가는 러시아를 유럽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라고 믿 았다. 물론 러시아는 영국에 비해 훨씬 덜 상업화된 나라이다. 그리고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상업화된 나라이자 두 이기도 하다. 그리고 유대인은 단순하고 순박한 농경생활에 별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민족이다. 그보다는 무제한 팽창과 그로인해 급증하는 대도시 인구, 계산이 빠른 중간상인으로서 유대인들의 제약없는 상업적인 착취, 이윤, 가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고 소유한 재물의 크기로 인간의 평등을 가능하는 잣대, 또한 자유주의(liberalism)와 민주주 래 자행되는 모든 수준의 하향 평준화야말로 유대인들이 오늘 이 시대 전 세계에 전파하는 컬트(cult)이다. 민주주 래 유대인의 물질숭배와 상업주의에 맹종해왔던 지난 300년간의 전통을 지닌 영국이란 나라가, 비록 부족함이 있 고, 순박하고 선량한 농경백성과 가부장적인 정부를 꿈꾸었던 알렉산더 3세의 통치이상을 과연 이해할 수 있을지 (World Significance of the Russian Revolution, 19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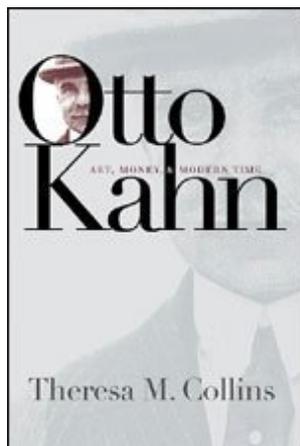
### Alfred Rosenberg 독일 국가사회주의 이론가

“러시아는 국가적 차원에서 ‘민주주의’ 와 ‘진보’ 로 위장된 국제유대인의 책략에 조직적으로 저항했던 유일한 다. 러시아 국가의 정점에는 의회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절대군주가 자리잡고 있었고 그 밑에는 기독교적 신 의 정치적 전통으로 중무장한 귀족관료층이 버티고 있었다. 또한 상당한 독립적인 자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들에 레를 제외하고, 유대자본은 거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러시아는 유대인의 공직임용과 유대인이 군대에 진출

락하지 않았다. 광대한 영토와 지하자원을 바탕으로 러시아의 지배층은 막대한 가치의 부동산과 삼림을 소유하고  
 은 유대인의 금권(金權)에 의존할 필요를 별로 느끼지 못했다.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곡물은 풍성했고 시베리아와  
 끊임없이 발견되는 금광으로 국가의 금(金) 보유량도 넉넉했다. 또한 국가는 가용 금속자원도 40억 마르크에 달하  
 유하고 있었다. 이에 더해 황실과 수 많은 교회, 수도원, 그리고 민간자산 등, 러시아의 國富는 실로 어마어마한 것  
 러시아는 산업생산량에 있어서는 아직 개발이 미흡한 국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이미 오래전 자급자  
 역량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미 서유럽을 성공적으로 제압했던 유대국제자본 네트워크에게 러시아의 이러한 경제적  
 들의 세계지배에 대한 크나큰 걸림돌이 아닐 수 없었다. 러시아는 혁명 전까지 유럽에서 기독교와 보수적 원칙들  
 을 해왔고 그 어떤 대대적인 무장반란도 국가의 강력한 군대에 의해 타도되었다. 자국 안에서 분란과 소요를 획책  
 결사들을 제도적으로 금지했기에 유대인의 기만적인 선전과 선동은 기대했던 것만큼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염두에 두면 왜 국제유대인이 러시아를 무너뜨리는데 그와같은 총력을 기울였는지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것이  
 (Weltkampf, 1925)

**오토 칸 유대인 국제금융가 (美)**

“그 곳에는 민족세력이 주도한 쿠데타의 성공 이후 헝가리를 탈출했던 일단의 유대인 혁명가들도 있었다. 그들은  
 복을 입고 있었는데 듣자하니 미국정부가 중부유럽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윌슨 대통령은 그들의 보고와 조언에  
 다고 한다. 대개 여러국가의 주요인사들이 참석하는 만찬은 외교에 있어 절호의 기회이기도 한 동시에 예상치 못하  
 수도 있다. 그날 나는 내 옆자리에는 앉은 꽤 거물로 보이는 한 인사와 기억에 남을 만한 대화를 나누었다. 그의  
 칸이었다. 그는 볼셰비키 정권에 자금을 제공하고 있는 뉴욕의 한 거대투자은행의 경영자로 막 취임한 인물이었다  
 자들 가운데 한 명은 국제자본이 어떻게 그들의 타도를 외치는 볼셰비즘 운동을 후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지를 그  
 유럽의 배고픈 이들을 먹이기 위한 자선사업단을 이끌고 있었던 그는 큰 잔에 담긴 헝가리산 토카이 백포도주를  
 시 숨을 가다듬었다. 그리고는 5프랑의 금화는 족히 들었을 법한 거대한 여승연을 한모금 뺐 뒤 말했다:



(뉴욕 투자은행 Kuhn & Loeb 회장)

‘우리와 소비에트의 동맹관계에 대해 놀라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야말로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 중에서도  
 며 민족주의적이라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장 오래된 민족이자 가장 강하게 결속되어 있으며 또  
 적인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그 오랜 세월의 끔찍한 박해와 고난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도  
 영웅적인 민족주의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사람들은 또한 우리의 민족주의야말로 가장 순수한 민족주의리  
 니다. 우리의 민족주의는 가장 영적인 것이기에 우리는 수백년 동안의 모멸과 수난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세상의 소금인 것입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대구 생선을 소금에 절  
 의 얘기를 아십니까? 내가 뉴펀들랜드에 낚시휴가를 갔을적에 들은 얘긴데 그들의 얘기는 소금을 너무 많이 쓰면  
 되고 너무 적게 쓰면 썩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같은 교훈은 마땅히 이 세상의 사람들(고임, Goyim)과 그들의  
 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 유대인은 소금으로 상징되는 우리의 지혜를 현명하게, 적재적소에, 알맞은 분량으로

을 터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그 소금을 인간들이 소비하는 빵에 섞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와 같은 부도덕한 과거의 잔재를 청산하고자 할 경우에만 부식을 일으킬 만한 분량의 소금을 사용합니다... 시즘이 자본주의의 안티테제라고 말하지만 우리에게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는 모두 거룩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은 양극단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며 그로인해 우리는 양극을 잇는 이 세상의 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언뜻보듯 재들과 같이 보이는 볼셰비즘과 우리는 인터내셔널에서 그 동질적인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현실과 그 교리에 있어도 보이지만, 富를 무기로 사회의 상층부로부터 아래로 작용하는 자본주의와 민중혁명을 무기로 사회의 하층부에서 작용하는 공산주의는 이 세상을 우리들의 뜻대로 재구축하고자 하는 의도에 있어 그 궁극적인 목표와 종착점이 합치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세상에 새로운 율법을 반포하고 새로운 神을 창조하는데 있습니다. 아니 창조한다기 보다는 그것을 정확하여 때가 오면 그 실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신을 스스로 메시아가 된 이스라엘 민족과 동등한 신의 개념을 정확시킬 것입니다. 새로운 신의 선포는 이스라엘의 최종 승리로 실현될 것입니다. 이러한 구상이야말로 신약성경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왕과 선지자들에게 합당한 의미를 부여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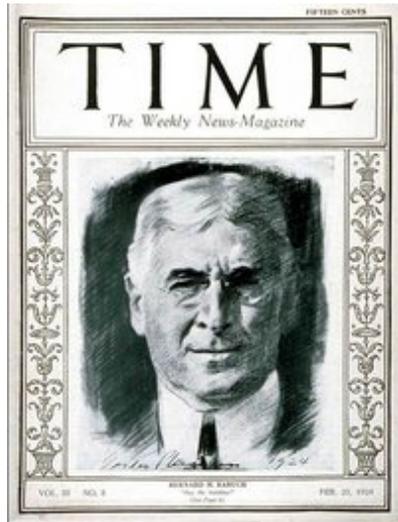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건데, 혁명은 富와 특권의 주인이 바뀐다는 것외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을 당신들이 알고 있습니다. 진정 황금송아지를 살피우는 것은 자본의 창출도 아니요 자본을 이용한 착취도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도 살피우는 것은 자본의 유통과 흐름이요 이와 결부된 투기의 영혼입니다. 자본의 주인이 바뀌면 바뀔수록 그 자본의 흐름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에 대해 수수료를 받습니다. 우리는 자본의 흐름을 통치하는 말하자면 세계의 수많은 교차로들에서 전 방향으로 이동하는, 마치 ‘이름없는 방랑자’ 와도 같은 자본에 대한 권도 같습니다. 그 자본의 이동이 국가들 사이에서 일어나건,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일어나건과 상관없이 말입니다. 본질적인 역동성은 파괴의 힘과 창조의 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하기 위해 파괴합니다... 우리가 조직한 볼셰비즘의 파괴력의 증거요, 또한 우리가 만든 국제연맹은 우리가 지닌 창조력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제공할 동력에 대해 불평을, 그리고 국제연맹은 브레이크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할 길은 이미 오래전에 정해진 것이 아니며 있지만 가슴속에 타고르고 있는 민족의 신앙으로 이어진 유대인은 이 사명의 주체입니다. 우리는 모든 국가가 있는 세계정부요, 이스라엘은 미래 제국의 씨앗입니다.’ ” (Saint-Aulaire, Auguste Felix Charles de Beauvoir, Geneva versus Peace, 1937)

**Vicomte Leon de Poncins** 프랑스 반공저술가

“혼란과 파괴의 상징, 이 볼셰비즘(유대교)은 그 무엇보다도 반기독교적, 반사회적 개념이다. 이 시대를 휩쓸고 있는 오직 한 민족적, 그리고 종교적 개체에게만 이로운 따름이다. 그들은 바로 유대인이다. 이 혼란과 광기의 기원이 무엇인가? 건, 프리메이슨이건, 아니면 유대인의 민족주의건, 혹은 부를 독점하기 위한 유대 대자본의 음모이건, 유대인이 혁명과 사회주의 등 각국의 사회주의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혁명을 통한 기존질서의 전복이 유대인에게 미하는지는 자명해진다. 양대 진영을 구분짓는 대결의 선은 날이 갈수록 극명해져가고 있다. 러시아를 손아귀에 낀 대세력에 대해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보내는 공개적인 갈채와 성원은 이 대결이 기독교 대 유대교, 그리고 민족주의, 아니 세계주의로 위장한 유대 국제권력의 대결이라는 사실을 의심의 여지없이 드러내준다... 세상이 다 아는 것의 애국정부는 자국의 프리메이슨 단체들을 해산하고 법으로 금지시켰다. 헝가리의 프리메이슨들은 10월 혁명에 그 나라 정통성이 없는 벨라 쿤 정권에 부역했다. 유대인들이 퍼뜨리는 독소적 사상의 영향아래 이 자들은 의식적으로 반민족적, 반국가적, 반사회적 교조를 전파하여 헝가리 정부와 국민들에게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남겼다는 그 나라의 진정한 국민들에게 해악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것이다...” (La Dictature des Pouvoirs Occultes)

**Lord Eustace Percy** 영국 외교관

“국경에 근거한 영토적 주권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세계질서 속에서 유대인이 생존, 번영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이다. 하나는 다른 민족들의 민족국가란 개념을 해체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특정한 영토에 자신들만의 민족적 주권을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동부유럽에서 볼셰비즘과 시오니즘(Zionism)은 서로와 발을 맞춰가며 성장한다... 유대인 개념들에 헌신하는 이유가 이방민족 국가들의 발전과 안녕에 기여하고자 함은 물론 아니다. 정치와 경제, 문화를 떠난 유대인들의 권력체제도 유대인들에게는 증오의 대상일 뿐이기 때문이다.” (Henry Ford, Aspects of the Jewish Question)



(유대인 Bernard Baruch, 월스트리트 투자은행가로 FDR의 돈줄, 워싱턴포스트 사주이자 세계은행 초대 총재였던 Eugene Meyer는 바룩의 동업자였다)

THE GLOBE 런던 일간지

“볼셰비즘은 기독교 국가들에 대한 정치, 경제적 침략외에는 그 무엇도 아니다. 볼셰비즘의 확산으로 자본은 더 들의 손에 남아 있지 않을 것이며 전 세계의 유대인들은 이념적 경계를 넘어 서로간의 상부상조를 통해 그들이 온에서건 균림할 것이다. 오늘날 국제유대인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두 곳은 뉴욕과 러시아이다. 세상에서 제일 많대인이 거주하는 도시란 타이틀과 함께 뉴욕의 가공할 국제금융자본은 물질적인 차원에서 세상을 호령하고 만사들한 지구의 반대편인 러시아에서 유대인은 사상 초유의 반란적 기질과 무자비한 음모로 그 광대한 제국을 점령하는다... 저 디어도어 헤르츨이 말했던 유대인의 ‘끔찍한 돈의 힘’ 과 반란과 혁명을 선동하는 공산주의는 오늘 이, 의미를 지닌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모태로했던 앙시앵레짐의 말살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기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목표의 공유뿐만 아니라 언뜻보면 적대적인 두 진영이 인류의 눈이 감지할 수서는 실제로 긴밀하게 협력, 공조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수많은 증거들이 존재한다.” (George Pitter Wilson, A 1919)

JEWISH WORLD 영국 유대계 일간지

“우리는 한 종교로서 기독교가 우리 유대인들에게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반추해보지 않을 수 없다. 기독교가 번창년은 우리 유대인에게 망명과 유배를 감내해야 했던 고통과 비극의 세월이었다... 때때로 기독교가 우리에게 내밀, 손길도 실은 우리의 개종을 유혹하기 위한 미끼였을뿐이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지로서 교회의 권력이 커지면 커의 수난은 그 도를 더해갔다. 오직 교회의 영향력이 감소했을 때나 약했던 곳에서만 유대인은 삶을 꾸려갈 수 있, 폭동, 그리고 반유대주의적 운동들의 기원도 사실상 모두 기독교가 심어놓은 유대인에 대한 뿌리깊은 증오심과 및 그러므로 유대인이 기독교란 종교에 호감을 갖거나 기쁜 마음으로 반길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이다.” (Decemb

“독실한 유대인은 유대교가 반기독교적 신앙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March 15, 1924)

\*\*\*

“유대인들은 레닌의 죽음을 각별한 비통함으로 애도했다. 이는 단지 혈연으로만 유대인들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였다. 유대인 학교의 어린이들은 장례행렬을 따랐으며 히브리 예술극장(하비마, Habima)에서 언어로 표기된 플래카드를 봉헌하기도 했다. 여기에 적힌 구호는 다음과 같았다, ‘그대는 국가들을 자유롭게 하

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야콥 마이스 모스크바 수석랍비와 함께 이 도시의 유대인 단체들은 레닌의 죽음을 일제히 발송했다. 또한 유대인작가동맹은 이디시어로 꾸며진, 레닌의 업적을 추모하는 특별호를 발간했다.” (J. 1924)

#### 버트란드 러셀

“불세비즘은 철저히 패쇄된 관료계층의 폭압정치이다. 인민에 대한 감시체제는 짜르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었고 무자비하다. 소련의 신흥 지배계급은 무례하고 냉혹하며 미국식에 익숙한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말과 행동만 찾아볼 수도 없다. 마치 거대한 쇠덩어리에 짓눌린 듯 나는 침울함과 착잡한 마음뿐이었다.” (The Autobiography of Bertrand Russell, 1975)

#### Nesta Webster 영국 역사가

"외국인의 제약없는 유입, 특히 유대인 이민자들에 대한 무제한적 수용은 항상 노동당의 주요 정강들 가운데 하나의 성향의 지식인들 또한 유대인 자본가들에게 매우 호의적이다. 그들은 영국인 기업가들에 대해서는 격렬히 비난하면서도 유대인 백만장자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자본주의에 맞선다는 투쟁과 관련하여 반드시 유념해야 할 점에도 두가지 부류가 있다는 사실이다. 첫 번째는 민족주의적 산업자본가이다. 이 부류의 대다수는 비유대인들로 이 두뇌와 정력으로 맨손에서 시작하여 번창하는 사업을 일군 사람들이다. 두 번째는 국제적인 자본 유통망을 구축한 자본가들이다. 물론 비유대인도 찾아볼 수 있으나 이들의 절대다수는 유대인들로 이들의 본질적인 수입원은 생산(공업과 투기다. 사회불안과 혼란이 첫 번째 부류의 자본가들에게는 치명적이 될 수도 있는 악재(惡材)인 반면 두 자본가들에게 모종의 경제공황이나 소요사태는 큰 이윤을 남길 수 있는 훌륭한 기회가 된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부분은 사회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이 그토록 맹렬하게 공격하는 자본가들은 전쟁과 혁명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나니라는 점이다. 이들 자본가들은 오히려 그들의 사업으로 국가의 번영에 기여하는 동시에 수백만의 국민들에게 한다. 민족적인 산업자본가들에게 공격을 집중함에 있어 유대인과 사회주의자들은 공통분모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만약 노동자들이 그들의 노동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대신 단순한 일일 식량배급제 등, 삶의 필수품을 국가로부터 공산주의 체제의 궁극적인 청사진을 받아들이도록 설득당한다면 국가를 지배하는 관료층은 마치 노예를 부리는 노예령, 또한 지금 러시아에서처럼, 그들의 근로자들에게 그 어떤 열악한 조건이나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의지대로 있게 된다... 유대인들은 물론 그 관료지배층의 지위를 확보하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 민족사이에 존재하는 힘력으로 그들은 빠른 속도로 고위요직들을 독점할 것이다. 러시아에서는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났고 지금 독일에서도 전개되고 있다...

"신에게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세계는 결국 유대인이 지배하게 될 것이란 관념은 랍비적 유대교(Rabbinical Judaism) 핵심적인 근간을 이룬다... 유대민족의 종교는 오늘날 구약성경보다는 탈무드를 더욱 신봉한다. 나는 부도덕하고 반국가적인 이 탈무드를 맹신하는 유대인들이 사회의 정직한 구성원들로서 이 나라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인은 직접, 간접적으로 그들이 사는 나라에 불안과 소요와 혁명을 불러왔다. 그들은 가장 사악하고 교활한 술수로 준 동료 인간들에게 파멸과 고통을 안겨주었다. 유대인에 대한 원망과 증오의 원인은 인간의 도덕적 행실이라는 ! 저야 할 세계관과 인간관을 간과하는 유대교의 성격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유대인이 주도하는 세계혁명의 궁극적 회주의 세상도, 공산주의 세상도 아니며 현재의 경제체제를 변혁시키는 것도 아니며 세상의 물질적인 멸망도 아니 하는 것은 도덕적이며 영적인 혁명이다. 그들은 그들이 조성하는 가치관과 관념의 무정부주의적 혼란상태를 통해 이 세계를 지탱해온 토대를 전복하고 그 모든 명예로운 전통을 짓밟으며,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기독교적인 이상을 하고 하는 것이다.” (Secret Societies and Subversive Movements, 1924)

**Rabbi Lewis Browne** 유대인 작가 (美)

“우리는 젠타일(Gentile, 비유대인)들을 재창조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혁명가들이 지금 러시아에서 수행하고 있다.” (How Odd of God)

“유대인의 역사책은 칼 맑스라는 이름을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과 정신은 백날 입으로 들보다 훨씬 더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에 신실한 것이었다.” (Stranger Than Fiction)



**미국 공산당 (Communist Party of USA, CPUSA)**

“1921년부터 1961년까지 미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유대인이 차지했던 비율은 33.5퍼센트였으며 평당원 수준에서도 차지했다. 미국에서 태어난 여러 민족 출신들 중에서도 매년 탈당자보다 입당자의 수가 많았던 민족은 유대인 (H. Klehr, Communist Cadre, 1978)

“1950년대를 거쳐 5만명에 달했던 미국 공산당에서 유대인은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들에 있어 입당자의 숫자의 숫자를 상회했다. 다른 민족출신들에 비해 인구비례상 유대인의 공산당 입당율은 10배가 넘는 것이었으며 비슷한 숫자의 유대인 사회주의자 및 무정부주의자들과 같은 좌경급진주의자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다.” (Na The New Left and the Jews, 1969)

1920년대 유럽과 미국의 유대인들, 특히 급진적 정치운동에 가담하고 있었던 유대계 지식인들은 소련을 인류역사적, 진보적 사회로 선전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소련을 “어둠으로 둘러싸인 세상에서 홀로 외로운 빛을 인류의 유일한 희망” 으로 묘사하는 것은 가장 상투적인 표현법이었다. 1934년 미국의 한 유대인 공산주의자는 그 소련을 “러시아에 내려온 천국” 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독일이 국가사회주의로 유대인 문제를 해결하려했듯이 이들에 있어 소련은 국제사회주의야말로 반유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을 입증해 주는 살아있는 라서 이 당시 대다수의 유대인들에게 공산주의는 ‘유대인에게 이로운 것’ 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1939년 소련의 불가침조약으로부터 1941년 6월 독-소 개전 전까지의 기간만 제외하고 서구의 유대인들은 전후에도 소련과 한 동구공산권의 존재가 유대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식했다. 1920년대 초반부터 미국 공산당은 소련으로부터 정신적인 지원을 받으며 미국 내에서 소련의 입장을 옹호하고 소련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한편 지하에서는 찰의 지령에 따라 미국에 대한 간첩임무도 수행했다. (1947년 소련에 원자폭탄 비밀을 넘긴죄로 처형된 유대인 로 역시 미국 공산당 당원이었다.) 1930년대 미국에서 유대인 공산주의자들은 소련이 심어놓은 공산주의 지하세포의 을 차지했으며 1947년 스미스 법안에 의해 기소된 공안사범들 가운데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폴란드와 러시아어 처럼 사실상 유대인의 운동이었던 공산주의를 만인 보편적인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미국 공산당의 유대인 수뇌부 상대로는 그들의 이름을 미국식으로 개명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했고 외부의 눈에 띄는 직위에는 항상 지방출신 인물을 배치했다. 이 때문에 자신이 본질적으로는 유대인 정당과 다를바 없는 조직의 포장지 역할을 하고 있음을 게 공산주의자들의 탈당은 빈번하게 일어났다. (Source: H. Klehr, Communist Cadre, 1978; N. Glazer, The and the Jews, 1969; K. Kann, Joe Rapoport, 1981; Klehr, Haynes & Firsov, The Secret World of Ar

Communism, 1995; A. Liebman, Jews and the Left, 1979)

### Jews in American Communism List



(원자탄 비밀을 소련에 넘긴 유대인 로젠버그 부부)



(CPUSA 당원, 릴리언 헬만, 유대인)

(유대인 영화감독 엘리아 카잔, CPUSA 비밀당원, 1930-1960년대, 할리우드는 용공세력의 온상이었다)



(아서 밀러, 유태인 작가, CPUSA 당원)

(록펠러가의 家臣 해리 홉킨스, FDR 측근으로 친소련 정책 주도, CPUSA 물주)

(용공 언론인, 월터 리프먼, 유태인)

(UN현장 성안자, 알타회담 주도, 소련 스파이 알저 히스)

(국무장관 딘 애치슨: 애치슨과 알저 히스는 열렬한 시온주의자였던 유태인 대법원 판사 브랜다이스와 프랑크푸터였다. FDR 행정부가 1933년 소련을 공식 승인하기전까지 브랜다이스의 주선으로 워싱턴 소련대표부의 수석법률고  
던 애치슨은 히스와 함께 금융재벌 시온주의자들이 미국 연방정부에 심어놓은 용공인맥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히  
시 美국무장관)

(유태인들이 요직을 독식했던 FDR 행정부 출범과 함께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던 용공세력 - 실은 금융자본과 맞서

한 시온주의 세력 - 의 미국 정부 침투를 국민들에게 경고했던 미국 애국자 조셉 맥카시 상원의원: 한국에서 전장은 흑막을 폭로하려다 의문사 당한 제임스 포레스털 해군성 장관과 비슷하게 그 역시 불투명한 상황에서 죽음을 미국 유대인들에게 그는 히틀러 못지않은 증오의 대상이다)



(‘맥카시 선포’ 당시 용공세력을 조사하는 닉슨)

"The only two non-Jews in the communist conspiracy were Chambers and Hiss... Everyone else was a Jew and it raised hell with us." (Statement of President Richard Nixon in 1971, at the White House on tape and released by the National Archives in 1999; quote in New York Times October 7, 1999)

**Henry Waton** 유대인 공산주의 이론가 (美)

“공산주의는 인류의 미래이다. 만약 하나의 진정한 사회학의 경전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마르크스의 ‘자본론’ 이 인만이 이런 책을 쓸 수 있다... 유대인은 지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뛰어난 문화를 가진 민족이다... 유대인에게는 각 시키고 이 세계의 주인이 될 권리가 있다. 유대인은 전 세계의 군주가 되어 이 세상의 모든 국가들을 그들의 통치 다. 물질적인 영향력이나 폭력이 아니라 빛과 지식, 이해, 인류애, 평화, 정의, 그리고 진보를 통해서... 아리안 인종 인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세상을 개선하고 아름답게 할 것이다. 그 틀이란 바로 공산주의와 인터내셔널리즘이다. 주의(State capitalism)는 러시아에서처럼 혁명을 통해 아래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고 미국에서 그러할 것인듯 위 질 수도 있다... 유대인은 이 세상을 상속받을 것이며 그 외의 모든 민족과 인종은 아예 지상에서 사라지거나 유다 다.” (A Program for the Jews, 1939)

**Reinhold Niebur** 유대교 학자 (美)

“마르크스주의는 유대교의 신이 내린 계시의 현대적 발현이다.” (In a Lecture before Jewish Institute of New York, October 3, 1934)

**Christian Rakovsky** 유대인 駐佛 소련대사

“아니오, 무슨 비교(秘敎)라 할 것도 없습니다. 실은 정반대요. 내가 아주 명료하게 설명하죠. 마르크스주의는 하 경제적, 정치적 시스템이기 이전에 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음모요. 그리고 오직 혁명만이 유일한 절대적 진리는 오직 혁명에 이르게하는 철학과 경제, 그리고 정치만이 참된 것이요. 경제나 정치, 혹은 도덕윤리에서 절대진리 관적인 것이라고 합시다 - 는 존재하지 않소. 과학적 추론에 의하면 그것은 진리가 될 수도 있고 오류가 될 수도 만 혁명적 변증론을 신봉하는 우리에게 마르크스주의는 유일무이한 절대진리요. 이것은 마르크스를 비롯하여 그 ( 명가들에게 공통된 것이었소.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신념에 따라 행동합니다.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치밀한 논증 의도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한 어떤 이에게 레닌은 “내 생각엔 진리요” 라고 대답했소. 당신은 이 말이 안되는 것이었다고 생각하오? 말하건데, 레닌에게 그것은 현실의 모든 것이었소. 혁명이라는 절대적 진리 앞 모든 진리는 상대적인 것들이었소. 마르크스는 천재였습니다. 그가 단지 자신의 일을 자본주의에 대한 심층적인 비 시켰더라도 그의 학문적 업적은 대단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마르크스가 달인의 경지에 도달하는 대목은 그기 러들인 아이러니요. “공산주의는 승리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그 승리를 안겨줄 것이기 때문이다” 스는 고압적인 태도로 선언하지 않았소? 이보다 더한 아이러니가 있겠소? 기발한 곡예사의 솜씨로 인간을 의식적 는 개인으로 변모시킨 그는 사람들이 그의 말을 믿게끔 하기 위해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부터 주관성을 떼어놓 교묘한 술수가 그가 말한 자본주의가 현실이며 거기에 내재한 모순 때문에 결국 공산주의가 승리할 수 밖에 없다 들에게 증명하기 위해 그가 사용한 방법이었소. 이는 homo economico에 내재하는 태생적인 어리석음이 아니라 는 마르크스가 주장한 것과 같은 지속적인 모순은 생겨나지 않기 때문이요. Homo sapiens를 homo stultum으 위해서는 인류를 동물학적 사다리의 맨 끝으로, 말하자면 짐승의 수준으로 끌어내릴 수 있을 만한 마력을 소유해 의미하오. 오직 자본주의가 정점에 이른 시대에 짐승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진 인류가 존재해야만 ‘모순+시간=공, 예언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요. 그거 참, 당신한테만 하는 애긴데 이런 비의(秘意)에 입회한 우리는 루비앙카의 종 선전문구를 보면서 터져나오는 웃음을 주체할 수가 없소. 아마도 우리처럼 마르크스 역시 저승에서 그에게 농락당 해 그의 턱수염 너머로 마음껏 비웃음을 터뜨리고 있을 것이요. 전술적인 이유 때문에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모순, 서는 사람들을 기만하지만 그 폐해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요. 마르크스는 애초부터 그 모순이 어떻게 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심화되며 결국은 모든 생산활동이 공산주의 승리의 바로 전단계인 무정부적 혼란상태에 이 잘 알고 있었소... 그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본주의의 모순들을 만들어 내는 고 있었기 때문이요.”

**Pope Pius XI (1922-1939)**

"그 사악함과 간교함에 있어 인류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공산주의 이념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데는 공 거짓된 선전선동 외에도 또 다른 원인이 있다. 공산주의는 하나로 통일된 어떤 중앙권력의 조종하에 여러 국가와 특성에 따라 교묘하게 변형된 형태로 전파된다. 공산주의를 퍼뜨리는 핵심세력의 손끝에는 막대한 금융자원과 셀 들, 조직들, 국제기구들, 철저하게 훈련된 공작원들, 언론사, 출판사, 영화사, 연극무대, 라디오, 각급학원들, 그리고 놓여 있다. 오랜 시간에 걸친 이 거대한 네트워크의 일관된 노력으로 공산주의 사상은 조금씩 모든 계층 사람들의 고든다. 공산주의의 확산을 설명해주는 또 다른 주된 원인은 공산주의 이념이 불러온 재앙에 대한 세계 주요언론, 묵이다. 우리가 의도적인 침묵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까지 기사화하여 독자들의 시, 는 이들 언론이 러시아와 멕시코에서 일어났던 엄청난 비극과 현재 스페인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의 행들에 대해서, 또는 러시아의 공산정권과 같은 거대한 국제공산주의 조직에 대해서는 신기하게 일언반구도 없기 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이유는 이들 언론사들을 지배하는 오컬트세력(프리메이슨) 때문으로 이들의 변함없는 독 다름없이 기독교의 말살과 기독교적인 사회질서의 전복이다... 이들이 퍼뜨리는 공산주의 프로파간다의 해악은 바, 의 눈 앞에 있다. 유명한 공산주의 이론가들이 이미 공개적으로 천명했듯이 그들의 목표는 기독교 서구문명과 기, 살이며 인간, 특히 젊은이들의 마음속으로부터 신에 대한 기억을 추방하는 것이다... 스페인에서 공산주의자들은 그 치는 곳에 있는 모든 성당과 수도원들을 파괴하고 불살랐으며, 그 누구보다 먼저 노동계층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 천명에 이르는 남녀 성직자들을 잔인하게 학살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이 저지른 만행의 희생자들 대다수는 일,

들은 요즘 시대에 가능하리라고는 도저히 상상조차 못했던 야만적인 방법들로 살해되었다. 꼭 국민의 안녕에 대한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아닌 평범한 사람이라도 양식이 있다면 지금 스페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내일은 또 다른 곳에서 되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몸서리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 개인으로서, 또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느 정도의 속박과 자기절제는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신을 인간의 마음에서 지워보라, 그러면 그들은 그들의 대로 그 어떤 끔찍한 만행까지 마다하지 않는 짐승들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다.” (Divini Redemptoris, March,

#### Antonio Garcia de Tuy 스페인 성직자

“작금의 스페인 내전은 적그리스도, 유대교가 그리스도와 카톨릭 교회를 말살하기 위해 벌이고 있는 가장 무자비 인류의 역사가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있는 이때 국제유대인은 두 개의 막강한 군대를 이용한다. 첫 번째는 비밀리메이션이며 두 번째는 손이 피로 물든 공산주의자들과 이들과 연계되어 있는 각종 사회주의, 무정부주의 혁명서 (Revue Internationale des Societes secretes, July 15, 1937)

\* \* \*

“스페인 내전 동안 공화파의 붉은여단에 의해 학살된 민간인의 숫자는 총 85,940명에 달했다. 여기에는 5,255명의 명의 수도사, 283명의 수녀, 249명의 나이 어린 수사, 그리고 12명의 주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대개 좌익폭도들의 스트적인 잔혹성을 동반했다. 나발몰랄 관구의 한 신부는 옷이 벗겨진채 숨이 끊어질 때까지 채찍질을 당했다. 또 나무 십자가에 묶힌채 가시면류관을 쓰고 식초를 마시도록 강요받았다. 현장에 모인 폭도들은 그를 향해 이렇게 외치는 이름을 모독하라, 그럼 우리가 너를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에 신부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당하며, 당신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자 술에 만취한 한 폭도가 신부에게 다가가 그의 머리에 총구를 대고 다... 야엔의 주교와 그의 여동생은 마드리드 외곽에 모여든 2천명의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환호성을 지르는 좌익살당했다. 그들을 직접 처분하는 “영광”은 광신적인 반기독교주의자로 소문난 여류 혁명가이자 유대인인 라 페이다. 마드리드의 암파로 수녀원을 점거한 폭도들은 그들이 사로잡은 수녀들에게 모종의 성행위를 강요했다가 이를 자리에서 그들을 싸죽였고 나머지는 집단적으로 욕보였다. 세르네라에서는 폭도들이 한 수도사의 귀에 묵주알을 때까지 꼬챙이로 밀어넣어 죽이는 일이 벌어졌고 다수의 신부들이 산채로 불태워졌다. 바르셀로나에서는 무덤에서 녀들의 시신 19구가 성당의 정문 계단 앞에 전시되었으며 다른 남녀 성직자들은 자신의 무덤을 파도록 강요당했다. 또 일부는 투우장에 던져져 소떼들에 의해 처참히 살해되었다. 성직자인 두 아들을 둔 한 여성은 그녀의 목췌는 폭도들에 의해 살해되었다. 이와함께 어린이들을 포함, 모두 800명의 무고한 양민들이 폐광에 생매장되었다. 폭도들은 양민을 학살할 때 항상 “자유를 위해 교회를 타도하자!” 라는 구호를 외쳤다... 프랑스대혁명의 참상도 아비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모든 학살과 만행과 테러의 배후에는 그 누구도 아닌 에르노 게로가 버티고 있었다. 그는 쿤의 공산정권이 한동안 헝가리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시절 스페인에서와 비슷한 적색테러를 주도한 유대인이었다. 은 공산주의와 유대교 안에 존재하는 기독교에 대한 증오심이 어느 정도의 것인지를 보여주는 증거라 아니할 수 함께 스페인의 노동자계층은 소련 초창기의 볼셰비키 살인자들을 본떠 만들어진 비밀경찰에 의해 가장 많은 피를 리드에만도 26개의 분소가 있었으며 이들의 공포정치는 3년 뒤 내셔널리스트/팔랑헤 당이 승리함으로써 스페인에 찾아오기 전까지 계속되었다.” (Dr. E.R. Fields, Reds Sought to Kill All the Christians of Spain, The Last, Issue No. 357)

(유태인 에르노 게로)

“특히 스페인 내전과 관련하여, 영국 대중은 소위 ‘주류’ 라는 유태인 언론사들의 왜곡보도에 철저하게 농락당했다. 언론은 프랑코에 대한 우호적인 소식은 모조리 억누르는 한편 그와 내셔널리스트들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기고 보도했다. 그러나 같은 언론에 따르면 유대인 맑시스트 인간백정들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았다. 영국의 언론은 이들의 피비린내나는 활약상에 대해서는 함구로 일관했고 스페인을 살육의 도가니로 만들고 있는 광란의 유 “민주주의” 로 포장하여 선전해주었다. 러시아는 소수 유대인들의 희생양이라는 독일 총통 히틀러의 발언을 보도 14일자 News Chronicle 기사에는 신기하게도 “유대인” 이라는 낱말이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흐릿하게 인쇄 록 같은 신문의 다른 기사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뚜렷하게 인쇄되어 있었음에도 말이다. 영국 파시스트 연맹에 보 26일자 서한에서 프랑코 장군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본인은 여러분의 고귀한 조국과 동포를 우롱하는 유대인 한 프로파간다들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물론 영국 국민들이 스페인 내전의 진정한 본질에 눈을 뜨 려워 합니다. 그럼 이 내전의 본질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국제유대인의 마수로부터 기독교문명을 수호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Arnold Leese, Jewish Press Control, 1939)

**Adrien Arcand** 캐나다 언론인, 정치가

“공산주의는 세계를 손아귀에 넣으려는 유대인의 음모라는 것을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다. 세계 공산주의는 “지상낙원” 의 약속이다. 그들은 공산주의가 뭘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기에 세계의 적화를 위해 공산주의는 유대인이 발명하고 유대인이 주도하며 유대인이 확산시키고 유대인이 돈을 대는 오직 유대인에게만 유익한 이런 진실을 당당하게 공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이제껏 세계 각지에서 그 세를 불려온 것이다. 지금까지 변증론자를 자처하는 좌파 지식인들이 쳐놓은 연막과 싸웠을 뿐 실제로 공산주의로 득을 보는 배후 조종세력인 유

대로 맞서본 일이 없다. 오늘날 기독교인과 비유대인들은 유대인을, 그리고 진실을 두려워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그들이 퍼뜨리는 패러독스적 구호들에 마비되어 있다... 공산주의는 어떤 정치, 경제적 교조나 원칙의 묶음이 아니다 오직 추잡한 범죄음모일 뿐이다. 공산주의는 신과 인류에 대한 범죄이다...” (Le Gogul, November 23, 1937)

**Stephen S. Wise** 미국 수석랍비

“어떤 이는 맑시즘이라 부르지만 나는 유대교(Judaism)라고 부른다.” (Jewish Chronicle, London, Novem

**JEWISH LIFE** 뉴욕 유대계 잡지

“유대교와 일상의 모든 면을 감안하더라도 오늘날 소련에서 유대인 문제란 존재하지 않는다. 큰 규모의 유대인 있음에도 소련은, 그것이 종교적인 것이든, 정치, 사회적인 것이든, 유대인 문제가 가장 시급한 국가적 이슈로 대두할 유일한 국가이다. 바로 서쪽 국경을 넘어 폴란드에 가보면 상황이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나치화된 오스트리아 등의 파시스트 국가들에 비한다면 U.S.S.R.은 가히 유대민족의 유토피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유대민족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July, 1938)

(‘크레믈린의 늑대’ 유대인 라자 카가노비치, 스탈린 처남)

**GIORNALE D'ITALIA** 이탈리아 일간지

“볼셰비키는 국가의 산업과 광산을 노동자들에게 선물하고 그들을 ‘나라의 주인들’ 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 소위 이 ‘사회주의화 시대’ 에서와 같이 노동자계층이 빈곤과 기아에 허덕였던 적도 없었다. 이전의 지배 부르조아지 관료계층으로 대체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100퍼센트 유대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실제로 혁명이 일어난 때난 유대인 자본가들은 얼마 되지도 않았다. 러시아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은 스탈린의 최측근 조연자인 유대인 라자 카가노비치(Lazare Kaganovich)의 각별한 관심아래 특별한 대접을 받고 산다. 절대다수의 노동자 계층이 ‘경제의 주체적인 거짓말로 사탕발림을 당하는 동안 큰 산업체나 공장, 군수물자, 大小 돈벌이 사업들은 사실상 유대인의 손아래다... 유대인 당간부들의 가족은 값비싼 차와 시골별장을 소유하며 기후가 좋은 크림리아와 코카서스에 있는 호수에서 겨울을 난다. 그들의 부인들은 값비싼 아스트라칸 코트를 입고 파리에서 들여온 의상과 보석, 금팔찌, 금반을 자랑한다. 이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혁명으로 이 나라의 주인이 되었다는 노동자들은 비참한 현실이다. 볼셰비키들은 러시아 인민에게 완전한 자유와 자율을 약속했었다... 그럼 우크라이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자. 이 지역을 통치하는 권력기관은 거의 모두 유대인이나 모스크바에서 내려온 스탈린의 주구들로 채워져 있다. 수탈과 부패, 그리고 농업에 관해서라면 눈곱만큼의 지식도 없는 무능 탓으로 과거 비옥하기로 유명했던 이 지역 오늘날 거의 만성적인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 (February 17, 19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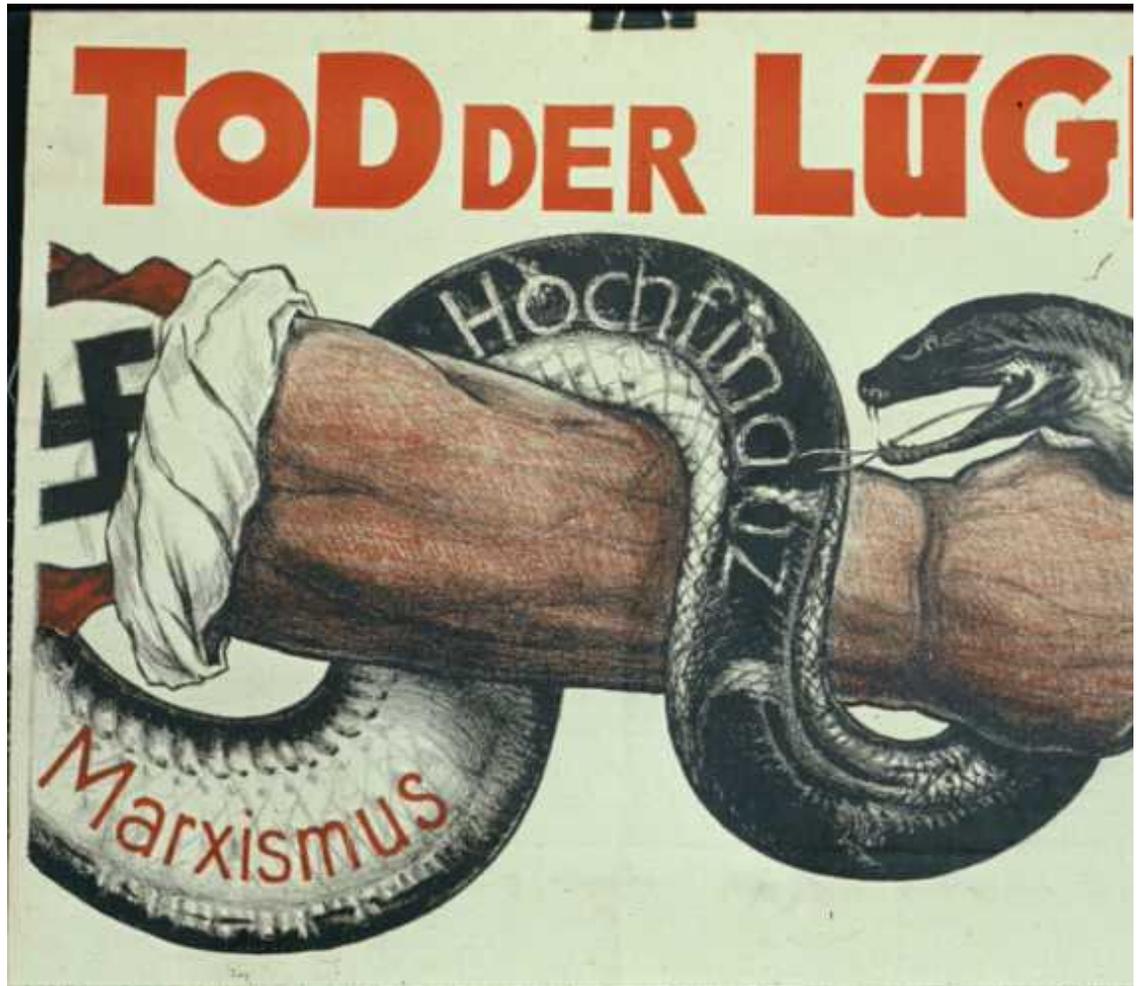
**프란시스코 프랑코 스페인 총통 (1939-1975)**

스페인 내전에서 내셔널리스트 세력을 승리로 이끈 프랑코는 1939년 5월19일 마드리드에서 열린 전승축하 기념식 같이 선언했다, “잠시라도 안도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 동안 스페인 정복을 획책해온 대자본과 공산주의라는 두 지닌 이 유대적인 괴수는 하루 아침에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Nehemiah Robinson, The Spain of Franco Policies Toward The Jews, 1953)

**아돌프 히틀러 독일 국가사회주의 노동당 당수**

“11월(1918년), 수병(水兵)들이 트럭을 타고 몰려와 우리에게 폭동에 가담할 것을 촉구했다. 소위 ‘우리 조국의 운, 그리고 존엄성’ 을 위한 이 투쟁에 나설 것을 선동한 주동자들은 유대인 청년들이었다. 이들 중에서 전선에 나가는 한 명도 없었다... 독일혁명을 교사하고 배후에서 끈을 잡아당기는 자들은 다름아닌 국제유대인이다... 혁명은 원하는 세력이 아닌, 폭동과 강도, 분탕질을 꿈꾸는 세력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나는 차차 사민주의 계열의 언론분 유대인들이 조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되었다... 유대인들이 만드는 신문들 중에 진정 민족주의적인 문은 단 하나도 없었다... 나는 손에 닿는 대로 사민주의 팜플렛들을 모아 저자들의 이름을 올려다 보았다. 그들은 이었다... 대중의 무지함과 우리 지도층의 안일함 탓으로 사람들은 유대인의 거짓말 공세에 쉽사리 농락당한다... 나 이르러 유대인 칼 맑스의 이론과 그의 진정한 의도를 깨닫게 되었다. 그때가 되어서야 나는 그의 ‘자본론’ 과 함께 어떻게 국가의 경제를 파괴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다. 사민주의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제자본의 독점과 자유를 마련하는데 있다... 실제로 국가의 은인이 될 수도 있는 노동조합을 이용해 유대인들은 비유대인 국가의 경제를 러시아를 손아귀에 넣은 국제유대인은 독일을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독일은 러시아와 비슷한 전철을 상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날 서방의 소위 민주주의란 것은 맑시즘의 바로 전 단계에 불과하다. 민주주의 없이 맑시즘은 불가능하다... 맑시즘이란 신흥종교의 도움으로 유대인이 만약 세상의 만국을 정복한다면 그들의 왕관은 인간에 바쳐지는 조화가 될 것이다...” (Mein Kampf)

국제자본과 맑시즘이라는 이름의 Judaic serpent



출처 : <http://blog.chosun.com/blog.screen?blogId=22677&menuId=83770>

오늘도 불만스런 당신에게...





체중을 감량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 죽어 갑니다



부모님의 지나친 관심이 귀찮습니까?      그들은 부모도 없습니다.



똑같은 게임이 지루합니까?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이키 대신 아디다스를  
선물받았습니까?      그들은 단 한가지  
브랜드 밖에 없습니다.





침대에서 자는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깨어나지  
않기를 바랄 것입니다.

당신은 아직도 불평하고 있습니까?

주위를 둘러보고  
이 덧없는 생애 동안  
당신이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하세요.

우주에도 우리는 만물을 위해 필요한 것보다

만큼게도 우리는 만족을 위해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의 나머지 3분의 2를 망각하거나 간과하는 "현대적이고 진보된" 사회의 이같은 소비주의와 부도덕함이 끝없이 반복되지 않도록 합시다.

어떤 의무감이나 행운을 얻겠다는 기대감 없이 이 자료를 전파하세요.

간직하고 있지 말고, 전파하세요. 헛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불평은 줄이고 더 많이 나눕시다!

## With or without you – 사회, 문화, 역사

블로그 라오디게아의 노래 (계3:14-22) <http://blog.daum.net/soph07>

저자 주님바라기 502™

발행일 2012.04.15 10:21:36

 블로그